

리아호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169차 연차 대회 특집호 · 1999년 7월호





그림: 로버트 티 배렛, 생명의 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13~1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9차 연차 대회 보고

1999년 4월 3~4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네클에서 행해진 말씀과 진행 상황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대회의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말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역과 속죄에 대해 간증했다. "이 훌륭한 부활절 아침에, 전능하신 이의 종으로서, 그분의 위대한 대업에 종사하는 예언자와 사도로서, 우리는 음성을 높여 불멸의 구세주에 대한 증거와 간증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의 속죄의 회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무덤으로부터 일어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불사 불멸뿐만 아니라 또한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저는 이 부활절에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증거와 간증을 드립니다. 엄숙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회의 첫 모임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인사의 말씀을 했다.

"우리는 천만 명의 대가족으로서...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하나님의 대업과 왕국을 건설하는 행복하고 축복 받은 백성들입니다. 인종이나 국적이나 혹은 빈부나 노소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공통된 간증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교회 본부 건물(오른쪽)과 요셉 스미스 기념관(왼쪽) 사이의 광장에 아름답게 피어 있는 봄꽃들. 중앙에 솔트레이크 성전이 보인다.

만났습니다.

"저는 교회가 좋은 상태에 있음을 알려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현재 우리에게서 약 6만 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오는 7월이면 선교부 수가 333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 봉사자와 선교사도 137,629명이나 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또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의 가족 역사 사업 또한 크나큰 의미를 갖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꿈도 못 꾸었던 규모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

족시키기 위해 많은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여러 지역에서 성찬식 참석률이 올라가고 있고 활동을 또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모임을 마칠 때,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은 기쁜 소식을 발표했다. "대회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 곳에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가운데 나무 성전을 재건축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교회의 한 회원과 그분의 가족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성전이 건축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계사들은 이미 일을 착수했습니다. 이 신축 건물은 미시시피 강둑에 최초로 그러한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을 기리는 건물로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틀 동안 개최된 대회에서 힝클리 대관장과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 대관장과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 대관장이 각각 모임의 사회를 맡았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는 6명의 새로운 총관리 역원이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3명의 형제가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지명되었다. (23쪽과 125쪽 참조)

대회의 실황이 중계 방송되지 않은 교회의 단위 조직들은 지역의 스테이크와 지방부를 통해 연차 대회 비디오 테이프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인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관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회원: 보이드 케이 팩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샬, 엘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크트, 호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켄슨
고문: 제이 이 켄슨, 존 엠 매드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 로날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 리처드 엠 톰슨
그래픽 책임자 : 앨런 알 와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 알 빌 켄슨
부편집인 :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 베스 테일러
출판 보조 : 코니 셰익스피어
편집 보조 : 레너 제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 엘 겸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 스크트 댄 캄벨
신설 디자이너 : 세리 쿡
디자이너 :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 제인 엠 피터슨
생산 : 레지널드 케이 크리스티슨, 데니스 커비, 제이슨 엘 엠 포드, 디나 엘 쇼렌슨
디지털 표지 인쇄 :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 조이스 켄슨

통 권 : 제 400호, 제 36권, 제 7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99년 7월 1일 (월간지)
발행인 : 학음환
편집인 : 한상익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연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의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9-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파냐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카리비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199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July 1999 No.7,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목차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9차 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 4 이 사업은 계속됩니다
- 6 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 9 탐욕과 이기심과 지나친 방종
- 13 가족을 성전에 가도록 준비시킴
- 16 아버지의 손길
- 19 오늘이 우리의 날입니다

-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 엘 톰 페리 장로
- 조 제이 크리스티슨 상도
- 캐롤 비 토마스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3 교회 역원 지지
- 24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 25 1998년도 통계 보고서
- 26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하고"
- 29 성전 축복을 받음
- 32 "작은 일에서"
- 34 참된 추종자
- 37 가족을 강화함: 우리의 거룩한 의무
- 41 목격자: 마틴 해리스

-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테드 이 데이비스 형제
- 에프 마이클 왓슨 형제
-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리처드 지 스크트 장로
- 스티븐 에이 웨스트 장로
- 로버트 제이 웨튼 장로
-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델린 에이치 오스 장로

신권 모임

- 45 여성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
- 48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 50 우정 증진
- 51 신권과 가정
- 53 순종: 자유에 이르는 길
- 56 신권 소유자: 주님의 강한 군대
- 60 양들의 목자

- 러셀 엠 넬슨 장로
- 레이 에이치 우드 장로
- 네드 비 무에서 장로
- 디리 토블러 장로
-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 67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 71 감독과 그의 보좌들
- 74 우정 : 복음 원리
- 77 유일한 기회
- 79 사랑과 봉사
- 82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 말린 케이 켄슨 장로
- 세리 엘 듀
-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 85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미치는 권세
- 89 영감에 찬 교회 복지
- 93 귀향을 환영하노라
- 96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안전합니다
- 98 다리와 영원한 유품
- 101 꺼지지 않는 불결처럼
- 104 주님의 축복에 감사함

-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조셉 비 워스런 장로
- 키스 비 맥멀린 감독
- 크리 엘 코포드 장로
- 데니스 비 노인슈타터 장로
- 엘 러셀 벨라드 장로
-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청녀 대회

- 106 광야에서 너희의 빛이 되며
- 108 침례의 영적인 힘
- 111 빛을 따르십시오
- 114 해외 왕국으로의 여행
- 6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17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 118 양을 찾고 먹이라
- 125 교회 소식

- 새론 지 라슨
- 캐롤 비 토마스
- 마가렛 디 네이들드
-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주제 색인

가르침	6, 13, 37, 85, 101
가족 관계	37, 45, 51, 71, 74, 85, 98, 101, 104
가족 역사	98
감독	60, 71
감사	104
개심	67
견딤	111
결혼	29
겸손	26
경전 공부	114
계명	101
고결	60
교리	85
교회 조직	71
그리스도의 빛	67, 111
극기	96
기도	106, 111, 114
단정함	108
마틴 해리스	41
모범	114
목표	106
몰몬경	41
복지 프로그램	89
봉사	34, 67, 79, 114
부모의 역할	9, 13, 16, 45
부활	82
부활절	82
비평	96
빛	9
사랑	32, 34, 79
선교 사업	4, 79, 118
성신	6, 37, 108
성약	29
성전 및 성전 사업	4, 13, 29, 104
소문	96
속죄	93
수련 장로	56
순종	48, 53, 106
신권	48, 51, 56, 60
신뢰	53
신앙	77
여자	45
영성	19
영원한 진보	19
예수 그리스도	16, 32, 50, 77, 82
우정	50, 74
우정 증진	74, 118
의로움	48
이기심	9, 26
인도주의적 지원	89
자립	9, 89
자유의지	53

재활동 촉진	50, 56, 93
전세계적인 교회	4
제자의 신분	32, 34
죄	26
주일학교	6
준비	19
증인	41
지속적인 활동	98, 118
침례	108
평안	77
평의회	51, 118
하나님 아버지	16
회개	93

4월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신 연사들(가나다 순)

네이들드, 마가렛 디	111
넬슨, 러셀 엠	45
노인슈안더, 데니스 비	98
듀, 셰리 엘	77
라스, 새론 지	106
루에시, 내드 비	50
맥밀런, 키스 비	93
맥스웰, 닐 에이	26
벨라드, 엠 러셀	101
스콧, 리처드 지	29
아이어링, 헨리 비	85
옥스, 델린 에이치	41
우드, 레이 에이치	48
위스런, 조셉 비	89
웨스트, 스티븐 에이	32
젠슨, 말린 케이	74
코포드, 크리 엘	96
크리스틴슨, 조 제이	9
토마스, 에스 몬슨	23, 56, 67, 114
토마스, 캐롤 비	13, 108
토블러, 디 리	51
파우스트, 제임즈 이	19, 53
패커, 보이드 케이	71
패리, 엘 톰	6
헤이트, 데이비드 비	79
헤일즈, 로버트 디	37
홀런드, 제프리 알	16
훤튼, 로버트 제이	34
힝클리, 고든 비	4, 60, 82, 104, 118

방문 교육

리아호나, 1월호와 7월호 대회 특집호에는 지정된 방문 교육 메시지가 없습니다. 방문 교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방문을 받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한 후에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줄 대회 말씀을 그 달의 메시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대회 말씀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음

인터넷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나와 있는 대회 말씀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교회 공식 웹사이트인 www.lds.org에 접속한다.

이 사업은 계속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교회는 지명 받은 임무의 방향대로 부여받은 사명을 계속 떠나가고 있습니다.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한 번 이 훌륭한 세계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때는 6개월이라는 대회 간격이 길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1천만 명이라는 대가족으로서 임무 지명을 받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져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쁨의 교제를 통해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 다시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하나님의 대업과 왕국을 건설하는 행복하고 축복 받은 백성들입니다. 인종이나 국적 혹은 빈부나 노소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공통된 간증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만났습니다.

저는 교회가 좋은 상황에 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주님의 사업은 계속되

고 있으며 그 가운데 두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약 6만 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오는 7월이면 선교부 수가 333개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음과 같은 명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마태복음 28:19)

뿐만 아니라 비전도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자원 봉사자와 선교사도 13만 7629명이 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어떤 종류의 보상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바치는 성숙한 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다만 왕국의 사업에 대한 큰 사랑으로 일할 뿐입니다. 이들은 모두 합해서 5억 3천 1백만 달러의 급료를 받고 1만 5174명이 일하는 몫에 상당하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가족 역사 사업 또한 크나큰 의미를 갖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의 뿌리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것들은 이 사업이 추구하는 위대한 목표를 성취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이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돌려짐으로써 주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현재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에는 꿈도 못 꾸었던 규모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우리는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멕시코의 콜로니아 후아레스 및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올해의 남은 기간에



도 14개의 성전이 더 헌납될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사업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일이 잘 해결되고 있는 이상 저는 우리가 틀림없이 그 목표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을 강타한 경제 문제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켰고 그 결과 우리는 건축 부지를 전보다 낮은 가격에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여러 지역에서 성찬식 참석률이 올라가고 있고 활동률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항들을 언급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 사업이 힘차게 뻗어 나가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회가 열리고 있는 태바네를 내부

우리는 대체로 교회의 전체 회원수 같은 큰 수치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나름의 필요 사항과 문제, 소망과 꿈, 그리고 신앙과 확신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합니다. 우리는 다루기 힘들고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 강화시켜 주고 붙들어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를 복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교리와 성약 81:5) 해야 함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상의 거민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여러 종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기르고 서로를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리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악의를 품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다는 태도가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은 고통받고 있는 코소보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것처럼 야만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만행의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전보다 잘 알려지고 이해 받고 있어서 기쁩니다. 대중 매체는 대체로 우리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시대의 낡은 이미지는 선정주의와 사태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여전히 질질 끌려 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 이미지는 엄청나게 주어지는 정보와 거의 매를 같이 하여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제의 신문은 곧 잊혀집니다. 반면 교회는 지명 받은 임무의 방향으로 부여받은 사명을 계속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갖고 다 함께 협조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도자며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위대한 사명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십이사도와 자매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말씀하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행해질 말씀을 위해 많은 기도와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로서 교리와 일상의 크고 특별한 토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향상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기도와 연구를 통해 겸손히 가르치기를 구한다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18 49년 12월 9일, 일요일 아침 8시에 8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 약 30명이 한 가정에 마련된 작은 교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문턱에 발을 털고 의자와 모자에 묻은 눈을 털어 낸 다음 소박한 긴 의자에 자리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수업이 시작되길 기다렸습니다. 밖은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였지만, 화로에서 흘러나오는 열기가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주일학교 개회를 선언하는 리차드 발랜틴의 눈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의 지휘로 소년 소녀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자신의 집의 그 방을 헌납하는 조용하지만 열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님께 드리는 경건과 사랑을 담은 목소리가 낭랑하게 울렸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솔트레이크 계곡에서의 첫 주일학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조직은 그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국 스코틀랜드에서 자신이 활동적인 회원으로 다니던 구제 장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조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젊은이들에게 복음 지식을 가르치려는 원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전체를 암기하고 자신이 암기한 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길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정은 식사 전에 자녀들이 모자를 벗고 간단한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미국에 새로운 예언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스코틀랜드 가정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리차드는 이러한 소문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혼란스런 종교적인 의문에 빠지게 되자 드러내 놓고 더 많은 빛과 지식을 간구했습니다. 1841년에 올슨 프랫이 에딘버러에 찾아왔습니다. 리차드는 올슨 프랫이 전하는 메시지를 경청하고 1년간 교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개심하고 북해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이며 물문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사실을 제가 받

아들이지 않았다면 저는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대다수 개종자들의 경우처럼 그도 자신의 사업체를 팔고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843년 11월 11일에 리차드의 가족은 그 당시 대소동이 일고 있던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일리노이 주를 떠나 윈터 퀴터스로 달구지 여행을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한 그는 곧 서부로의 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1848년 9월에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여 곧바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에서 주일학교가 처음 열린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전에 제14와드였던 예배당이 완성되자 주일학교는 새 집회소로 이사를 했습니다.

발랜틴 형제는 평생토록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의 복음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자 열망했습니다. 제 사촌이기도 한, 돌아가신 콘웨이 비 손너 형제에게 첫번째 주일학교에 관한 이러한 역사를 남겨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콘웨이 비 손너, 왕국의 기사에서 발췌.)

주일학교 설립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관계에는 가르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부모의 가장 큰 책임 중 하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직업 세계에서 우리가 맡게 되는 많은 임무가 가르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모든 임무 지명은 어떠한 형태로든 가르침이 요구됩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이렇게 지시 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이해하면 유익한 이론과 원리와 교리와 복음의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88:77~78)

1월 1일에 우리는 더욱 효과적인 교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새 자료를 받았습니다. 새 교회 지침서에는 복음 교육과 지도력에 관한



대바네를 동판에 줄을 서 있는 대외 참석자들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설명되고 있는 원리들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들입니다. 이 항목에 나오는 유의 사항에는 교사들이 임무 지명에 더욱 효과적으로 임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유의 사항에는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가르치라는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거룩한 가르침을 통하여 이 지상에서의 어떠한 역할보다도 더 위대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준비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누가복음 2:40)

이 기록에 뒤이어 구세주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세주께서는 열두 살이었을 때 양친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려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

습니다. 그 절기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양친은 예수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친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야 그곳에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누가복음 2:46~47)

구세주께서 어렸을 때 보여 주신 이 모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가르쳐야 한다는 긴박감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긴박감을 느꼈던 예언자가 니파이의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야곱과 동생 요셉은 그들 백성들의 제사와 교사로 성별되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부지런히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가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임하리라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신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서 1장 19절에서 야곱은 다음과 같

이 기록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전력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을 때 백성들이 짓는 죄를 대신 떠맡지 아니하려 주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죄가 우리의 옷에 묻지 않게 하도록 힘을 다하여 일하였느니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들의 죄가 우리의 옷에 묻게 될 것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흠없다 하지 못할 것이라.”(야곱서 1:19)

구세주처럼 교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학습함에 긴박감을 느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93편에서 우리는 구세주께서 “처음에는 그가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으시더라.”(12절)라는 구절을 봅니다. 하이람 스미스에게 주신 훈계에서 주님은 모든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현명한 충고를 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전파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그러한 연후에야 내가 원하면 나의 영과 나의 말 곧 인간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21)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획득한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신중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간직되어 온 거룩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을 기록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태초로부터 시작된 복음 교육이 신약과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주 구세주를 증거하는 또 하나의 책인 물문경이 기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교리와 성약에 들어 있는 계시들 및 값진 진주에 들어 있는 가르침 및 계시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것처럼 보편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거룩한 경전을 공부하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회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새 지침서의 교육 항목에 있는 두 번째 유의 사항에는 영으로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42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저들은 언약과 교회의 신조를 지켜 실행해야 하느니라.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것들을 자기의 교훈으로 삼을지니라.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지나니,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교리와 성약 42:13~14)

변함없는 동반자로서 우리가 교사로서 준비하도록 교화시키고 영감을 주는 신화의 일원인 성신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스스로를 준비하여 가르치는 능력을 증대시켜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할 때 강한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영의 지시를 받을 때 우리는 큰 권세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시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영의 도움으로 지식을 나누는 것이 영감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로부터 성임되어 보혜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파송된 자는 진리의 영으로 전파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만일 다른 방법으로 하면 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거니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진리의 영으로 받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받느냐?

“만일 다른 방법으로 받을진대 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진리의 영으로써 말씀을 받아 들인 자가 진리의 영이 전파하시는 대로 받아들임을 이해하지 못하며 알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그런고로 전파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는 서로 이해하나니, 둘은 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0:17~22)

기도와 연구를 통해 겸손히 가르치기를 구한다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영의 도움을 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과 일치하는 말씀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들이 교육한 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저는 한 특별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용했던 교수 방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교사 자신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뉴욕시의 한 이사회에서 그 교수 방법이 인용되리라고 그 교사 자신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교사는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우 노련한 분이셨습니다. 그녀가 공과에서 사용한 용판은 그 시절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절로부터 저의 전문직에서의 중대한 시기에 이르도록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큰 소매 회사의 뉴욕 경리부장의 자리에 발탁되었습니다. 저의 새 직무는 이사회에 예산안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일이었습니다. 발표 몇 주일 전에 저는 회사 사장실로 불려가서 이사회에 요구가 예산안을 발표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사회를 설득할 만한 발표를 할 것과 우리가 제시한 예산안을 지지하는 보장을 받도록 주의 받았습니다. 저는 당혹감과 자신감의 상실로 부담을 느끼며 사상실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이사회가 열릴 방에 가서 주위를 둘러보고 발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방에 앉아 있는데 벽 대부분을 가리고 있는 큰 용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것은 음향 효과를 위해 설치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큰 용판을 보면서 저는 저

의 초등학교 교사와 용판의 활용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솔트레이크로 사람을 보내 용판에 붙일 종이를 구해 오게 했고, 종이도 도착하자 그 위에 각기 다른 세 가지 예산 기획안을 준비했습니다. 예산을 발표하고 토론이 뒤따를 때의 적절한 순간에 저는 한 예산 기획서를 떼어 내고 다른 예산 기획서로 대체시켰습니다. 이사회는 임원들은 용판 기법을 활용하는 제 발표에 매료되었습니다. 차선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시할 때마다 그들은 즉시 첫 번째 예산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가 실제로 원하던 것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 같았으며 발표가 끝난 뒤에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발표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아무튼 저는 다음주에 사장실로 불려갔고 거기서 이사회가 저를 경영 일선에서 간부 수준으로 승진시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효과적인 가르침의 간단한 예에 불과하지만, 그 가르침이 행해지는 곳이 가정이든 교회의 공과 교실이든 그 밖의 어떤 다른 곳이던 간에 그것은 한 개인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한 위대한 교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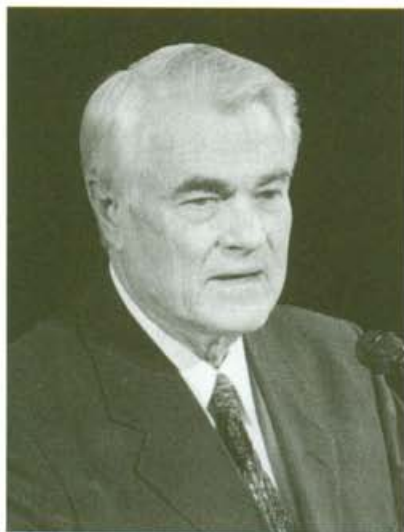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가정의 안정과 순수함, 그리고 국가의 안전과 영속성은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며 교사는 아이가 훌륭하게 살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78쪽)

효과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우리가 더욱 연구하고 준비하여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결심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감 받은 가르침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목표를 받아들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탐욕과 이기심과 지나친 방종

조 제이 크리스튼슨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불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왕국을 세우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재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고통받는 이에게는 위안을 주고 안락에 젖은 이에게는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빈부를 막론하고 우리들 가운데 안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에게 화 있도다. 너희의 재물이 너희 영육을 썩게 할 것임이라..."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상하지 아니하고...눈에는 탐욕이 가득(한)...너희 가난한 자에게 화 있도다."(교리와 성약 56:16-17)

누군가가 쓴 이 짧은 기도를 들어본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순간까지는 그럭저럭 잘해 왔습니다. 험담하거나 성내거나 탐욕하거나 통명스

럽거나 비열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지나치게 방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조금 후에 잠자리에서 일어났 그 순간부터 훨씬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지나친 방종을 극복하려 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훨씬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어느 때와 같은 솔직한 태도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백성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은 이들이 이 나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주님과 그의 백성을 잊으며 나태해져서 교회에서 스스로를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풍요에 제대로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브라이언트 에스 킵클리, 개척자 선조들의 신앙(1956), 13쪽 인용)

우리의 번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부유해지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이기심과 지나친 방종의 결과로 나태해져서 영을 잃을 수 있으며, 문자 그대로 교회에서 스스로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모리스 켈렌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질문은 어떻게 부를 획득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정신을...이것보다 더 크게 사로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볼 수 있습니다."모리스 찰판트, "교회의 죄", 웨슬리 감리교단, 1965년 10월호 대회보고에서 조 에이치 반덴

버그 인용)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돈이란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디모데전서 6:10) 부자들 중에는 자신의 재원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왕국을 세우는 일에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번영을 훌륭하게 대처하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물질주의에 대처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욕구와 필요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어머니는 제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제 아버님은 해마다 차를 새로 바꾸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곡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아버님은 보다 비싼 차를 몰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새 차는 예전 차보다 얼마나 더 비싼가요?"

아버님이 대답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 차를 타고도 언제나 제가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차액을 우리보다 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해에 아버님은 보다 값싼 차를 타고 돌아오셨고 계속해서 관대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욕구가 필요로 변하기 쉽습니다. 다음 사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작은 사치야, 울지 말아라. 얼마 안 있어 필요가 되잖니?"

둘째,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베풀어 버릇없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의 지나친 방임으로 인해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복하던 혹은 많은 사람들처럼 평범하던 간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서 갖지 못한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기대라는 축복을 빼앗고 맙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극기입니다. 보편적으로 즉각적인 자기 만족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고군 분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맥스웰 장로는 염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회 내의 훌륭한 청소년들과 젊은 독신들 중에 일부는 그다지 노력도 하지 않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허망한 바람이지만, 약간의 예의바른 말이나 감사의 말을 듣고자 차 값은 물론 연료비에서 보험료까지

일체 부모가 지불하는 등 여러 가지 특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진 것들은 이기심과 권리 의식과 계약을 맺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BYU 예배 모임, 1999년 1월 12일)

젊고 현명한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줄 수 있는 것들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미루어 둡니다." 프레드 고스만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은 아이들은 살아가는 동안 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제 멋대로인: 미국 어린이와 그들을 변화시키는 방법(1992), 32쪽) 따라서 언젠가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지, 그들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성품을 개발하는 데 중요합니다. (고스만, 제멋대로인, 11쪽 표지 인용) 오히려 우리는 자녀들에게 스스로 이렇게 물어 보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있다고 세상이 좋아질까?"

우리는 수많은 자녀들이 '재미없어, 심심해, 시시해'라고 생각하며 자라나는 총천연색 특급 활극으로 이루어진 유희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활동을 할 때에도 일과 놀이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제가 자랄 때 경험했던 것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분을 깔고 담장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고 정원에서 함께 일하던 가족 활동들입니다. 대다수의 우리 아이들은 일하고 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놀기만 하고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방종의 결과로 많은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집을 떠납니다. 핑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계를 꾸려야 합니다. 주님은 아담에게 종신토록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자립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갖추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있는 모든 젊은 남성들은 자신의 동반자와 태어날 자녀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맡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탐내지 말찌니라. 앤 사인, 1990년 3월호 2쪽)





왼쪽에서 오른쪽: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고든 비힝클리 대관장,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어떤 일을 상의하고 있는 대관장단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요리나 바느질, 그 밖의 중요한 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전혀 배우지도 않고 결혼합니다. 이처럼 필요한 기술에 대한 부지와 함께 재정 관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서 수많은 실패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경우를 통해 보듯이 우리가 사치스러운 유행과 패션에 노예가 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는지 두렵습니다. 경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21)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시간과 돈과 생각을 투자하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핑과 소비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는지 평가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유행하는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옷장을 가득 채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는 아름답고 단정한 용모와 정숙한 태도를 갖출 책임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다면 옷에 지나친 낭비를 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열 번도 넘게 우리가 입는 옷과 관련된 교만의 문제에 대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엄청난 부와 값진 비단과 잘 짠 세마포와 풍성한 양떼와 가축과 온갖 금은 보화로 인하여 교만해지기 시작하였으니, 이러한 물건들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져 저들은 참으로 값진 의복으로 치장하기 시작하였더라."(엘머서 4:6)

우리가 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 개척자 선조들이 지켰고 흔히 인용되는 다음과 같은 신조를 따른다면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쳐서 사용한다. 닳을 때까지 사용한다.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한다. 없는 대로 생활한다."

셋째, 이미 빈번히 들어 왔지만 검소하게 살고 빛지는 것을 마치 전염병인 것처럼 피하십시오.

힝클리 대관장님은 최근에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가족에 화평과 만족을 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수입의 한도 내에서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통을 주고 좌절케 하고 낙담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빛과 채무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상호 부조회 잡지, 1932년 5월호, 362쪽)

사무엘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채란 그저 불편한 것일 뿐이라는 생각에 자신을 길들이지 마십시오. 부채가 곧 재앙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안락하게 사는 데 진실로 필요한



대외 동안 모임이 끝난 후 템플 스케이의 어셈블리를 바깥 모습

집은 몇 채나 됩니까? 대궐처럼 으리으리하고 허영심을 부추기며 필요와는 거리가 먼 집을 구입하느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을 위협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립하고 나눌 수 있는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물론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살고 부채를 피한다면 재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수입이지만 평생을 통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많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 차이점은 단지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저축하여 복리 이자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재정 상담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에 대해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란 수입이 아닙니다. 매년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모두 써버린다면 더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단지 호화로운 생활일 뿐입니다. 부란 소비한 것이 아니라 축적한 것입니다." (토마스 제이 스탠리와 윌리엄 더 당코, *이웃의 백만장자* (1996), 1쪽)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돌릴수록 탐욕과 이기심과 지나친 방종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영적인 부패 현상을 더욱 잘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원은 소유물이라기보다는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왕국을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재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언자 야곱은 우리에게 부를 축적하는 방법과 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훌륭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라야 너희가 구하는 바 부를 얻을 것이요, 선행을 위하여 이를 좇으리니, 험벗은 자를 입히며 굶주린 자를 먹이며 구속된 자를 놓아 주고, 병들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살펴 구제하게 되리라." (야곱서 2:18-19)

정직한 십일조를 내는 것에 덧붙여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관대해야 합니다. 얼마나 주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시 에스 루이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유일한 안전 규칙은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자선이 조금도 우리를 위축시키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면 적은 것입니다. 하고 싶지만 자선을 베푸느라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독교인 (1952), 67쪽)

우리가 기여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과 대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금식 기금과 인도주의적 기금을 관대하게 내야 합니다. 만일 가족이 의미 있고 심도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검토하는 용기를 갖고 탐욕과 이기심과 지나친 방종에서 비롯되는 함정들을 피해야만 합니다.

각자 다음을 기억합니다.

- 첫째, 욕구와 필요를 혼동하지 맙시다.
- 둘째, 아이들을 버릇없게 만드는 일을 피합시다.
- 셋째, 검소하게 살고 빛지는 일을 피합시다.
-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관대합시다.

주는 행위는 진실로 신앙의 본질에서 나옵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는 또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울)" (요한복음 3:16) 기념합니다. 이 독생자이신 주님은 세상에 태어나사 세상의 어떠한 물질이라도 소유하실 수 있었지만, 탐욕과 이기심과 지나친 방종의 빛을 조금도 볼 수 없는 검소한 삶의 모범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뜻 깊은 삶의 전형인 주님이 살아 가셨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같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합시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는 살아 계신 예언자들에 의해 인도되고 있으며, 그분의 무덤은 문자 그대로 삼일째 되던 날에 비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가족을 성전에 가도록 준비시킴

캐롤 비 토마스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가족을 성전에 가도록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가까운 친척,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도 가족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청녀 회장단의 부름을 통해 수많은 행복을 경험합니다. 저는 한 달 전에 혼련 모임 때문에 에콰도르 과야킬에 갔었는데 밤이 되어야 그 곳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커튼을 열고 계곡 너머 산타 아나 언덕 위에 아름다운 화강암 건물이 웅장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건물은 분명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꼭대기에 서 있는 모로나이 천사를 보고 나서 비로소 그 지역의 교회 회원들에게 올 영광스러운 축복의 상징인 성전이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글썽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성전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 성전은 성약과 약속의 장소입니다. 성전의 계단 위에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성전 사업, 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 [테저렛 출판사: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632~633쪽] 우리는 가는 곳마다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전은 남미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복돋우고 그 나라의 모습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언자께서 성전 32개를 더 짓겠다고 발표하신 지 겨우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지금 이 지구 역사상 성전 건축의 가장 위대한 시대입니다." (가르침, 629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몽고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제 막내 아들 스펜서가 편지를 보내 왔는데, 자신의 선교부장이 선교사들과 회원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의 의무에 대해 말씀했다고 썼습니다. 스펜서의 편지에는 "콕스 부장님은 질문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첫번째 질문이 '몽고에는 언제 성전이 세워지겠습니까? 있어요. 이 곳 사람들은 복음이 그들의 생활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들은 물론경도 아직 갖지 못했으면서 성전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라고 써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에 대해 열성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 복음의 충만함이 아담에게 계시되었고 ... 각 세대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성전을 소유했습니다." (데이비드 헤이트 장

로, "개인적 성전 경배," 엔사인, 1993년 5월 호, 23쪽)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책임은 죽은 자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교회 정사, 6:313)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모나 가족으로서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우리 가족을 성전에 가도록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가까운 친척,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도 가족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성전에서의 결혼을 통해 그곳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이 비밀스러워서가 아니라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성전에 대해 토론하지 않아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의식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인비 사항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거룩한 성전 소책자 [북크래프트사, 1980년], 2쪽) 그러나 세심한 배려와 상식으로써 가족 모임에서 아이들이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 성전 의상의 신성한 본질입니다. 흰색은 깨끗함의 상징이므로 성전 내에서는 모두가 하얀 옷을 입습니다.

- 성전은 주님의 교실입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성전은 하나님 대한 감미롭고 신성한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 635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성전에 합당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전 합당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대로 생활한다면, 엔다우먼트를 받고 신성한 가먼트를 입어도 평소의 복장이나 생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점을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청녀가 무릎을 덮는 치마를 입는다면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은 뒤에 새옷을 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남이 성전에 가기 위해 미리 준비한다면 교제를 할 때 교회의 도덕 표준을 준수할 것입니다.

- 복음 언어 이해입니다. 엔다우먼트 의식, 인봉, 열쇠가 뜻하는 바는 진정 무엇입니까? 부모가 성전 인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는 것을 엿들은 어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다음 주에는 뭘 봉할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가정의 밤은 정규적인 가르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은 이 밖에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간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입니다. 때때로 저는 아이들의 침대에 함께 누워 영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평안과 고요함 속에서 성신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이 참됨을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족에게 성전에 대해 가르쳤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페리 장로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구세주께서 12세 소년이었을 때 그의 부모는 그를 예루살렘의 유월절 축제에 데리고 갔습니다.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에 남겨졌을 때, 또래의 소년들이 있을 만한 놀이 장소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예수의 부모는 그를 성전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밤마다 예수님에게 이불을 덮어 주면서 이 신성하고 소중한 진리들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소녀였을 때 성전에 대한 기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충실히 참석하셨고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성전이 참으로 훌륭한 곳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성전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이 배어 있는 것을 보고 성전복의 신성한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께서 “우리가 성전에서 갖는 영적인 느낌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눕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집의 목적에 관하여 적절하게 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성실하고 편안하게 가르치도록 합시다. …성전 사진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집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열심인 백성”, 성도의 벗, 1995년 5월호, 6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아프리카의 모든 가정에서 성전 사진이 벽에 단정하고 아름답게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이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가운데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1. 첫째, 성전에 감으로써 균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전에 참석한 후 집에 돌아오면 성신의 영향력이 우리를 세상에서의 낙담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안정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힐러리 대관장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십시오. “만약 교회에서 성전 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이기심이나 말다툼, 다른 사람을 힐뜩이는 일들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더 높은 영성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크게 고양될 것입니다.” (가르침, 622쪽)

2. 둘째, 성전의 영적인 분위기는 세상적

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억제합니다. 자주 참석하면 우리는 최신 유행의 옷을 입을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으며 세상의 오락에 쉽게 빠져 들지도 않습니다.

3. 셋째, 성전은 계시의 장소입니다. 몇 해 전 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서 “대중 연설을 배우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대중 연설을 해야 할 필요가 언제 생겨날까?” 하고 혼자 생각했었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 저는 제가 받은 속삭임에 순종하려는 열의를 마음에 품고자 매우 미숙한 노력을 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 가서 장차 물론 태버네클에서 연설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던 어느 대중 연설가의 테이프를 빌려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코 태버네클에서 연설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존 에이 윌소 장로는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성전 내부나 뜰에서 우리 삶을 궁지에 몰아넣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계시로 받기도 합니다. …성전은 계시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존 에이 윌소 장로, “성전 예배”, 유타 계보 역사 잡지, 12권, 1921년 54월, 63~64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넷째,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성전에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친구들과 토론을 했는데 친구들은 성전에 갈 때마다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냥 차에 올라타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전에 갈 수 없게 하는 어떤 일이 생겨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로간 성전 성전장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분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성전에 가지 말라고 설득하는 말을 사람들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계보 분과”, 처치 뉴스, 1906년 12월 12일, 8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사업은 말일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저항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거룩한 성전”,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엔사인, 1995년 2월호, 36쪽)

5. 다섯째, 엘리야의 영이 지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청소년들과 함께 일

하면서 그들이 성전에 관심을 두는 것을 봅니다.

중앙 아메리카 니카라과에서 49명의 청년들과 그들의 지도자 그룹이 2000명의 성명을 제출하러 과테말라 성전으로 갔습니다. 소녀들은 모두 그곳에 가기 위해 1년 동안 저금해야 했습니다. 이 충실한 청년들은 거의 이틀 동안이나 버스를 타고 세 나라의 국경을 지나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2~3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와드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족에게 돌렸을 때 만 명의 조상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는 것을 봅니다. 때로 매주 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은 성전에서 위안과 화평을 주십니다. 특히 절망의 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는 성전에서 한 35세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남편과 같이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슬픈 기색을 띄며 제게 그녀의 남편이 석 달 전에 뇌종양으로 사망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성전은 그녀의 닻입니다. 성전에서 찾을 수 있는 영은 그녀에게 위안과 화평을 줍니다. 아마도 그녀의 남편도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얼마나 자주 성전에 가야 하는가?" 하고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전에 자주 가야 하는지 결코 말씀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전 근처에 살고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자매들은 1주일일에 한 번씩 성전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던 한 자매는 한 달에 하루 휴가를 내어 성전에서 의식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 자매들은 충실하며, 그들의 삶에 미치는 신권의 힘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전에 참여할 것입니다. 패커 회장님은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가족 역사 사업을 가족 사업으로 만들려 한다고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부들은 먼 거리에 있는 성전에 자주 참여할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바쁜

일정에 맞추어서 틈틈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사진을 모으고, 기억할 만한 사건들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크 부장들에게 전하는 간청", 역원 훈련 모임, 1988년 4월 1일)

저의 어머니는 스크랩북을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제게 유산이 될 만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상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제가 그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패커 회장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의식과 성약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란 말을 할 때마다 힘주어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가족에 대한 의무는 줄어들고 수입은 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회원들은 신성한 성전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스테인크 부장들에게 전하는 간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아들과 딸들에게 성전 성약의 의미를 가르치도록 촉구합니다. 그들에게 "가면트를 입는 것은 신성한 특권이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내적 결심에 대한 외적 표현임" (대관장단 서한, 1996년 11월 5일) 가르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이 성스러운 성전 사업에 더욱 매진하도록 합시다. 자녀들에게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도록 언제나 영적으로 준비한다면 주님 면전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손길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자신이 양육하는 자녀들의 행복과 영적인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주말에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물론이고 예수의 참 아버지, 곧 대속과 구속이 이루어지던 그 시간에 그분의 장자이며 온전하신 아들의 희생을 받아들여시는 것으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신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자 하나님인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받은 제자 요한이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찬양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고 했던 그 말의 의미가 이 부활절 절기만큼 강하게 다가오는 때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도 한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그토록 심한 고

난을 겪으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던 그 짐을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천사를 보내 멈추게 하려는 생각이 온 마음에 가득 하셨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담과 이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자녀들의 죄를 대신 갚고 구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변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며 참아 내셨습니다. 저는 그 쓴 잔에 위축되지 않으셨으며, 또 불완전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너무 자주 목표를 놓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완전하신 아버지와 그분의 완전하신 아들에게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그 첫 부활절 절기에 이루어진 구속(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이 관계는 구세주의 성역을 통해 가장 감미롭고 또한 가장 감동적인 주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는 자기 존재의 절대적 이유, 곧 자신의 모든 목적과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며, 항상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하늘에 소망을 두기 위해 여러 사건을 통해 위기나 낙담의 전환점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본능적으로,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던 때에도 그리스도는 한 순간도 허영에 빠지거나 사욕을 품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주님을 “선한

분”이라 칭하려 하자, 그러한 칭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라고 하며 그 칭송을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그분의 성역 초기에 그분은 겸손히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요한복음 5:30)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권능과 권세로 가르쳐, 듣는 이로 하여금 그 가르침에 놀라게 하고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요한복음 7:16, 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다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요한복음 12:4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친히 듣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그분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한복음 14:7, 9)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단합이 계속되기를 원하셨던 예수께서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범으로 들어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11)

더욱이 십자가에 매달리려 잡혀 가시면서도 그분은 말리고자 하는 사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요한복음 18:11)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셨습니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모진 시련이 끝나 갈 즈음, 그분은 자신의 필멸의 성역 가운데서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의 절정에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요한복음 19:30; 누가복음 23:46)라고 속삭이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고통은 끝나고 귀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순간과 얼마 후에 일어난 부



할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재회가 어떠했을까 궁금하게 여겨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지극히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본래 하나였던 것처럼 다시 하나가 된 이 두 분에게 있어서 만남의 포용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 성스런 동반자 관계가 지금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저 놀라워하며 칭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절 주일에 그러한 관계의 작은 한 부분만이라도 갖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저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아버지들이 이 지상에서 우리의 아들딸들과 보다 감미롭고 보다 강한 관계를 쌓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거룩하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느꼈던 느낌의 작은 일부라도 갖기를 바라는 것이 너무 염치없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보인 그 사랑을 갖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젊은이들은 현세의 부모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키워 나갑니다. ("부모-자녀 관계와 어린이의 신에 대한 관념", *종교의 과학적 고찰* 저널,

1997년 3월 25일, 43쪽)

이를 비롯한 여러 이유에서 최근 몇 달 사이에 읽었던 책 가운데 "아버지가 없는 미국"이라는 책은 경각심을 일깨워 준 책입니다. 저자는 "아버지가 없는 상황"을 "이 세대에서 가장 헤로운 인구 통계학적인 경향"으로 지적하며, 어린이들에게 해를 미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빈곤에서부터 범죄, 청소년기의 임신, 아동 학대, 그리고 가정 폭력 등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자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주된 사회적 문제로는 아버지가 자녀를 포기하고 가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미국: 가장 긴급한 사회 문제*, 데이비드 블랭켄혼 [1995년], 1쪽)

실제로 일부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백은 범죄 행위보다도 더욱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볼 때 보다 파괴적이라 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임무 소홀이라는 죄입니다. 연령과 배경을 막론하고 2천 명의 어린이들에게 아버지에게 가장 고마움을 느끼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자 그들이 한결같이 "아버지가 저하고 시간을 보낼 때요."라고 대답했다

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놀랐습니까? ("보내온 아버지가 되기 위해", *엔사인*, 1983년 1월호, 27쪽)

얼마 전에 지명을 받고 참석했던 대회에서 만난 로렐이라는 젊은 자매가 제게 이러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아빠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이라도 해주고 친밀한 몸짓을 보여 주셨으면 해요. 저는 아빠가 제게 진정한 관심을 갖고, 또 저에게 축복을 주시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서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빠가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말을 해주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단지 알고만 있는 것보다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서운하게 들릴까 봐 걱정이예요. 한번은 아빠가 저에게 공책 한 권을 주시며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빠가'라고 적어 주셨어요. 저는 그 공책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거든요." (개인 서신)

이 청녀가 걱정했듯이 저도 이 말씀이 마치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말로 느껴지거나

아버지들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훌륭하십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굉장하십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기억하고 있는, 누가 만들어 냈는지도 모르는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곤한 얼굴을 한 아빠일 뿐이지만
일상의 경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네.
매일 노력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어떠한 일에도 당당히 맞서며,
집에 돌아온 아빠 목소리에
반가워하는 가족 생각하며
마냥 즐거워하시네.

아빠일 뿐이지만 가진 모든 것을 주시네.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길을 평탄케 하고
할아버지께서 아빠를 위해 하셨던 것들을
단호하고 굳센 용기로 행하시네.
내가 아빠를 위해 적을 수 있는 시라네.
아빠일 뿐이지만 가장 훌륭한 사람을 위해.

대회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신자들도 장원회의 회원들. 왼쪽부터 보이드 케이 매거 회장, 엘 톰 페리 장로, 데이비드 비헤이트 장로,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러셀 엠 넬슨 장로, 댄인 에이치 욱스 장로, 조셉 비 워스린 장로



형제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한계와 부족 때문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신성한 아버지께서 보여 주시고 또 신성한 아들이 설명하여 주신 격려의 가르침 덕분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욱 훌륭하게 부모로서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때로 제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그대로 닮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생생히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께서 면도하시면 저도 옆에서 플라스틱 면도기와 면도 크림을 가지고 따라 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여름에 잔디를 깎으실 때 잔디밭을 오가며 그분의 앞뒤를 따라 걸던 때도 기억합니다.

"이제 저는 제 아들이 제가 이끄는 대로 따르기를 바라면서도 아들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가

슴에 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방식으로 사랑하고, 위안하시는 그 방식대로 위안하고, 보호하시는 그 방식대로 보호하고픈 열망인 '하늘 항수병'을 느낍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느꼈던 모든 두려움의 해결책은 언제나 '아빠는 어떻게 하셨을까?'였습니다. 이제 제게 돌봐야 할 아이가 있으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개인 서신)

대학 시절의 친구 하나가 최근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어린 시절에는 많은 것들이 불확실했지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던 것은 바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었네. 그 사실은 젊은 시절의 나를 지탱해 준 닻이었네. 나는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셨기에 그분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네. 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거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적이 없네.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에 써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라네. 또 아버지가 내게 십일조를 내는 것은 특권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렇게 했다네. 아버지가 그러셨기 때문에 나도 항상 내 실수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 왔네. 비록 아버지도 [한때는] 교회에서 멀어지셨으나, 인생의 말년에는 선교사로도 봉사하고 성전에서 충실하게 일하셨다네. 그 분은 자발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남은 돈은 교회에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네. 그 분은 온 마음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셨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있네." (로버트 에이 리스로부터 온 개인 서신)

확실히 그것은 로드 바이런의 짧은 시, "그들은 나의 얼굴 생김새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의 모습을 찾고 있네"라는 시를 영적으로 적용한 경우였습니다. ("Parisina", 바이런: 시각(1970), 333쪽)

유혹 받기 쉬운 유년기에 니파이가 "부친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던지라" (니파이 일서 2:16)라고 말했을 때 미래의 예언자가 될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예언자 이노스는 인생의 한 전환점에서 물문경에 기록된 위대한 계시 가운데 하나를 받게 한 것은,

“나의 부친께서 …중중 말씀”(이노소서 1:3) 하시어 그가 들었던 내용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마 이세는 그 자신의 많은 죄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직면하여 슬픔에 잠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러 세상에 내려오시리라고, [그의] 부친이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들었던 일을”(엘마서 36:17) 기억했습니다. 그 간단한 기억이, 아무것도 먹혀들지 않는다고 느꼈을 어느 한 순간에, 부친이 아들에게 토로한 개인적인 간증이 그의 아들의 영적인 생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경에 나오는 백성들의 역사를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위대한 축복사 아브라함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의 도를”(창세기 18:19) 지키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선언하신 것처럼 “아버지께는 더욱 큰 일”(교리와 성약 29:48)이 요구될 것이라는 점을 이 부활절 주말에 간증드립니다. 참으로 그러한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양육해야 할 자녀들의 행복과 영적인 안전을 위하여 아버지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땀구멍에서 피가 나오고 입에서 고뇌의 외침이 나오던, 인류의 역사상 가장 곤혹스러운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그분이 늘 찾았던 그분의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마가복음 14:36)라고 외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빠”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인용하는 것조차 신성 모독처럼 느껴질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아들과 그 아들의 유일한 참된 힘의 근원인 아버지, 그 두 분이 함께 구속의 길에 머물며 함께 밤을 견뎌 내셨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 부활절 주말에 부모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새롭게 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머리에 그려 스스로가 강화되어 우리의 자녀들을 껴안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설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이 우리의 날입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현대 과학과 기술의 경이가 우리를 승영에 이르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전은 보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제가 이 연단에서 잠시 말씀하는 동안 영의 영향력이 함께하기를 온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또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와 지혜를 간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 시대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대의] 예언자들과 제사들과 열왕들은 [우리 시대를 바라며] 특별한 기쁨을 가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환희에 찬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룩하고 환희에 찬 기대를 걸고 우리 시대를 노래하고 기뻐하고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일의 영광을 일으키기 위하여 [택하신] 총애 받은 백성들입니다.”(교회 정사, 4:609~610) 1842년에 예언자 요셉이 이 말씀 이후로 인류는 과거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쌓은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확보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기를 맞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2천 년 사이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과학이나 기술, 또는 여행의 경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구세주의 속죄 및 신권의 열쇠와 권능을 동반한 복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독특한 두 사건은 앞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인류에게 초월적인 중요성을 지닌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이러한 경이로운 개입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1901년 1월 1일 당시의 대관장단은 바로 이 건물에서 세계인에게 다음과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세기가 도래했습니다. 방금 막을 내린 지난 100년 간은 이 지구에서 펼쳐져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인류의 중단 없는 행진 속에서 이제 막 흘러간 지난 100년 간의 진보를 나타내는 여러 중요한 사건과 경이로운 발전, 엄청난 개가, 여러모로 유익한 발명과 발견에 관해 간단히 요약만 한다 하더라도 100일 안에 하기는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19세기라고 하면 진보와 개선과 자유와 빛이라는 단어들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이로운 가운데 생활하고 풍요로운 예지의 보고를 함께 공유해 왔다는 점에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제임스 알 클락, 편집,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6권)

100년 전 이 말씀을 했을 당시만 해도 말과 마차는 여전히 중요한 여행 수단이었습니다. 전화와 전기의 시대는 막 도래하려는 순

간이었습시다. 비행기 여행, 전자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동안 세속적인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소중한 지식의 물고를 트셨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기는 그 보고에 급격한 진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 오늘 미래를 맞는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계를 들여다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음 세기를 향해 무정하게 똑딱거리며 돌아가는 시계를 걱정스런 눈으로 지켜봅니다. 시간의 자각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어느 음식점 시계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오가 좀 지나 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주인에게 시계가 안 가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네”라고 답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시계를 보고서 시장기를 느끼며 뭔가를 먹으려고 들어오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제이콥 엠 브라운드, 편집, 브라운드의 기지와 유머 보고 [1964년], 178

쪽)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하는 시간 장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가장 굶주려 있습니까? 전 영적이고 도덕적인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향상, 과학 발명, 의학의 기적들은 민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자산을 적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지도력이 요구됩니다. 문명은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해 왔습니다. 컴퓨터가 매우 편리하고 고된 단순 노동을 줄이는 데 매우 유용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컴퓨터 없이도 행복하게 살았던 니파이인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니파이서서 5:27 참조) 사실 전자공학의 개가가 생각지도 못한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지나치게 빠지다 보면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 심지어는 삶 자체를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이 문제에 매달려 있으며 컴퓨터가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때문에 날짜가 제대로 들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 누군가 말했다듯이, (인생은) 시간

과 더불어 바뀝니다. 청년기 때 시간은 계속 행군을 하고, 중년이 되면 날아가다가 노년에 이르러 시간은 바다나고 맙니다.(이반 에사, 편집, 경구와 인용: 20,000(1995년), 812쪽) 우리는 일상 업무의 대부분을 전자 제품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컴퓨터가 다음 세기에도 작동하도록 재프로그래밍해야 하는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음 세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사회를 파멸로 이끌어 갈 만한 컴퓨터 고장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낙관합니다. 오히려 사회의 전통 가치가 붕괴되는 것이 더욱 염려됩니다.

저는 정직, 온전함, 겸손, 예의, 성적인 순결의 도덕적 컴퓨터가 고장을 일으킬까 봐 더욱 걱정됩니다. 오늘날 진정 청렴 결백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통속적인 문제나 웅변술의 파고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덕적 붕괴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개인 행동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분리시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명예로운 사람이라면 외부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고도 자신이 정한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고결함의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각자 자신의 도덕적 컴퓨터에 채워 넣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신을 공정하게 대하고, 둘째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셋째 수확의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구세주를 섬기는 우리의 예배가 간결함을 유지하여 간결하고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순전하게, 경배는 순수하게 지켜야 합니다. 종교란 의식 행위가 아니라 의의 실천입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2천 년으로의 진입이라는 도전을 과감히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이라 확신합니다. 다음 세기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원 수와 신축성전의 숫적 증가와 영감 받은 조직의 발전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기술에 관한 이미지를 갖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진보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과 모습에 구세주의 형상을(엘마서 5:14 참조)



지녀 보아야 합니다.

획기적인 2천 년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지 3천 년 대를 맞이해 자못 흥분하고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 나사렛 예수는 어떤 지위나 재산을 가지지 못했지만 세상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사시던 동안 남루한 옷 몇 벌 말고는 땅도,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 또한 간결했습니다. “이 집이 평안할찌어다”(누가복음 10:5)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9) 그분은 이와 같은 간결한 원리들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에 대해, 소망과 구원의 교리에 대해,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서의 평화에 이르는 길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영적인 암흑이 제거되고 전인류에게 영생의 밝은 빛과 소망이 주어지는 때인 부활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승천한 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밖의 배우지 못한 사도들과 칠십인들은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강철같이 강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이 아주 낙후된 상태에서, 이 얼마 되지 않던 선교사 무리들은 희망의 새로운 메시지를 갖고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감에 가득 찬 교리를 멀리까지 널리 전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은 제도화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현격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한 소개는 선교사들이 보다 많은 구도자들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작한 영상물은 선교사들이 복음 메시지와 교회의 사명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거룩한 사업이 펼쳐지도록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엔 제반 고속 정보 통신망 덕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밖의 용기 있던 사도들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자들이 발에 평화의 복음을 동여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교회가 계속적인 사명을 수행하는데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제트기 시대가 막을 열던 1950년대 말엽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뉴질랜드 성전을 헌납한 후에 제트기에 오르셨습니다. 그는 로스엔젤레스에 도착한 후 헨리 디 테일러 장로와 몇몇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함께 모이는 다음주 목요일 뉴질랜드에 한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것을 추천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그분은 “이처럼 빠른 비행기가 있으니 총관리 직원들은 세상 어디든 신속히 가서 스테이크를 조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헨리 디 테일러, 연차 대회 보고, 1960년 4월호, 118~119쪽)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밖에 있는 스테이크 수는 수백 개에 이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주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와 전파되는 속도

를 앞당겼습니다.(미가 4:2 참조) 저는 우리 시대에 관한 이사야의 다음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이사야 11:9) 이처럼 놀라운 지식의 범람으로 인해 주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는 우리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누가복음 24:47)

2천 년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경이로운 여러 기술을 익혀야 하는 부담이 더욱 힘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추구하다 보면 전문 학식은 갖추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문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 우리에게 미래의 창을 열어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컴퓨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식과 성약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고, 가정의 밤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첨단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니파이사서 10:6)는 구세주의 가르침 속에 구현



된 인간 행동에 관한 간결하고 깊은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예배는 외형적 상징이라는 한계를 넘어 더욱 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된 연후에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니파이삼서 11:37)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대인 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며, 언행에 있어서 친절과 존경심 같은 덕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구세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못된 일로 너희를 이용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니파이삼서 12:44)

현대 과학과 기술의 경이가 우리를 승영에 이르게 해주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맞아 우리가 직면한 큰 어려움은 보다

영적으로 계몽되는 것입니다. 이 새롭고도 끊임없이 확장되는 지적 자산은 커다란 노력과 배움을 통해서만 습득될 수 있음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전문 지식은 그에 따른 영적인 목적과 의미가 없다면 전적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그분의 목적을 진척시키고 인류의 공영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신다고 확신합니다. 기술을 그러한 목적에 사용하기에 앞서 먼저 것처럼 숭고한 이상을 개인적인 목적과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니파이삼서 12:48) 온전함은 영원한 목표입니다. 이 생을 사는 동안 완전해질 수는 없으나, 그렇게 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은 계명입니다. 우

리는 속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세주의 탄생 이래로 세 번째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그분 이름으로 침례받은 우리 1천만 말일성도들은 그분의 사업을 어떻게 진척시켜 나가야겠습니까? 우리는 핑클리 대관장님과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기타 총관리 역원들이 정하신 방향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활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구세주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양을 먹이는 일은 우리 모두가 계속해야 할 임무입니다.(요한복음 21:15~17 참조)

예언자 요셉의 말대로 지금은 우리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과거의 어느 순간보다도 더 큰 축복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영적인 지식의 바다 속에서 “물이 바다를 덮[고]있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지상에] 가득”(히박국 2:14)함을 기뻐합니다. 지식과 예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감미로운 비처럼”(윌리엄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 4막 1장, 185쪽; 신명기 32:2 참조) 우리 삶을 한껏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신앙으로 정진하면서 모든 선한 은사는 신의 섭리로 주어짐을 인정하는 가운데, 밝은 소망으로 2천 년 너머의 미래까지도 내다보아야 합니다. 지식이 향상되면 책임도 더 많아집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개인의 청지기 직분을 잘 관리하며 신중히 생활하면 주께서 이러한 훌륭한 지식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거룩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실 것입니다.

고든 비 핑클리 대관장님은 우리 시대의 예언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막중한 임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며 열의를 다해 지상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려 애쓰십니다. 우리 각자도 있는 힘을 다해 이 사업이 전진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시편 저자의 말씀대로 “이는 여호와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시편 118:23)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확신과 간증을 갖고 있으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요셉 스미스 기념관에 있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초상화를 보며 감탄하는 대회 방문자들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형 제 자매 여러분, 힝클리 대관장님의 지시를 받아 이제 제가 여러분께 총관리 역원,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제임스 이 파우스트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서, 보이드 케이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로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

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데마 다미아니 장로, 에라나미 테이세이라 장로, 로버트 에스 우드 장로가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한 노고에 감사로 표시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데마 다미아니 장로, 스티븐 비 오브슨 장로, 데이비드 알 스톤 장로, 에이치 브루스 스투기 장로, 리차드 에이치 윈켈 장로, 로버트 에스 우드 장로를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벤자민 드 호요스 장로와 스티븐 에스 스노우 장로, 페드로 호르헤 드 크루스 펜하 장로를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과 본부 보조 조직의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만장 일치로 지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새로 부름받은 분들은 단상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참석자들을 위해 대형 TV 스크린을 설치했다.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테드 이 데이비스
교회 감사 위원회, 위원장

수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교회 감사 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직원, 고용원, 본부의 부서 및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와 교회가 가입하고 있는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일하는 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관장단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과 인력을 입수하고 확보했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교회의 다른 운영 기구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감사부가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 감사 위원회로부터 따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 직원은 공인 회계사들과 전공 분야의 자격을 지닌 다른 감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부는 인정된 전문적인 감사 표준에 따라 교회 운영 기구에 대한 감사 절차를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중무를 관장하는 지역 단위 조직의 현금과 지출에 대한 감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 위원회는 교회 기금의 현금과 지출을 관리하며 교회 자산을 보호하는 데 지침이 되는 재정 정책과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또 우리는 1998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1년간 교회 예산, 회계와 보고 체제 및 감사 체제, 그리고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1998년도 교회 기금에 대한 지출은 성문화되어 있는 정책에 따라 십일조 지출 평의회 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평의회는 계시에 의해 규정된 대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승인된 예산에 대한 집행은 예산 지출 위원회의 지

례에 따라 자체의 회계 및 보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회 감사부나 독립된 회계 회사가 이러한 사업체들을 감사합니다. 브리감영 대학교와 그 외의 고등 교육 기관들은 독립된 회계 회사들에 의해 감사를 받습니다.

재정, 예산, 기타 관리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우리의 검토와 1998년에 작성된 모든 감사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와 이러한 감사에 대한 회신에 의거하여 교회 감사 위원회는 1998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1년간 영수하고 지출한 교회의 모든 기금이, 모든 면에서, 계시와 현재 제정되어 있는 교회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관리 감독을 만나고 있는 십이사도 정원회이념 에이 맥스웰 장로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시하에 예산부를 통해 관리됩니다.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데저렛 트러스트 컴퍼니와 데저렛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 및 계열 회사들을 포함해서 독립된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러한 사업체들은 일반인에게 인정된 관

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교회 감사 위원회
테드 이 데이비스, 위원장
도널드 디 셸먼
프랭크 맥 맥코드

1998년도 통계 보고서

보고자: 에프 마이클 왓슨
대관장단 서기

대 관장단은 교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1998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발전과 현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통계 자료는 본 대회가 있기 전까지 접수된 1998년도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수	2,505
지방부 수	631
선교부 수	331
와드 및 지부 수	25,551

교회 회원

교회 회원 총 수	10,354,241
1998년 동안 증가된 기록상의 8세 자녀 수	76,829
1998년 동안 침례 받은 개종자 ...	299,134

선교사

복음 선교사	57,853
--------------	--------

성전

1998년 동안 헌납된 성전 수	2
(유타 몬티셀로 성전과 영국 프레스턴 성전)	
1998년 말 현재 건축중인 성전들을 포함해서 발표된 성전 수	45

작년 4월 이후 작고한

교회의 저명 인사

달라스 앤 아치볼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 준 덕슨 옥스 자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부인; 페른 가드너 헌터 자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밀튼 알 헌터 장로의 미망인; 노마크리어 하버슨 자매,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로버트 비 하버슨 장로의 부인; 마가렛 롬니 잭슨 주드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보좌를 역임 했음; 레오나드 제임즈 애링튼, 교회 역사 편찬 위원으로 봉사했음; 글렌 이 닐슨, 교회 재정 위원회의 위원으로 봉사했음.

총관리 역관들이 앉은 단상의 좌석 여섯 줄이 보인다. 맨 위에 대관장단과 십이사도가 있다.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하고”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은유가 실질적인 치유력인 이유는 그저 이기심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분해하여 없애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모두는 이기심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이처럼 일상적인 것인데 굳이 걱정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기심이란 다름이 아니라 느린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자멸이기 때문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이렇게 말씀한 것은 당연합니다. “사사로운 이기심은 땅에 묻어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켜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67쪽 참조) 그러므로 이기심은 완화가 아니라 소멸되어야 할 운명입니다.

예를 들어, 공허함을 메울 요량으로 선정적인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밀려드는 이기심으로 인해 몹쓸 인간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욕구를 산술해 보

면, 영에 무엇을 곱하던 값은 영일 뿐입니다. 이기심이 발작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자각, 혹은 배려하는 마음이 그만큼 줄어들어 결국 자신의 세계를 편협하게 만들고 맙니다. 외관상의 세속적인 뽐내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방종하는 개인주의는 실제로는 옹졸한 것으로, 누군가가 먹이를 주거나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고 오히려 자족하며 사는 것을 자축하는 여항 속의 금붕어와도 같습니다.

과거에는 편협한 세계관에 얽매인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일부 이기적인 현대인들에게 그들 역시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줄 코페르니쿠스가 필요합니다.

잘 알려진 이기심의 초기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인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93쪽 참조) 공로를 주장하거나 과장한다. 다른 사람의 과오를 기뻐한다.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성공에 분개한다. 개인적인 화해보다는 만인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사람의 말을 트집잡아 이익을”(니파이 1서 28:8) 얻는다.

이기적인 사람은 초점을 온통 자신에게 맞추므로써 보다 수월하게 거짓 증거하고, 도적질하고, 탐욕을 품는데, 자신의 요구라면 뭐든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정부가, 육으로 난 인간의 욕구에 아합하여 그가 제멋대로 해도 괜찮다고 항상 안심시켜 주기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러한 욕구로 인해 별문 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기심으로 인해 무례하고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칭찬, 또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들 곁을 이기적으로 지나쳐 가며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몰몬서 8:39 참조) 이기심이 심화되어 거친 행동과 통명스런 말씨와 완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이기심의 길과는 대조적으로 끈고 좁은 길에는 난폭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가정에 비이기적인 사랑이 넘친다면 배우자 또는 자녀 학대가 발붙일 틈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비이기심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가장 잘 자라며, 또한 부지런히 교회의 부름을 수행하는 것도 이기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이기적인 사람은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지 케이 체스터튼이 말했듯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자신이 “보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 숨쉬며, 멋진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에서 있다는 것을”(정설 [1959년], 21쪽) 알게 될 것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이기심을 표출하는 방법이 많듯이 이기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많습니다. 은유가 실질적인 치유력인 이유는 그저 이기심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분해하여 없애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 단계로 실제로 나는 누구의 필요 사항을 채우고자 하는가? 마음속으로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기 표출의 순간에 열까지 세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중한 여과 노력은 자기 반성의 은유라는 그물이 우쭐대는 파괴적인 자만심을 여과해 냄에 따라 우리의 헌신을 열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후원하지 않고도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갖도록 은유하게 놓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이 우리의 합당한 생각들을 축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슬프게도 개인의 추한 이기심이 마침내 그 사회의 문화가 되고 맙니다. 이기심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는 결국 질서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왜곡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회로 탈바꿈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모로나에서 9장 참조) 이 지경에 빠진 사회는 주요한 문화적 쇠퇴를 표시하는 냉혹한 누적 계산표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현상이 고대에 일어났는데 실제로 한 백성이 "범법으로 인하여...연약하여진 것"(힐라맨서 4:26)입니다. 행동론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한때 소수의 목소리였던 것이 다수의 목소리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과 어리석은 이기심의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모사이아서 29:26~27 참조) 문화적 쇠퇴는 사회의 이기적인 단일 이해 단체들이 한때 널리 공유되던 보편적인 가치에 냉담해지면서 가속화됩니다. 이기심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거나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 흐름은 견잡을 수 없게 되면서, 사회는 더욱더 주도면밀하게 서서히 이끌려 갑니다.(니파이이서 28:21 참조) 이 흐름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이 흐름을 돌이키는 자신들의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옆에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이츠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탄식했습니다. "가장 고결한 사람들조차 아무런 확신도 없고, 가장 비열한 사람들만이 열정에 들떠 있구나."("재림"에서 인용함, 더블류 비 에이츠)

오늘날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공유했던 전통 가치의 자리에 자신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용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 억지로 끼워 맞춰진 고압적인 획일성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죄악은 한꺼번에 사회를 대물락으로 이끌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울한 진행은 잠깨우는 그 어떠한 덜컹거림이나 빠꺼거림도 없이 은밀하고 주도면밀하게 계속해서 서서히 진행됩니다.(니파이이서 28:21 참조)

그러한 흐름이 이기심의 인접 결과인 한편 그러한 결과의 일부는 궁극적인 것이어서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기심은 실제로 모든 심각한 죄의 뇌관입니다. 이기심은 심계명을 깨부수는 해머로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안식일을 경시하거나 거짓 증거, 살인, 시기심을 유발하는 형태

로 작용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흔히 불의한 욕망을 채우고자 선뜻 성약을 파기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후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른 후 별의 왕국을 차지하게 될 자들은 한때 회개하지 않은 간음한 자, 호색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이라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중에는 신성한 율범이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그릇되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니파이이서 2:13 참조) 따라서 이기적인 사람들은 상항 윤리를 사랑합니다. 자기 관리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천재성과 힘에 의존하여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엘마서 30:17 참조)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인식과 행동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실책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권세를 좇다 타락한 가인은 아벨을 살해한 뒤에 "나를 방해할 자는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모세서 5:33; 모세서 6:15 참조)

그러므로 극도의 이기심에 따른 최악의 결과로 약대는 삼키며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심각한 균형 감각의 상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23:24; 24절에 나오는 각주 요셉 스미스 역 참조) 예를 들면 여러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태 행위는 거리낌없이 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심이 팔죽 한 그릇을 잔칫상으로 보이게 하고 은 30냥이 엄청난 양의 보화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기심이 전개되도록 내버려두면, "장성하여...스스로 나아가 행할 수 있게" 된 고대인의 자녀들에게 나타났던 일, 곧 강박적이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니파이삼서 1:29~30 참조) 문화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변화는 "불과 몇 해" 사이에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며, 참으로 필요한 항도에는 사라지고 그 사리에 온갖 무가치하고 하찮은 오락거리가 난무합니다.(힐라맨서 4:26 참조)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욕으로 난 인간은 욕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로 마음을 진정시키며, 결국에는 "마음이 무디어 [느





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무가치하고 하찮은 일에 몰입합니다.(니파이일서 17:45; 에베소서 4:19 참조) 슬프게도 마약 중독자처럼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중중에 빠진 이기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 그 사실을 주지시키십시오.(사무엘하 11:3~17 참조) 기원전 수세기 전에 예언자 아곱은 부정한 남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는…너희의 착한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자녀들 앞에 못된 본을 보여 신망을 잃었으며”(아곱서 2:35) 사랑이 식어 가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주의하십시오. 고대 소돔에서처럼 무시당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4:12; 에스겔 16:49 참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작게 여길 때 비로소 다른 모든 사람이 작아집니다.(사무엘상 15:17 참조)

이기적인 결정의 물방울은 흐르는 방향을 희미하게 보여 줍니다. 그 다음에는 꼬불꼬불 흐르는 개울을 만나고, 작은 시내를 만나고, 이어서 큰 하천을 만나고, 결국에는 “비참하고 끝없는 저주의 구렁으로”(힐라만서 5:12) 흘러가는 거대한 강에 휩쓸리고 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사회의 참실상을 보여 주는 시대의 표적을 인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태복음 16:3) 또 다른 종류의 기상 에

보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퇴보에 따른 책임은 실제로 지도자와 그 추종자들에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악한 지도자들을 비난하기란 쉬운 일이지만, 그 추종자들의 책임에 대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종자들은 퇴보를 합리화하며 자신들은 그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지도자는 추종자들에게 지시만 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나 추종자의 개인 성품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추종자에게 훨씬 많은 것들이 요구됩니다.

예언자 물몬은 가파른 물락의 골짜기에 빠진 백성들을 아무런 이기심 없이 이끌기로 수락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그의 간구에 신앙이 실려 있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물몬서 3:12 참조) 옛날 애급의 요셉과 같이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는 미래에 닥쳐올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킴으로써 위험으로 치닫는 길에서 그들을 구해 내 기도 합니다.(창세기 41:46~57 참조) 소수 이긴 하지만 링컨과 같이 정치적인 지도자인 동시에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한편 링컨은 경고하기를, 어떻게 야망과 재능을 겸비한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또한 그 같은 사람이 “명성을 얻기를 갈망하고 열망하여 가능하다면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자유민을 노예로 만들어서라도 그 명성을 쟁취할 수만 있다면 마다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존 웨슬리 힐 저, 하나님의 사람: 에이브러햄 링컨(뉴욕: 지 피 푸트넘의 아들들,[1927년], 74쪽에서 인용함)

사심이 없던 조지 워싱턴에 대해 이렇게 적은 글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를 봐도 무소불위의 권력자가운데 본능적으로 추구하던 것이 이웃과 모든 사람들의 복이었기 때문에 매우 온화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권력을 사용했던 사람은 거의 없다.”(제임스 토마스 플렉스너, 워싱턴: 절대 필요한 인물(뉴욕: 플럼, 1984년), xvi쪽)

권력은 워싱턴과 같이 권력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 가장 안전합니다.

모두가 “최고”만을 찾느라고 번잡한 나르시스트적인 사회에서는 어떠한 동료 집단도 지역 사회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절을 포함한 모든 절기에 예수님이 이기적으로 “최고”가 되기를 구하지 않으셨다고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출애굽기 20:3)고 하신 말씀은 당연한 것이며, 자신 숭배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극심한 이기주의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기심의 거칠고 단단한 결과에 부딪혀 마침내 산산이 부서져 슬피 울 날이 올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비이기적인 멜리사 하우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아빠는 몇 달 전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아홉 살이던 멜리사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 기도 시간에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빠를 축복해 주세요. 저희보다 하나님께 더 필요하면 데려가서도 좋아요. 저희는 아빠를 원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크리스티 하우스의 편지, 1998년 2월 25일)

어린 아이라곤 믿기지 않는 참으로 놀라운 영적 순종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참으로 비이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기심 없는 순종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전 축복을 받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 곳은 평화와 고요와 영감의 장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은 위대한 목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아름답고 위안을 주는 주님의 교리가 운데 하나로서 무한한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주는 원리가 바로 영원한 결혼이라 불리는 원리입니다. 이 교리는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서로 깊이 사랑하며 시련과 기쁨과 슬픔과 행복을 통해 함께 성장한 남편과 아내가, 장막 저편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가족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무한한 만족을 주는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의 기쁨을 함께 나눈 부부라면 그러한 축복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은사는 주님께서 세우신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은 성전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적합한 시기에 성전 의식을 받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결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성전 의식을 받고자 한다면 그 최고의 행사를 위해 신중히 준비하십시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과 접견을 하게 됩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들과 이야기하십시오. 그 접견은 통과 시험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한 의식을 받고 주님의 집에서 제공되는 교화적인 성약을 받기에 합당한 성숙도와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개인의 합당성은 성전 축복을 누리는 데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성전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합당한 품성은 주의 가르침에 중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면 가장 잘 형성됩니다. 잠시 저는 영원한 결혼으로 이끄는 구애로서 알려진 그 아름다운 발견의 기간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간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성장과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획할 때는 두 개인, 곧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들의 부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구애 기간 동안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완전히 합당하게 됨으로써 성공적인 부모가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사람의 필요 사항, 소망과 합당한 야망에 민감하십시오.

아름다운 얼굴이나 매력적인 용모보다 영원한 결혼의 기초가 더 중요합니다. 인기나

권위보다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동반자를 구할 때는 행복을 가져오는 데 필수적인 속성을 개발시키는 사람, 즉 주님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명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사려 깊고, 남을 용서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주고, 아름다운 자녀들로 축복 받은 가족을 갖기를 소망하고, 가정 안에서 진리의 원리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언약을 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축복받은 아내의 우선적인 필수 요건은 아내요, 어머니가 되겠다는 소망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딸들에게 뛰어난 아내요, 어머니가 되라고 주신 신성한 자질들, 곧 인내, 친절, 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전문직을 추구하기보다 자녀들을 돌보겠다는 소망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요건을 준비하기 위해 훌륭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축복받은 남편 역시 자신의 신권을 영예롭게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신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영광스런 선교 사업은 그러한 언약의 물증이 됩니다. 생활의 필수품을 제공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며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남자를 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속성들을 완벽하게 가진 자를 추구하면서 이것들을 계속 개발시키고 있는 많은 가능성 있는 후보자들을 무시하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며 찾는다 해도 여러분과 이해 관계가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할 때 가장 잘 개발됩니다.

성전 경험의 여러 국면들은 정규 예배 모임과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므로 여러분은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여러분의 감독님의 권고를 따르십시오. 감독은 여러분이 그 거룩한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성전의 중요한 국면을 토론할,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성전 엔드owment과 인봉 의식은 너무나 영광스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그러한 의식을 받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충



태바네를 스케어의 남쪽 전경

분한 시간이 주어지길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번의 성전 방문으로 그 의식들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 방문에서는 가능하면 엔다우먼트를 받은 가족이나 절친한 동성 친구를 데려가서 안내를 받으십시오. 성전 의식의 성스러운 특성 때문에 같이 가는 사람들을 몇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로 국한하십시오. 환영회나 결혼식의 아침 정찬이나 송별회나 기타 활동들은 성스러운 성전 경험을 흐리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전 의식들에 완전히 익숙한 성전 봉사자들이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성전 방문을 여러분이 예상하는 영광스런 경험이 되게 만드는 데 열중할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는 성전에서 있었던 특정한 성스러운 일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 내에 있을 동안에는 권능을 지닌 분이 여러분의 질문을 도와 대답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여러분은 권능을 지닌 분이 주는 신중히 준비된 특별한 지침들을 받게 되는데, 이 지침들은 성전 밖에서는 논의되지 못하는 문제들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여러분의 첫 경험이 저의 첫 경험처럼 감동적이고 고무적인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중히 준비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합당하십시오. 결혼이란 테두리 내에서만 행해야 하는 애정 행위를 구애 기간 중에 하는 것은 법입니다. 그 같은 행위는 성신의 지시를 거스르는 것이고 마음의 고통과 실망의 기초를 놓는 것이며, 결혼한 후에 갈등이나 모순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적 특성을 미처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혼과 성전 축복의 손실로 이끌게 되는 불신은 종종 순결의 범을 어긴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인봉될 때 새로운 가족 단위가 창조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 줄곧 여러분을 책임져 왔던 부모는 이제 자문 역할로 물러서게 됩니다. 지금 부모들의 조인은 귀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가 함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또한 합당한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은 구세주의 모범을 따라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니신 신권은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 삶의 중심인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섬김을 받기보다 자신을 줌으로써 더욱 보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가장이 가족의 운명을 통제하려 하며 혼자 모든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는 남편의 변덕에 쉽게 복종합니다. 관습이든 아니든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일성도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헝클리 대관장이 전례 없는 속도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도록 주님의 영감을 받아 전세계에 있는 회원들이 의식에 더욱 많이 나아올 수 있게 된 데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전 의식을 받고 성전이 가까이 있는데도 정기적으로 성전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전으로 돌아오길 저의 온 마음을 다하여 권유드립니다. 그곳에 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평화와 고요의 장소이며 영감의 장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은 위대한 목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승영의 의식들을 죽은 조상들에게 제공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성전에 가십시오. 여러분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하십시오.

성전 의식은 평생을 두고 심사 숙고하며 배워야 할 만큼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배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말과 활동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연구하십시오. 그 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과 구세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시각에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것들에 대해 특히 이해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지상 생활의 질을 어떻게 강화시키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조상들을 위해 엔다우먼트는 물론이고 인봉과 다른 의식들을 받도록 하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대리인으로서 의식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관련된 일을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의식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유익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이해를 높여 주고 여러분의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그와 같은 합당한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고질적인 성격이나 습관 때문에 그런 거룩한 경험을 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한 결혼이 언급될 때 고뇌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 가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생활 약 5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두 살짜리 아들 리처드는 선천적인 심장 결함을 고치는 수술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채 6주가 지나기도 전에 딸 안드레아가 태어나면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저의 아버지는 어린 리처드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활동이 저조한 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리처드와 제니가 아이들을 잃은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소. 긍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오." 어머니는 영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여보, 그 애들은 성전에서 인봉 받았어요. 의롭게 산다면 영원에서 죽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과 나는 그런 성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 아들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저의 아버지께서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스테이크 선교사들과 만나기 시작했고 곧 침례 받으셨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아이다호폴스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습니다. 그 뒤 킴벌 대관장께서 제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젊은이의 활력과 힘을 약속하며 인봉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워싱턴 성전에서 어머니와 함께 11년 동안 인봉자로 봉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행하십시오. 성전 결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독신이고 해의 왕국의 결혼을 할 전도가 유망하지 않다면 그것을 위해 생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짐을 기대하십시오. 장막의 이편이나 저편에서 주어질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할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신의 표준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의 의도를 아십니다. 그분의 예언자들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생활할 때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

리는 그것이 장막의 이편이 될지 저편이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는 거룩한 인봉의 권세를 통하여 성전에서 행해진 영원한 결혼으로부터 오는 최상의 기쁨을 압니다. 의로움과 자신을 주겠다는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함께하는 영광스런 삶에서 일시적인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경험에서 흘러나오는 충만함과 평화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그토록 원하는 것이 바로 그 기쁨과 행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늘에 계신 여

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성전으로 오십시오. 성전은 여러분의 삶을 크게 축복하며 장막 저편에 있는 자들이 혼자 힘으로는 받을 수 없는 필수적인 의식을 그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값으로 따질 수 없고 헤아릴 길 없는 고통과 고뇌로 구세주께서 우리의 중재자요, 구속주요, 최후의 심판관이 되실 권리를 획득하셨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을 믿는 신앙과 필수적인 의식과 성약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은 그분의 한량없는 축복을 통하여 비로소 가능해진 영원한 결혼의 축복을 받을 권리를 획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대회 방문자들을 만나고 있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스코트 장로



“작은 일에서”

스티븐 에이 웨스트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는 자비와 사랑과 겸손을 지닌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추종자로서, 신앙과 용기를 지니고, 눈에 띄지 않는 작고 상냥한 행동을 하며 위안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아내와 함께 도시의 빈민 지역에 있는 회원이 35명 정도 되는 한 지부에서 봉사했습니다. 제가 너무도 존경하는 다니엘 쇼여 지부장님만이 그 지부에서 유일하게 3~4년 넘게 교회에 다닌 회원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모임은 큰 동부 도시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동네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가졌습니다. 1968년에 대규모 소요가 일어나 많은 건물들이 불타고 약탈당했는데, 그렇게 훼손되고 파괴된 건물들 중 일부는 25년이 지난 현재로 수리되거나 재건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리에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다세대 주택 앞면에는 공과 방과 사무실로 개조된 여러 방으로 연결된 문으로 통하는 옥외 계단이 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바로

열고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은 성찬 테이블과 연단과 접이식 의자들이 있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실내 계단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저는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는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성찬식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한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누더기를 걸친 노숙자 여인으로, 연신 기침을 해대며 숨을 헐떡거렸고 더러운 손수건에다 코를 풀곤 했습니다. 그녀는 크고 거친 목소리로 “나도 노래하고 싶어요.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라고 하며 맨 앞줄로 걸어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던 한 회원 옆에 앉더니 머리를 그녀의 어깨 위에 기대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원은 곧장 팔로 손님을 감싸 안고 모임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성찬식에서의 연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누가복음 10:30~37 참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여인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인이 기침을 하고 숨을 헐떡이는 가운데 연사는 계속해서 그 비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연사가 말씀을 마치며 관련 성구를 인용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목소리로 이 노숙자 여인은 연사가 시작한 성구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식이 끝난 후에 저는 연사와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방문객을 다정하게 안은 지도 실로 오랜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목격하곤 이 일보다 더 훌륭하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나타내 보여 주는 실례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 비유에 앞서 다음과 같은 구세주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 머리 속에 떠올랐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누가복음 10:27)

그 지부에서의 두 번째 경험은 충실하게 자신의 십일조를 내기 위해 동전 몇 닢이 든 십일조 봉투를 건넌 친절하고 양심적인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는 그 자매가 마른 빵 한 조각이 든 비닐 봉투를 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녀는 그 비닐 봉투를 우리에게 전해 주면서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한다면 기여를 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없으나 성찬 빵을 헌납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으로 그녀의 빵을 쓰면서 그날 이 경험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스치는 성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연보 껌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 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마가복음 12:41~44)

그 지부에서 세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경험은 한 주일학교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때”라는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한 형제가 손을 들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걸어서 돌아오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가슴에 총을 겨누며 가진 돈을 모두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는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그 남자에게 건네주면서,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제게 돈이 더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는 그의 서류 가방을 열어 돈을 꺼내 그 강도에게 건네주면서, “당신은 제게서 이 돈



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므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도는 놀라서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총을 거두어 허리에 차면서, “어디에 사십니까? 이런 거리에 나와 있기엔 당신은 너무도 좋은 사람이니 내가 집에까지 바래다 주겠소. 여기는 안전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형제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할 때 갑자기 경찰차들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한 여인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금품을 강탈하는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강도를 체포해 갔습니다. 피해자였던 이 형제는 후에 그 강도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도록 부탁 받았습니 다. 재판에서 그 형제는 비록 그 강도가 돈을 요구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자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그 강도가 그처럼 돈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면 자신은 그가 그 돈을 갖기를 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후 구세주가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누가복음 6:29)라고 하신 말씀을 들을 때면 언제나 제 마음에는 성지뿐만 아니라 그 동부 도시의 거친 우범 지역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오늘날의 경험을 몇 가지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겹옷이 닳아 크게 찢겨 나가고 모서리가 닳아 판지 안감이 드러난 40년 된 제 물문경을 가리키며 한 회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부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형제님의 물문경과 같습니다. 겉은 낡고 닳았지만 속은 훌륭하고 중요한 생각들로 채워져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저녁에 침례 집회를 했던 라틴 아메리카계의 아홉 살 난 소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소녀에게 예수님이 누구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네” 하고 답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니?”라고 다시 묻자, 손을 머리 위로 들

참된 추종자

로버트 제이 웨튼
칠십인 정원회

어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리키며,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가지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가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 소녀는 단지 네 마디의 말로 간단하고 분명하게 구세주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가지셨어요." 접견이 끝났을 때 소녀는 어머니에게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그날 밤을 예수님의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입니다" (요한복음 17:3)

미대륙에서 구세주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는 복음이요, 너희가 이를 알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면 복을 받아" (니파이삼서 27:21~2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정의 시대에 구세주는 여러 일을 하셨는데 어느 곳에서는 사랑의 손길을, 또 다른 곳에서는 친절한 말씀을, (영으로나 육적으로) 굶주린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권고와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겁에 질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무시 받는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아이들에게 존중과 애정을, 짐을 진 사람에게 자애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작은 일을 통하여 크신 사업을 이루심을 알 수 있느니라." (니파이일서 16:29) "그런 고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작은 일에서 큰일이 생겨나느니라." (교리와 성약 64:33)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대다수의 일상적인 일들은 세상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와 사랑과 겸손을 지닌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추종자로서, 신앙과 용기를 지니고, 눈에 띄지 않는 작고 상냥한 행동을 하며 위안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약 2000년 전에 구세주께서 주신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저의 간증을 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는 우리가 그분의 참된 추종자로서 그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더욱 순수하게, 더욱 온전하게 주셨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 오직 열한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며 이 생애의 마지막 성역의 순간을 가르침의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4~35) 그분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13) 그분은 또한 자신이 신성한 아들임을 재확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또는 그분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신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4:26)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속죄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가신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없이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니파이삼서 27:27) 우리는 선행을 행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영적 복리와 신체적 복리에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의 그것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참된 관심과 측은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로니이는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참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참으로 사랑인 것인즉 사람이 바로 그 사랑을 갖지 아니 할진대 당신의 아버지의 전당에 마련된 처소를 상속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이더서 12:34)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른 사람을 위한 그분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분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목숨을 버려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구세주처럼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들, 즉 시간과 재능과 재산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



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모로나이사서 7:48) 신앙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적인 사랑은 영의 은사로서 개인의 의로움의 원리와 그 근거가 되는 율법에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주어집니다. 신앙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기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나이와 상황에 상관없이 날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택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할 때, 영이 우리를 정제하고 가르쳐, 우리는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니](갈라디아서 5:22)

다른 사람에게 애김없이 베푸는 온정의 봉사는 신성한 사랑으로 자라나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제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저와 같이 되게 하실” (모로나이사서 7:48) 것입니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각자 소속된 자신의 가족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전해야 합니다.” (브리감 영의 설교, 존 에이 윗소 편(1954년), 271쪽) 베냐민 왕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기를(모사이야서 4:15) 가르치”라고 권고했습니다. 킴벌 대관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며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대체로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국에서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벌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킴벌 저 [1982년], 252쪽)

지난 1월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아르메니아 시가 황폐화되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들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퀴토에 있는 지역 회장단에게 전화를 하여 아르메니아에 살던 회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지방부장은 많은 교회 회원들이 집을 잃어 파손되지 않은 예배당 내 군데에 피신해 있으며 음식과 옷가지를 급히 필요로 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상호부조회와 신권 지도자들이 즉각 행동을 취하자 콜롬비아 전역에 있는 회원들로부터 헌물이 매일같이 지정된 예배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곱 살 난 나이드는 칼리 시에 있는 집회소에 부모와 함께 와서 빌라리엘 감독이 회원으로부터 헌물을 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제가 아르메니아에 있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러자 감독은 “나이다야, 너의 부모님들이 이미 도우셨단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이드는 예배당의 다른 쪽으로 가서 포장된 물품을 보고 거기에는 아이들에게 줄 옷가지는 별로 없고 신발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드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 들고 감독에게 와서,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제 알아요. 이 신발을 아르메니아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다른 소녀에게 주세요.”라고 말하고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살며시 가버렸습니다.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성신이 인도하는 대로 맡겨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그리



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이 이와 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모사이사서 3:19)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1829년 늦은 봄에 주님은 요셉 스미스를 통해 조셉 나이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하며 사랑이 가득한 자 아니면 이 사업을 도울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2:8) 오늘날 모든 합당한 젊은이들은 2년 동안 선교 사업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 다. 선교사는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면, 자신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포함 하여 영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선교 사업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봉사 위에 세워진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으며,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신권과 마찬가지로 모성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양육하라는 신성한 부름입니다.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매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은 다른 사람

들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며 베풀어야만 합니다.

부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마태복음 19:16) 주님이 계명을 다시 일러주시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 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마태복음 19:20~21) 이 시대에 그분의 제자로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하고 물어 보아야 합니다. 선행을 행하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 사회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진 것 모두와 [여러분] 스스로를”(모사이사서 2:34) 그분께 기꺼이 드려야만 합니다. 제가 가장 참된 추종자로 알고 있는 분 들은 은퇴의 안락과 기쁨을 보류한 채 그분을 따라 그분의 왕국에서 시간을 다 바쳐 봉사 하는 부부들입니다. 제자의 신분으로 같이 성장하기를 소망한다면 감독님께 선교 사업

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선교 부는 더 많은 부부 선교사를 필요로 하며 운영될 성전 수가 곧 100개가 될 이 시점에 많은 역군이 필요합니다. 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은 왜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몰두하여 자기 자신을 잊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왜 행복합니까? 사랑의 수고가 인류의 구세주의 위대한 대리 사업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고든 비 헝클리의 가르침(1997년), 595쪽)

사랑과 봉사로 제 삶을 축복해 주신 사랑 하는 사람들이 제 곁에 함께 해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시대에 개심한 사람들처럼 그분의 백성이라 불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모사이사서 18:8)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봉사로 많은 사람의 짐을 가볍게 들어준 참된 추종자들을 머리 속에 그려 낼 수 있습니다. 어니스트 리로이 해취는 제가 자라났던 멕시코 북부의 한 지역 사회에 있던 의사였습니다. 그분은 제 선교부장이셨으며 여러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대부분은 “거룩함도 더욱”이라는 찬송가 가사에 걸맞는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국에 적합한 성품도 더욱 주님 지닌 축복 더 주옵소서”(찬송가, 60장) 구세주는 우리가 그분의 참된 제자로서 그분이 사랑을 조건 없이 더욱 순수하게, 더욱 온전하게 주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그분의 사도와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의 복음의 핵심임을 모범으로 나타내 보이시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서로에 대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분들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임을 증거합니다. 이 교회는 이 지상에 세워진 그분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했으며 그들의 사랑과 봉사의 결실입니다. 우리도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가족을 강화함: 우리의 거룩한 의무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열쇠는 주님의 영이 가정에 함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목표는 곧고 좁은 길에서 있는 것입니다



가 족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 자녀, 친인척, 지도자, 교사, 교회 회원으로서 지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가족을 영적으로 강화시키는 일의 중요성은 경전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아담과 어머니인 이브는 자식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아벨의 회생을 받으셨었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보다 사탄을 사랑하여 중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은 가인과 그의 형제들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애통해 했으나, 그 자녀들에게 복음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모세서 5:12, 18, 20, 27; 6:1, 58 참조)

우리는 자녀들이 많은 은사와 재능을 받고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벨과 같은 이는 출생 때 신앙의 은사를 받습니다. 다른 사

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힘겨워 합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식들이 방향과 탐구 때문에 신앙을 잃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엘마 이세는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하며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려”(엘마서 36:17) 오시리라고 부친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부친의 말씀으로 개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르침과 간증을 기억할 것입니다.

힐라멘의 군대에 속한 2천 명의 젊은 용사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의로운 모친이 복음 원리를 강력하게 가르쳐 주었음을 증거했습니다.(엘마서 56:47~48 참조)

이노스는 영적으로 매우 고양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친께서 영생…에 관하여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깊이 스며들음을 느꼈고.”(이노서 1:3)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한…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25, 28)

자녀들에게 말씀과 모범으로 복음을 가르칠 때 우리 가정은 영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가족을 영적으로 강화시키는 신성한 의무에 관한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말씀도 역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1995년에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통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고 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6년 6월호, 10~11쪽)

금년 2월 대관장단은 모든 부모에게 전하는 서한을 통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복음의 원리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기초가 되는 곳으로서, 그 어떠한 곳도 가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완수하는 데 가정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대관장단은 2월의 서한에서 자녀들을 복음 원리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할 때 부모가 가족을 부패한 요소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가르치며 나아가 부모와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교육 및 건전한 가족 활동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요구 사항이나 활동이 아무리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이 부모와 가족만이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임무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대관장단 서한, 1999년 2월 11일자)

주님과 그분의 교리의 도움을 받으면 한 가정이 당면하는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필요 사항이 무엇이든 예언자들의 권고를 따르면 우리는 가족들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을 강화시키는 열쇠는 우리 가정에 주님의 영이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목표는 좁은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가족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자신의 가족에서 강화시켜야 할 부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가족과 그 가족들의 각 구성원이 모두 독특한 개체임을 알기 때문에 격려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 여러분의 가정을 가족 개개인이 사랑

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만드십시오. 자녀들은 저마다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갖고 있으며, 각자 특별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잠언 15:1)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희 부부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 받을 때, 해롤드 비리 장로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어 음성을 높이면 주님의 영이 가정을 떠날 것

입니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자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잠그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탕자의 경우처럼, 우리 자녀들도 본래대로 되돌아오면 우리의 사랑과 권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활동이나 대화의 주제를 자녀들이 선택하게 하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른 장애물들은 배제시키십시오.

• 자녀가 개인 기도, 개인 경전 공부, 특정한 필요 사항을 위한 금식과 같은 개인적인 신앙의 행동을 할 때에는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영적 발전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나 말씨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 자녀와 함께 매일 기도하십시오.

• 자녀와 함께 경전을 읽으십시오. 부모님이 경전을 읽고 우리 형제는 바닥에 앉아서 들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때때로 부모님은 "이 성구의 뜻이 뭐지?", "너희는 이 구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묻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대답하면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말씀이나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교회 잡지의 기타 영적인 기사를 읽으십시오.

•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책에 나오는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우리는 가정을 훌륭한 음악의 선율로 채울 수 있습니다.

• 매주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너무 위축되어서 자녀에게 가르치거나 간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평생 죄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느낌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간증을 전해야 합니다.

• 가족 평의회를 열어 가족의 계획과 관심 사항을 토론하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가족 평의회 방법은 1대 1로 대화를 갖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배우십시오.

• 선교사들을 가정에 초대하여 활동이 저조하거나 비회원인 친구를 가르치게 하십시오.



•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 가능하면 함께 식사하면서 뜻 깊은 식사 시간 토론을 하십시오.

• 가족 단위로 함께 일하십시오. 혼자 하는 것이 빠르고 손쉽더라도 가족이 함께 일하십시오. 일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십시오. 저는 매주 토요일에 아버지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 자녀들이 훌륭한 우정을 맺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고 자녀의 친구들이 가정에서 올 때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친구의 부모들을 알고 지내십시오.

• 시간과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범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자립과 장애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 조상과 가족의 역사에 대해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 가족 전통을 세우십시오. 자녀들의 필요 사항과 재능 및 능력을 고려하여 뜻깊은 가족 휴가를 계획하고 실행하십시오. 가족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재능을 키우며 자기 존중심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말씀과 모범으로 도덕적 가치관과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 제가 침례 받고 확인을 받은 후에 어머니는 저를 한구석으로 불러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평안과 위안과 행복한 느낌을 그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때 가진 느낌이 바로 성신의 은사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계속해서 그러한 은사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언제나 간직해 왔던 가르침의 순간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침례를 받고 확인을 통해 성신의 은사를 받고, 성찬을 취하고, 신권을 존중하며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은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성전 결혼을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 만일 배우자나 자녀들과 성전에서 인

봉 의식을 받지 않았다면, 가족 단위로 성전 축복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또한 가족 전체의 성전 목표를 세우십시오.

• 형제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신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가족의 삶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를 통해 가정을 헌납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 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가정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자녀들의 교사, 코치, 상담자, 교문,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사와 자녀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 말하십시오.

• 자녀들이 여가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시오. 그들이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비디오를 선택할 때 영향력을 행사하십시오. 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시오. 그들이 건전한 오락의 중요성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 가치 있는 학교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십시오.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아십시오. 그들의 숙제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교육의 중요성뿐 아니라 직업과 자립을 위한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 청년들은 18세 생일이 되면 상호부조회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이 변화를 꺼리는 분이 계시지도 모릅니다. 상호부조회가 맞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많습니다. 상호부조회는 평생 동안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 청년 여러분은 아론 신권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론 신권은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예비 신권입니다.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되면 장로 정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십시오. 형제에, 정원회 교육,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통해 평생 자신과 가족이 축복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든 강화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모범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 신앙을 갖고 행동하되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10대 자녀들이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가족의 가치관을 시험할 때, 부모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에 대한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더욱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할 때이며,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가르침을 강화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도록 허용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치관을 강요할 때보다 내부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자녀가 가족의 가치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고 수용하는 주님의 방법이 위압하는 사탄의 방법보다 낫습니다. 특히 10대 자녀를 키울 때 더욱 그렇습니다.

•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을 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최적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사람의 손을 이끌고 자비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주 작은 친절과 사랑을 보였을 때라도 우리는 힘이 솟구침을 느끼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감정이 격해지고 낙담하게 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76년), 240쪽)

•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의 길을 벗어난 자녀가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울슨 에프 휘트니는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일부 양들이 헤매고 있을지라도 목자의 눈길은 항상 그 양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 양들은 조만간 목자의 구원의 손길이 자신들에게 내밀어져 자신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넣으려 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현세이든 내세에서든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을 치르게 되며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탕자의 경우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준다면 그 고통도 헛된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방종과 불순종에 빠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신앙으



대회 동안에 참석하고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윌리엄 암 브레드포드 장로와 엘리오넬 켄드릭 장로

로 끝까지 붙들고 희망을 갖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울슨 에프 휘트니, 대회 보고, 1929년 4월, 110쪽)

• 여러분이 독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가족에 관한 권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현세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성인 회원들도 종종 가정에 특별한 힘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의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에게까지 사랑과 지원과 수용의 큰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인 친척들 가운데는 부모와 같은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부모, 숙부와 숙모, 형제 자매, 질녀와 조카, 사촌, 그 외의 친인척들이 그 가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범과 간증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친척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때때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대신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은 어머니와 오랜 시간 동안 허심 탄화하게 이야기한 끝

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아빤, 엄마에게 말씀드리는 게 겁나요. 하지만 세리 이모에겐 더 겁나요. 이모를 실망시켜 드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배우고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면 당연히 범사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서 가족 평의회를 갖는 동안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가족을 잘 모르기 때문일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1833년에 요셉 스미스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네 집에 질서를 세우라.”(교리와 성약 93:43),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93:40), 또한 “(우리) 가정에 질서를 세워 좀더 근면하고 가정에 마음을 쓰게 하며 항상 기도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 처소에서 옮기우리라.”(교리와 성약 93:50)라고 꾸짖으며 주신 훈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우

리 시대의 예언자들도 우리 가정에 질서를 세우도록 부모들에게 이와 비슷한 훈계와 경고를 주어 왔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반대에 대처하도록 영감과 사랑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련을 통해 주님과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가정에 질서를 세우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 가족이 강화되며, 우리가 서로를 들어올리고 강화시키고 사랑하고 보살피 줄 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화됩니다. “당신이 나를 들어올리면 내가 당신을 들어올려 주고 그러면 우리는 함께 올라가게 될 것이다.”(퀘이커 잠언)

가족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님의 영을 가까이 우리 가정에 맞아들여서 항상 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각자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곧고 좁은 길에”(니파이 이서 31:18)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목격자: 마틴 해리스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교회에 기여한 마틴 해리스는 영예를 받아 마땅하며 그가 이룬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몰몬경이 출판되도록 자금을 조달해 준 것입니다.



증인의 법

증인과 증언하는 행위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신회에서 성신의 역할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니파이이서 31:18)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하셨고(마태복음 3:17, 17:5; 요한복음 5:31~39 참조)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요한복음 17장 참조) 주님은 종들에게 그를 증거하라고 명하셨고(이사야 43:10; 모세서 18:9; 교리와 성약 84:62 참조)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왔습니다.(사도행전 10:43; 요한계시록 19:10 참조)

경전은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 하리라”(고린도후서 12:1; 교리와 성약 6:28; 신명기 19:15 참조)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의식인 침례식과 결혼식, 그 밖의 성전 의식들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교리와 성약 127:6; 128:3 참조)

성경은 주님의 강림에 대한 예언으로, 주님의 성역에 대한 기록으로, 세상에 주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의 간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몰몬경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야의 성역 이전과 그 기간, 그리고 그 후의 일을 증거합니다.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부제는 적합한 것입니다.

몰몬경의 목격자

몰몬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간증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의 생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주님은 세상이 예언자의 간증 외에도 “나의 종 세 사람의 간증을 더하리니, 저들은 내가 불러 성임한 자요, 이러한 것들을 보여 줄 자”(교리와 성약 5:11; 또한 이더서 5:2~4; 니파이이서 27:12~13 참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들이 참된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리니, 내가

하늘에서 이를 선포할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5:12)

또한 여덟 목격자가 있었으나 그들의 간증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몬경의 목격자로 택함 받은 세 사람은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와 마틴 해리스였습니다. 그들이 쓴 “세 목격자의 증언”은 1830년부터 교회에서 발행해 왔던 1억 부 가량의 몰몬경에 실려 왔습니다. 이 증인들은 자신들이 “금판과 아울러 그 위에 새겨진 기사를 보았음”을 엄숙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록이 “하나님의 은사로 인하여 번역되었음을 아는 것은 이를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금판을 갖고 하강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신 고로 우리가 금판과 아울러 그 위에 새겨진 기사를 보게 되었음을 엄숙히 공포하노라. 또한 우리가 이를 보고 참된 것임을 알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 의한 것이요...

“더우기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명하시 이를 증거하여 증언하라 하신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여 이를 증언하노라.”(“세 목격자의 증언”, 몰몬경)

초자연적인 존재의 실존 가능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범상치 않은 간증을 부인할 수도 있으나, 기적적인 경험을 믿는 마음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목격자 중 두 사람은 동시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직후에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엄숙하게 기록한 이 증언에는 커다란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수많은 종교인들에 의해 기적이 주장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속세에서는 한 사람의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무거운 형벌과 심판을 내리기에 충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증언을 검토하는 일에 숙련된 사람들은 대체로 사건을 목격한 증인의 기회와 그 주

제에 대한 증인의 편견을 고려합니다. 서로 다른 증인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증언을 할 경우, 회의론자들은 증인들이 공모한 증거를 찾거나 반대 진술을 할 다른 사람들을 찾습니다.

가능한 모든 반대에 비춰 볼 때, 물문경의 세 목격자의 증언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 증언이 거짓이었다면 그것을 부인하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세부 사항에 대해 얼버무릴 수도 있는 기회와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관련된 불화와 시기심으로 인해 이 세 증인들은 각기 그들의 증언이 공포된 지 8년쯤 지났을 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파문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공모한 만한 아무런 공통 관심사도 없이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져 갔습니다. 파문된 후 12년부터 5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어떠한 증인도 출판된 증언에서 벗어난 다른 말을 하거나 그 진실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증언은 다른 증인파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도 있으나, 훌륭한 인품을 지닌 이 세 사람이 심하게 조롱을 받고 다른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생을 마칠 때까지 한결같이 증언을 지켜 나간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물문경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한 정직한 사람들의 엄숙한 선언 그 자체보다 더 훌륭한 설명은 없을 것입니다.

마틴 해리스

마틴 해리스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 저는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이 어떻게 그를 기억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슬프게 여겨 왔습니다. 세인들은 전적으로 그를 물문경의 원고의 처음 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그것을 분실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는 좋은 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문경이 발간되었을 때 마틴 해리스의 나이는 47세 가량이었는데, 요셉 스미스와



다른 두 증인보다 나이가 20세나 더 많았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명망 높은 뉴욕 주, 팔 마이라의 주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편인 240에이커가 넘는 농장의 주인이었습니다. 마틴 해리스는 1812년의 전쟁 때 두 차례나 전투에 참여했던 퇴역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에게 지역 사회의 여러 책임을 맡기고 민선 관직을 위임했습니다. 그는 근면함과 고결함으로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는 농부요, 사업적인 수완이 빈틈없고, 검소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거래에서 엄격하고 정직한 사람”(몰몬경 증인 탐구, 96~97, 98쪽에서 인용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부유하고 강직한 중년 신사는 무일푼의 젊은 요셉 스미스와 친구가 되어, 요셉에게 50 달러를 주어 팔마이라에서 진 빚을 갚고 약 150마일쯤 떨어진 북동부 펜실베이니아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1828년 4월에 요셉 스미스는 그 곳에서 처음으로 몰몬경 번역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 116쪽에 이를 때까지 요셉이 구술하고 마틴 해리스가 받아 적기를 계속했습니다.

가족에게 이 원고를 보여 주고 싶다는 마틴의 끈질긴 요구에 지친 요셉은 그것을 팔마이라로 가져가게 했는데, 그만 거기서 마틴은 그 원고를 도둑맞아 잃어 버렸고 아마도 불태워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주님은 마틴과 요셉을 꾸짖으셨습니다. 요셉은 한동안 번역의 은사가 보류되었고, 마틴은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맺은 가장 거룩한 약속을 깨뜨리”(교리와 성약 3:13)는 “악인”이라는 꾸짖음을 받았습니다.(교리와 성약 10편 참조) 다행히도 요셉과 마틴은 후에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며 번역 작업은 다른 서기와 함께 재개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훌륭한 성역을 존중하면서도, 그 후 계속된 마틴의 충실함을 그늘 속에 묻어 두고 있는데, 이 중요한 사람을 그 불명예의 그늘에서 구해 내야겠습니다.

저는 원고를 분실한 참담한 사건이 있었

던 이후 그의 생애 나타난 몇가지 높이 평가할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틴이 꾸지람을 받은 지 9개월쯤 지났을 때, 예언자 요셉은 금판을 증거하는 세 목격자가 있어야 하는데 마틴이 스스로 겸손하게 된다면 그것을 보는 특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교리와 성약 5:11,15, 24 참조) 몇 개월 후에 마틴 해리스는 세 목격자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어 금판을 실제로 목격했고 앞에서 기술한 증언을 했습니다.

교회에 기여한 마틴 해리스는 영예를 받아 마땅하며 그가 이룬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몰몬경이 출판되도록 자금을 조달해 준 것입니다. 1829년 8월 그는 자신의 집과 농장을 에그버트 비 그랜덴에게 저당 잡히고 인쇄 계약에 드는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7개월 후에 몰몬경 초판 5천 부가 완성되었습니다. 후에 저당 어음의 기한이 다 되자 집과 농장의 일부가 3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마틴 해리스는 주님의 다음과 같은 계시에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네 자신의 재산을 탐하지 말고 몰몬경을 인쇄하는 데 아낌없이 내어 놓으라...”

“인쇄업자에게 진 빚을 청산하여 속박에서 벗어나라.”(교리와 성약 19: 26, 35)

다른 기록들과 계시들을 통해서도 마틴 해리스가 회복된 교회의 활동에 깊이 관여했으며 하나님 편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830년 4월 6일 교회의 조직에 참여했으며 바로 그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1년 뒤에 그는 요셉 스미스, 시드니 리그돈 그리고 에드워드 패트리지와 함께 미주리로 여행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교리와 성약 52:24 참조) 그 해 미주리에서 그는 “교회의 감독에게 자기의 돈을” 바쳐 “교회에 보여 주는 하나의 모범”(교리와 성약 58:35)이 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께 이름을 불러서 자신의 재산을 시온에 헌납하는 첫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달 후 그는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시드니 리그돈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시와 계명의 관리인”(교리와 성약 70:3, 또한 70:1 참조)으로 임명되어, 후에 교리

와 성약이 된 책을 발행하고 유포시키는 일을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1832년에 저의 고조부이자 마틴 해리스의 형인 이머는 오하이오에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교리와 성약 75:30 참조) 이머는 펜실베이니아 북동부의 전에 살던 집 부근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대체로 이머의 동반자는 동생인 마틴이었으며, 그는 복음 전도의 열망에 불타 며칠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해리스가의 형제들이 약 100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당시 침례 받은 사람들 중에는 옥스라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의 고조부가 계셨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저의 가운데 이름과 성은 1832년과 1833년에 사스캐하나 군에서의,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만난 할아버지들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1834년 2월 선교 사업을 마치고 커틀랜드로 돌아온 마틴 해리스는 계시에 의하여 교회의 최초의 고등 평의회에서 봉사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02:3 참조) 3개월도 안 되어 그는 시온의 진영 사람들과 함께 커틀랜드를 떠나 미주리에서 억압 받은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 900마일을 행진해 갔습니다.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는 1835년 2월에 있었던 십이사도 정원회의 부름이었습니다. 마틴 해리스를 포함한 세 명의 목격자는 “열들을 찾아”(교리와 성약 18:37) 그들을 선택하고, 예언자와 그의 보좌들에 의해 허락된 권능으로 그들을 성임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비 에이치 로버츠, *교회사 요해*, 1:372~375) [그때 이러한 성임은 대관장단의 안수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세 목격자는 모두 다 큰 영향력과 권위의 지위에서 떨어졌습니다. 1837년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는 경제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심각한 갈등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마틴 해리스는 후에 “요셉 스미스를 신뢰하는 마음을 잃고”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몰몬경 증인 탐구, 110쪽에서 인용함)고 말했습니다. 1837년 9월 그는 고등 평

의원에서 해임되었으며 3개월 후에 파문되었습니다.

1836년 원고 분실에 관여된 마틴의 아내 루시가 팔마이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후에, 마틴과 그의 가족은 커틀랜드에 정착했고, 마틴은 브리감 영의 조카인 캐롤린 영과 결혼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미주리로, 나부로, 서부로 이주했지만 마틴 해리스는 커틀랜드에 남았습니다. 그 곳에서 그는 1842년에 방만한 선교사들에게 재침례를 받았습니다. 1856년 캐롤린과 그들의 네 자녀는 유타에 이르는 긴 여정에 올랐으나, 당시 73세였던 마틴은 커틀랜드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1860년 그는 국세 조사원에게 자신이 "물론 목사"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회복된 복음에 계속해서 충직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후에 그는 방문자에게 "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교회가 나를 떠났지요." (윌리엄 에이치 호머 이세, "마틴 해리스의 이야기", 산 위에서 선포함,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5년 7월호, 505쪽)라고 말했는데, 브리감 영이 교회를 서부로 이끌어 가고 연로한 마틴은 커틀랜드에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마틴 해리스는 커틀랜드에 남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버려진 커틀랜드 성전을 스스로 관리하고 안내하는 일도 맡아 했습니다. 방문자들은 그가 유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소원한 마음을 표현하는 한편 물문경에 공포된 증언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열렬히 간증했다고 말했습니다.

1870년 유타에 있는 가족과 결합하기를 바라는 마틴의 소망이 마침내 받아들여져 브리감 영 대관장으로부터 따뜻한 환영의 초청장과 여행 티켓을 받고, 칠십인 회장 중 한 분으로부터 공식적인 에스코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87세의 노인을 인터뷰한 유타지는 그에 대해 "연령에 비해 놀랄 만큼 정력적이며... 기억력이 너무나 뛰어나다."고 썼습니다. (테저렛 뉴스, 1870년 8월 31일, 밀레니얼 스타, 86쪽에서 인용) 그는 당시의 관례대로 다시 침례를 받고, 이 태버나클



교회 행정 건물의 북쪽 광장에 있는 요셉 스미스와 엠마 스미스의 동상

에서 회중에게 두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한 말씀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으나, 3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적은 기록에 의하면 그가 말한 말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은 마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지식의 문제입니다. 나는 금판과 거기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천사를 보았고, 천사는 그러한 것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물문경 증인 탐구, 116쪽에서 인용함)

마틴 해리스는 생을 마치면서 물문경에 대한 자신의 증언을 이렇게 되풀이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말한 것이 참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히 그 사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실을 증거하라는 음성을 들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같은 책, 118쪽)

마틴 해리스는 1875년 92세의 나이로 유타 주 클락스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생애는 매년 여름 유타 주, 클락스톤에서 공연되는 야외극 "마틴 해리스: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 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1) 증인은 중요하며 물문경의 세 목격자의 증언은 인상적이며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2) 행복과 영적인 진보는 교회의 지도자를 따르는데 있습니다. (3)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 사랑 받는 위치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는 따스하고 사랑이 가득합니다. "돌아와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성도들과 벗하는 달콤하고 흠족케 하는 열매를 다시 취하라." (돌아오라는 초대 말씀, 처치 뉴스, 1985년 12월 22일, 3쪽)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며,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여성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상태만이 아니라 장래의 우리도 사랑해 주심같이
이들 자매님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온 많은 청년들을 보니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자 이 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없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테지만, 이 자리에 어머니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아들과 사위와 손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집 부엌에 모여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집에 돌아 가면 맛있게 먹을 도넛을 잔뜩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자매들과 딸들은 우리

가 도넛을 먹으면서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열심히 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권 소유자로서 배우고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훌륭한 가족의 전통입니다. (교리와 성약 23:3 참조)

우리는 합당하고 훌륭한 자매님들, 특히 우리의 어머니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성스러운 의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같은 과 친구가 우리 말일성도 친구들에게 출혈이 심한 그의 어머니를 위해 수혈을 좀 해달라고 다급하게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혈액형과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기증 대상자 중 한 친구가 성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감염된 피는 바로 그 친구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어머니는 살아나셨지만, 그 친구가 슬퍼하던 모습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부도덕함으로 어머니께 절실하게 필요하던 도움을 드리지 못한 죄책감을 갖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더 큰 슬픔을 안겨 드린 것입니다. 저는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어머니를 욕되게 하고, 우리가 어머니를 욕되게 하면 하

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많은 경전 구절, 참조, 출애굽기 20:12; 신명기 5:16; 마태복음 15:4, 19:19; 마가복음 7:10, 10:19; 누가복음 18:20; 에베소서 6:2; 니파이일서 17:55; 모사이아서 13:20; 요셉 스미스역 마태복음 19:19; 경전: 영감역; 요셉 스미스역 마가복음 7:12, 성경 부록)

모성애를 존중함

의학 박사로서 전문 직종에 종사해 오면서, 저는 때때로 왜 그처럼 힘든 일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생에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일은 어머니의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될 수 없었으므로 환자를 돌보는 것이 그 일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돌보시듯 저도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자 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대관장단이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제게 오랫동안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성애는 신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봉사입니다. 그 거룩한 부름과 봉사를 존중하는 여성은 천사에 버금가게 됩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01쪽)

어머니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필수적인 존재이므로, 가족을 파멸시키고 여성의 가치를 손상시키려는 사탄은 그들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려 듭니다.

청남 여러분은 훌륭한 여성, 특히 여러분의 어머니와 몇 년 후에 맞이할 훌륭한 아내의 영향력 없이는 여러분의 훌륭한 잠재 능력을 성취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가 지지만 내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머니의 소원과 희망, 헌트를 여러분이 존중해야 할 방향 제시로 삼아야 합니다. 감사드리고 사랑을 표하십시오. 아버지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며 애쓰시는 경우, 두

배는 더 효도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은 전생애에 특히 선교사로 봉사할 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래 전에 프랭크 크로프트 장로가 알리바마 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던 중에, 그는 사악한 갱들에게 강제로 유괴당해 폭행을 당하고 묶였습니다. 크로프트 장로는 나무에 매달리기 전에 외투와 셔츠를 벗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옷을 벗는데 그가 최근에 어머니에게서 받은 편지가 우연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비열한 갱단의 두목이 그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크로프트 장로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폭도는 크로프트 장로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구세주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거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 전에 있던 예언자들을 똑같이 핍박하였나니 이 모든 것을 다 견디어 내면 하

늘에서 상이 있느니라’ 구세주께서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러한 불멸의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거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들아, 너를 해치는 자들은 저들이 하는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그들은 알 때가 올 것이고, 그들의 행위를 뉘우치며 그들도 네가 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일로 너를 영예롭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 아들아, 끝까지 참고 너를 학대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 또한 내 아들아, 그날과 그 밤에 어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거라.”

크로프트 장로는 증오에 찬 그 폭도가 편지를 읽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한 두 줄 읽다가는 앉아서 생각해 보고는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그의 포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훌륭하구나. 내게도 한때 그런 어머니가 있었지.” 그러고는 폭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물론 친구의 어머니가 쓴 편지를 읽고 나니 더 하

고픈 마음이 달아났네. 그를 풀어 주면 안되겠는가?” 크로프트 장로는 상처 하나 없이 풀려났습니다. (아더 엠 리처드슨, 존 모간의 삶과 성역 (1965년), 267~268쪽)

우리는 훌륭한 선교사들의 충실한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자녀들에 대해 품은 사랑은 숭고합니다.

자매들을 존중함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자매들을 존중하라는 성스런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롱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 짚은 알 만큼 충분히 쾰고 지혜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계 가족의 자매들만이 아니라 모든 훌륭한 자매들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딸인 그들은 거룩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영생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계획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고귀한 목적을 인식함으로써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포르노에 대하여 경고합니



다. 그것은 여성을 비하시키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으며 파괴적이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상한 음식이나 음료를 마심으로써 생기는 해독은 깨끗이 씻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르노의 독을 토해 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입력되고 나면 머리 속에 깊이 박혀 여러분 마음에 수시로 음란한 장면들을 떠올리며, 여러분의 생활에서 건전한 것들을 몰아내고 말 것입니다. 전염병을 피하듯 그것을 피하십시오.

아내를 존중함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장래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를 잘 선택하십시오. 성전 결혼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경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해의 영광에는 세 하늘 끝 세 가지 등급이 있느니라.

“사람이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는 이 신권의 반차(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서약을 말함)에 참여해야 하느니라.

“만일 참여하지 못하면 이를 얻을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31:1~3)

주님의 집에서의 가장 높은 의식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등하게 받는 것입니다.

둘이 커보건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사랑하는 아내 덴첼과 제가 거룩한 성전에서 결혼했던 때였습니다. 아내가 없다면 저는 신권의 가장 높고 가장 영속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우리의 훌륭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될 수도, 귀한 우리 손자들에게 할아버지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는 자녀들의 어머니인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심과 그들이 받아야 할 칭찬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되살리고, 애정이 가득한 결혼 생활이 되도록 배려하고 친절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행위로 확신과 신뢰를 키우십시오. 언행을 바르게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인생에서 일이나 오락이나 취



대회 모임을 마칠 때 회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고든 비킹클리 대관장

미, 그 어떤 것도 아내보다 우위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적인 결혼 생활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참된 동반자가 되어 서로를 칭찬하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사랑으로 가족을 관리함

가족은 사회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 조직이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가족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입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6년 1

월호, 101쪽)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바른 원리를 배우고, 영생을 위해 자녀들을 준비시키려고 가족을 제정하셨습니다.(가족 지침서 [소책자, 1992년], iv)

부모는 자녀들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68:25~28 참조) 교회는 부모의 책임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상적인 말일성도 가정이란 신권을 지닌 합당한 남자가 관리하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축복사의 권능은 모든 율법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존중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그 결합은 합당한 권능으로 인봉된다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

며, 이러한 권능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은 사랑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리기를 요구하십니다.(교리와 성약 121:41~45)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은 설거지를 하고, 우는 아기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요일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교회에 갈 준비를 하도록 거들어 주고, 여러분의 아내는 차에 앉아서 빨리 나오라고 재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 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바치셨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에베소서 5:25 참조) 그러한 사랑을 지닐 때, 형제들인 우리는 더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고 사랑과 영성이 가득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01쪽 참조) 우리의 책임은 가족 기도와 경전 연구와 가정의 밤을 충실히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구원과 승영에 필요한 의식을 받고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하고 위안을 주며 방향을 제시하는 신권의 축복을 베푸는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정은 위대한 사랑의 실험실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생화학 요소들이 협동의 도가니 속에 용해되어 애정 어린 관심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낳게 됩니다.(모사이아서 4:14~15; 교리와 성약 68:25~31 참조)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특별한 자매님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자매들에게 사랑을 표하십시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에도 그들이 보여 주는 참을성을 칭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현재 상태만이 아니라 장래의 우리도 사랑해 주시며 같이 이들 자매님들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저의 어머니와 많은 자매, 딸, 손녀 그리고 저의 특별한 애인이요, 동반자이자 친구인 아내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유덕한 자매님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레이 에이치 우드 장로
철심인 정원희

신권을 소유하는 일에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냉담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받아들였다면 신권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버려서는 안됩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예리고를 함락시킨 후 아이성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은 예리고 보다 작고 군대 수도 적어서 여호수아는 3천 명의 군사만으로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퇴각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 엎드려 패한 원인을 여쭙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대답과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예리고가 함락되었을 때 그곳에서 어떤 귀중품도 취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란 자가 전리품을 가로채 숨겼습니다. 아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여호수아 7:21) 주님께서

는 그것들을 파괴하고 아간을 돌로 쳐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부정직함이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와 36명의 전사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의 율법을 어겼고, 저주스러운 일이 성약의 백성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범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하게 되자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신앙개조, 12판, [1924년], 105쪽; 여호수아 7:10~13 참조)

사람이 주님의 계명을 범한 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보호와 지지의 권세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권세를 잃게 된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결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0) 악행에서 절망이 옵니다. 악행은 슬픔을 주고 그리스도가 주신 “희망의 밝은 빛”(니파이서 31:20)을 소멸시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홀로 서게 됩니다.

신권은 주님의 공인된 대리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을 주는 의식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권능입니다. 신권은 교회 행정에 집행할 때, 계시를 통해 그분의 말

숨을 얻을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 승영의 의식을 집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교리와 성약 121:36)라고 배웠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여러분이 소유한 신권의 권능은 무한합니다. 제한은 오직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영과 조화롭지 못할 때에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행사하는 권능에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베드로전서 2:9)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에서 나와 악을 버리며, 저들의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앨마서 5:57)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이 신권을 받아들여 기로 수락하고 받으면 그 신권을 영화롭게 할 신성한 책임이 따릅니다. 이 신권을 받음으로써 우리 모두는 각자 열심히 봉사하며, 신앙과 간증으로 가르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강화해야 합니다. 즉,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의 성장과 발전과 복지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권 직분이라도 그저 나이와 입장을 고려하여 자동적으로 성임해서는 안 됩니다. 신권 직분에 성임될 사람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가 이전에 행한 영예로운 봉사에 대한 보고를 듣고 순결과 합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한 후 (새로운) 신권 직분의 큰 책임을 위하여 힘을 다해 노력하며 기꺼이 받아들일겠다는 본인의 확인을 받는 신권 지도자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권을 소유하는 일에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냉담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받아들였다면 신권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권은 영원토록 우리



의 것이 될 수도 있는 영예와 권능의 외투입니다.

신권을 받아들임으로써 각 형제는 자신의 정직을 걸고 특정한 방식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책임감을 갖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세움을 멀리하도록 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성스럽고 신성한 부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조지 큐 캐넌 장로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신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신권은 우리를 승영에 이르게 해주는 대신 저주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받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복음 진리, 1:229)

우리가 신권에 대해 생각하면서, 신권의 참된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성신권이란 점을 잊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대제사입니다. 그분은 이 지상의 모든 신권의 권능과 능력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중보자, 구속주로서

그분은 말과 행동과 믿음과 교리와 신앙과 의식과 개인적인 의로움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위대한 모범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베드로전서 2:21)

우리가 충실하게 신권을 간직하고 모든 부름을 영화롭게 하면 영광과 영생과 승영과 심지어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시기로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분과 공동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권에 성임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요셉 스미스역, 히브리서 7:3)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권세로 너희를 구하시는 이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여]"(니파이서 31:19)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정 증진

네드 비 루에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친구와 책임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겸손히 이 기회를 받아들이며 신앙과 기도로 제게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영의 축복과 인도를 받아 듣고 느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래 전에 저는 제 삶을, 제 영원한 삶을 바꿔 놓은 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와드의 한 자매님이 전화를 하여 몇 주 후에 있을 상호향상회 활동의 밤 행사의 일부로 댄스 공연을 해달라고 초대했습니다. 저의 취미는 댄스였고 당시에 저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볼룸 댄스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상호향상회 무도회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약속된 날 밤 제가 파트너와 함께 그곳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저희들만 초대된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고 너무나

즐거운 밤이었습니다.

그다음 일요일 아침 저는 집사로 성임된 이후 처음으로 와드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시에 제 가족은 아무도 활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 주었고 제게 진실한 우정과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시작으로 저는 평생토록 제게 기쁨을 주었던 교회에서의 활동과 봉사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당시에는 선임 아론 신권 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아론 신권 연령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형제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호하며 훌륭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 훌륭한 귀환 선교사가 우리 반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며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한편 저는 와드에서 댄스를 가르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내가 발전함에 따라 성장과 행복으로 가득한 15개월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곧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언어와 나라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나누면서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세울 굳건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책임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부

족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구세주의 사랑을 앎으로써 느끼는 감미로운 감동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휴지 상태에 있지만 "선한 소식"을 전해 주는 사람들에 의해 영혼이 깨어나길 기다리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의 모범을 살펴보고는 어떻게 하면 자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느냐고 물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신권을 지닌 형제들에게, 주위를 돌아보고 활동이 저조하거나 비회원인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따뜻한 우정의 손길을 내밀 것을 권유합니다. 그들에게 함께 참여하자고 권유하십시오. 그들에게 친구가 되십시오.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위해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보라, 이는 주 너희 구속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러므로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고,

"회개하면 만인을 자기에게 이끌어 오시

솔트레이크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다 본 템플스퀘어 중앙에 있는 건물이 이행블리 홀이다.



신권과 가정

디리 토블러 장로
철심인 정원희

각 와드에서 평의회를 통해 [신권이 없는] 가족에게 손길을 뻗어 그들이 성전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니라.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0~13)

그분의 이 놀라운 약속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이 부활 절기에 그분의 부활을 경축하면서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분께서 기꺼이 치르신 값에 대해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 봅시다.

저는 모든 이에게 나아와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주는 이 위대한 축복들을 누리시도록 초대합니다.

인간의 인습, 즉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며 모로나이가 “이를 바르게 지키며”(모로나이사 6:4)라고 말한 것같이 올바른 길에서 주도면밀하게 우리를 끌어 내리려는 모든 것들을 던져 버리고, 우리의 몸값을 치르시고 자유롭게 하신 그분, 곧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돌리고 그분을 따르도록 합시다.

이 대회에서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의 느낌에 귀 기울이고 그 속삭임에 따르십시오. 높은 곳에서 임하는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궁핍한 자들을 돕는 일에 보다 큰 열정을 갖고 나아가며, 사람의 마음을 그분에게로 이끌어 그분의 선하신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여 그분의 감미로운 사랑을 알게 합시다. “그리하면... 등에 곡식 다발을 지게 되리라. 무릇 일꾼이 자기의 삶을 받음은 마땅하니”(교리와 성약 31:5)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흐를 것입니다.

재능을 함께 나누도록 초대받았던 오래 전 그날 밤, 교회 내에서 새 친구들과 활동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우정의 손길을 내밀어 들어오도록 초대하고 저를 양육하며 세 삶을 축복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의롭고 유능한 형제, 자매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교회의 회원들을 가르치고 권고해 온 이 연단에 서게 된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오늘밤 신권 지도자, 특히 스테이크 및 와드의 여러 평의회에 소속된 신권 지도자들에게 교회 내의 가족 중에서 아직 집안에 멜기세덱 신권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족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보여 주실 것을 겸손하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족은 아직 가장이 가족을 축복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신권을 받지 못한 가족입니다. 이러한 가족들에게 있어 복음의 충만한, 특히 성전의 축복은 그들 자신부터 노력해야 하는 점도 있지만, 성전 의식이 가족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이미 잘 이해하고 있는 교회 회원들의 애정 어린 보살핌도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신권이 갈증을 해소하고자 마시는 물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어머니는 가족 전원이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가족 모두가 함께 솔트레이크 성전에 가는 기쁨을 경험하며 자라났습니다. 저의 조부이신 서얼 할아버지는 47세에 신권과 그에 따르는 모든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모친은 복음 선교 사업을 마친 뒤 특별한 신권의 축복을 원하셨는데, 장차 자신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권을 소유한 합당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신권 소유자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신권의 축복을 받은 후, 모친의 그러한 모든 의로운 소망이 실현되어 모친과 저희는 네바다 남부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 시작부터 우리 가족은 회복된 복음의 신권과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땀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어린 우리들에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외가와 친가가 모두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권의 치유 권세를 배워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때로는 혼자서, 또 다른 때는 와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신권을 행사했습니다. 1930년대에 네바다의 작은 개척 마을에는 의사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라야 라스베가스나 세인트조지에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거

나 병이 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신권의 권세에서 나오는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종종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기 병커빌에는 의사 선생님이 없지만, 우리를 축복해 주는 신권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축복은 참으로 큰 것이어서 노소를 불문하고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신권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권의 권세를 알 수 있었던 것에 항상 감사하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가족을 무너뜨리는, 가정으로부터 평온함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빼앗아가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서로 앞다퉂 부도덕한 행위와 부정직을 자랑스럽게 행하며 더욱 강하게 악물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와 도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욱 심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사업체나 비영리 단체들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합병과 통합을 모색하게 되므로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가족 농장도 수년 전의 국지적인 조건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의 시장과 일반적인 경제 동향에 더욱 노출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의 상황은 실질적인 모든 면에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그로 인해 부모와 자녀들이 불안감에 싸여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가 점차 부식해 나가는 것과 맞물린 이러한 상황은 가족 내에서만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당한 신권으로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와 선하고 의로운 어머니가 동행하는 가정에서 의로운 권세가 힘을 발휘할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1999년 2월 11일에 전세계의 모든 회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관장단은 부모들은 복음의 원리 안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다시금 촉구했습니다.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근원이며 다른 어떠한 것도 가정을

대신하거나 가정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없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신권의 토대가, 어린 시절 저의 가정이 그러했듯이, 집안에 놓여있게 되면, 우리는 장래의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체가 나고 지칠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최상의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신권을 존중하고 행사하는 가족은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영원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의 각 구성원은 온전하게 되고 충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어느 와드나 지부에도 신권이 없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에는 맬기세텍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친절한 권유를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남편과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은 도움의 손길이 펼쳐지기를 간구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가르침과 보살핌을 통하여 이들은 그 신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에게 계시를 주고 인도하는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고

침례하고 확인을 줄 수 있는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전에 가고, 자녀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 현세와 영원을 위해 함께 인봉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들들에게 신권을 성임하며 아들과 딸들에게 병고침과 건강의 축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가족에게 훌륭한 부양자입니다. 이제 그들은 영원한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각 와드에서는 평의회를 통해 이러한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손길을 뻗어 그들이 성전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승영을 받을 것이며, 앞에 놓인 시련을 헤쳐 나갈 것입니까. 감독님과 지부장님, 맬기세텍 신권 평의회와 와드 및 지부 평의회에 호소하오니, 기도하고 사려깊은 마음으로 이들 가족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최우선의 과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들 가족들이 신권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거할 때 교회는 더욱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순종: 자유에 이르는 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순종은 참된 자유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계시된 진리에 순종할수록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이 지닌 신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보여 주신 충실한 순종에 깊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이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경고의 음성을 높이고자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들에 대해 인도를 간구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자고 그럴싸한 말로 소리 높여 외쳐대는 목소리로 인하여 옳고 그름의 차이가 매우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절대 자유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목소리로 그러한 행위가 개인을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저는 이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 특별히 아론 신권을 지닌 청남들에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종은 참된 자유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계시된 진리에 순종할수록 더욱 자유

로워 집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께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고 전적으로 자유롭기를 원하던 댄디라는 이름을 가진 자신의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을 때에는 댄디도 여느 말처럼 순종적이고 응답을 잘하는 협조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댄디는 제지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말은 묶인 것에 기분이 상해 풀려날 때까지 자신을 묶고 있는 밧줄을 이빨로 끊어 냈습니다. 그 말은 달아나려 하기보다는 그저 자유롭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말들도 그러리라 생각하고 그 말들의 밧줄도 풀어 주기도 했습니다.

“근방을 탐험해 보고 싶어하는 댄디의 호기심과 욕망은 자신과 저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한 번은 고속 도로에서 댄디가 자동차에 부딪혔습니다.

“회복기에 있으면서도 방랑을 하고 싶은 충동을 여전히 느끼고 있던 댄디는 경계 내의 울타리 전체를 조사하고 다녔습니다. 댄디는 문이 쉽게 열리지 못하도록 줄로 묶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누군가가 문에 줄을 걸어 놓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댄디는 밧줄을 풀고 다른 말 한 마리와 함께 창고로 쓰이던 오래된 가옥으로 갔습니다. 댄디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곡식 사무가 있었습니다. 멋진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극이었습니다. 그 곡식은 쥐를 잡기 위한 미끼였던 것입니다. 몇 분 후에 댄디와 다른 말은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얼마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맥케이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댄디와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충동적이고, 생동하며, 호기심이 가득 합니다. 그들 또한 제재를 받으면 조바심을 내지만, 세심하고 올바르게 인도되며 빠르게 생활한다면 순응하고 유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인도되지 못한 채 방황한다면, 그들은 모두 올바른 원리를 너무 자주 침범하게 되어 종종 악의 올라미, 재난,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릭 왈튼과 편 오비엣에서 인용, 편집, 물문을 위한 이야기 (1983), 86~87쪽)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고삐에 매이거나 제재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전국으로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죄수들에 관한 이야기가 다루어졌습니다. 죄수들은 말과 우정을 키우며 인내와 자제심, 타인에 대한 존경, 그리고 조직 안에서 일하는 것의 가치 등을 배웠습니다. 자신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감옥에 오게 된 그 끔찍한 실수들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의 원리에 대한 순종이 사회의 질병과 부끄러움, 타락, 죄책감 등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들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말과 마찬가지로 죄수들도 배우고, 발전하고,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한, 특히 도덕적 제제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는 설득력 있는 많은 주장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사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회는 경계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지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는 물질로 형성되어 있고 태초에는 공허하고 황폐하였으며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어둠에서 나뉘어져야 한다고 명하시자 질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준수되었으며, 이 지구는 첫 낮과 이어 첫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대기의 창조를 명하셨으며 해와 달과 별들을 조직하시어 각기 그 때와 절기에 따라 빛나도록 하셨습니다. 일련의 명령과 그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이 지구는 생물이

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서 4장 참조)

한때 미국 상원 의원이었던 제이크 간 형제는 몇 해 전에 미국 우주 비행사들과 한 팀이 되어 우주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지구 궤도를 선회하면서 우주 비행선 디스커버리호에서 바라본 하늘의 광대함을 회상하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지구가 하나

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주에서 바라본 이 지구의 그 장엄한 아름다움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이크 간과의 대담, 1999년 2월 23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의 한 공간을 차지하는 하나의 행성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여덟

개의 다른 행성과 소행성, 혜성, 그 외 다른 천체들로 이루어진 질서 정연한 하나의 체계인 태양계에 소속된 일부입니다. 지구가 행성이듯이 우리 각자도 자신의 고유 영역을 지닌 개체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체이지만, 질서가 조화의 체계를 가져오는 가족과 지역 사회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이 조화의 체계는 원리에 따르는 순종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지구가 어둡고 공허할 때 질서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순종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살기에 합당한 해의 왕국의 존재가 되는 과정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충만한 잠재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도움을 줍니다.

형제 여러분, 자유의 또 다른 요소는 신뢰입니다. 약 60여 년 전 제가 첫 번째 선교 사업에 나갈 때 맥케이 대관장께서 선교사들에게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공장 철판으로 가서 분필을 집어 드시고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신임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적으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성찰하며 그것에 적절한 몇 가지 좋은 예를 발견했습니다. 경전에 나타난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곱과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두 꿈을 꾸고 변민에 빠졌습니다. 감옥 수문장으로부터 요셉의 분별력에 대해 듣게 된 바로는 요셉을 청하여 그 꿈을 해석케 했습니다. 요셉은 영감을 통해 바로에게 7년 동안의 풍년이 있고 난 후에 7년 동안의 기근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그 꿈의 해석을 참되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 뿐 아니라 요셉을 신임하여 바로 다음가는 권세가로 임명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근이 닥쳤습니다. 요셉은 시의 적절할 때 그의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를 기아에서 구해 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9~42장 참조) 요셉은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매우 커다란 자유를 누렸습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경원회의 회원들이 회중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다. 아래서 위로: 헨리 비아이어링 장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로버트 디헤일즈 장로, 라차드 지스코트 장로,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고든 비앙클리 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십이사도 경원회의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엘 톰 페리 장로, 데이비드 비헤이트 장로,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러셀 엠 넬슨 장로, 맬런 에이치 욱스 장로, 조셉 비 위스런 장로, 엠러셀 벨라드 장로는 보이지 않음



되어야 합니다.

구세주는 모든 것에서 그렇듯이 순종에서도 우리의 모범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히브리서 5:8)라고 기록했습니다. 비록 유한하지만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 권능에 대한 존경을 배우며,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책과 같은 소년이 될 것입니다. 책의 아버지가 책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불순종할 때마다, 내 머리카락이 하얗게 세고 만단다.” 책은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빠, 그래서 할아버지 머리가 하얗게 세신 거군요.”(제이콥 엠 브라운드, 편집, 기지와 유머집)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되는 규율을 배우고 있습니다. 순종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더 이상 순종을 성가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건축에 쓰이는 돌이 됩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중독에 빠져 들지 않고 술과 담배와 마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 원리에 연관된 약속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교리와 성약 89:18)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건강해 질 것이며 또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 계시에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을)”(교리와 성약 89:19) 것이라는 또 다른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지식을 얻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알리라”(요한복음 7: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순종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만일 우리가 계명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한다면, 유혹이 닥쳐올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새삼스레 다시 결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순종이 영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형제 여러분, 순종의 또 다른 측면은 영의

속삭임에 대한 우리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높은 곳에서 오는 이러한 속삭임을 무시한 연유로 후회했던 적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헵크스는 영의 속삭임에 순종한 젊은이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1856년 가을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손수레 부대의 사람들이 곤경에 빠져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노라. 가서 그들을 도와야 하느니라.”라고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았다면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말을 타고 드레이퍼에서 솔트레이크시티로 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마지막 손수레 부대를 계곡에 데려오는 일을 도와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떠날 수 있습니다.” 그는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혼자 떠났습니다.

그가 마차를 몰아 산너머 동쪽으로 접어들자 갑자기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폭풍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고 눈이 깊이 쌓여 마차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말을 타고 가

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한 마리는 자신이 타고 다른 한 마리는 짐을 싣고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눈을 헤치며 산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땅거미가 질 무렵 사우스페이스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자리에 누우려다 배고픔에 지친 성도들을 생각하고는 본능적으로 주님께 들소 한 마리를 보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약 50미터 전방에 들소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총을 겨누고 쏘자 들소가 그가 야영을 하고 있던 곳으로 굴러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는 들소 고기를 말에 싣고 떠나 아이스스프링 벤치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한 마리의 들소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절기에 그 지역에서 들소를 발견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길쭉하게 자른 다음 말에 그것들을 싣고서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에브라임 자신의 기록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해가 한 시간 전에 이미 졌다고 생각한 나는 눈 속에서 어렵듯이 보이는 한 점을 물체를 멀리서 엿보고 있었다. 나는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것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찾아

대회 말씀을 들으며 생각에 잠긴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엠 러셀 밸라드 장로



해매던 에드워드 마틴 대장이 인도하던 손수레 부대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내가 오는 것을 본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를 맞아 주었으며, 이와 더불어 내가 그들의 아영지로 가져온 신선한 고기를 보자 그들의 기쁨은 참으로 하늘을 찌를 듯 했다. 사람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한 사람이 말했다. 제발 제게 고기를 조금만 주시오, 또 다른 사람이 절규하기를, 제 기여운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제게 조금만 주시오, 아이들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5분이 지나자 두 마리 말 위에 놓여 있던 모든 고기가 사라졌다. 그 후 몇시간 동안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었다.”(시드니 알바투스 헵크스와 에브라임 케이 헵크스, 위대한 개척지의 물문을 찾아서[1984], 132, 133, 135~136, 140쪽)

에브라임 헵크스는 영의 속삭임에 순종했기 때문에 혼자서 그 지독한 겨울 날씨를 헤쳐 나가 많은 개척자들의 생명을 구출한 영웅의 선두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영의 속삭임에 귀기울이고 총관리 역원들의 권고를 따랐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상황을 헤쳐 나가던 개척자들의 생명을 구출하여 자유를 가져다 준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영의 속삭임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소중한 은사입니다. 만일 우리가 맥케이 대관장의 말 덴디와 그의 동반자의 운명이었던 파멸을 피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울타리와 난간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울타리는 바로 계시된 진리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들에 대한 순종은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잠재 능력과 영광에 이르도록 해 줍니다.

저는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또한 저는 저의 형제 되시는 여러분께 킵클리 대관장께서 갖고 계시는 예언자의 외투에 대해 간증드리며, 그 외투를 통해 그분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곧 구세주로부터 영감과 인도를 받고 계심을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신권 소유자- 주님의 강한 군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가 교회 내에 구축해 놓은 최대의 안전 장치 중에 하나는 강하고 굳건하고 헌신적이고 간증으로 무장한 멜기세덱 신권 기조입니다.



봉사하라는 부름에 매일같이 부응하며, 주님이 명하신 대로 부지런히 가르치며, 교회 회원들이 극복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신권 소유자의 군대와 함께 오늘 밤 이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창궐하는 부도덕과 무책임과 부정적 의 물질이 우리 개인의 삶의 언저리에서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언저리를 안전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침식해 들어가는 영향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깊이 자리 잡은 기초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곤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 구축해 놓은 최대의 안전 장치 중에 하나는 강하고 굳건하고 헌신적이고 간증으로 무장한 멜기세덱 신권 기조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작은 도자기 병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사해에서 떠온 물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떠온 물이 담겨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중 한 병을 집어 들고 물이 줄어들지 않았나 흔들어서 확인합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른 이 두 바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사해에는 생명체가 살지 못합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생동하는 생명체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추억들로 가득합니다.

오늘날 교회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수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각 워드 및 스테이크에 있는 예비 선교사 자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강물이 물웅덩이로 몰려 들어가는 광경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정체된 물웅덩이에 한 줄기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줄기는 멜기세덱 신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수련 장로들의 물웅덩이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보다 크게, 보다 깊게, 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아론 신권 프로그램의 가치를 검토해 보는 것은 필수적일 뿐 아니라 중대한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소년들이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대다 실족하여 넘어지고 맙니다. 이 때문에 교회의 활동적인 신권 기조가 침식되어 가며 사랑스런 아내와 소중한 자녀들의 활동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질문: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경향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시작할 곳은 아론 신권 시냇물의 발원지입니다. 사람의 정신이 멀쩡한지 올바르게 분간할 의도로 만들어진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시냇물이 흘러드는 연못을 보여 줍니다. 그에게 양동이를 하나 주고 연못의 물을 다 퍼내라고 시킵니다. 만일 그가 먼저 흘러드는 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면 제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흘러드는 물을 무시하고 양동이로 물을 퍼낸다면 제 정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독은 계시에 의해 와드 내에서 아론 신권 회장이자 제사 정원회 회장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범인 정원회 고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있습니다.

감독의 보좌들과 다른 와드의 역원들과 교사들, 그리고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봉사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청소년을 구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청년들에게 합당한 남편을, 강한 멘티세덱 신권 정원회,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성취하도록 훈련되고 유능한 선교사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한가지 현명한 첫단계는 모든 집사가 성임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졌던 부름의 신성함을 영적으로 인식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와드에서 금식 헌물 수집에 관한 이 교훈이 효과적으로 가르쳐졌습니다.

집사와 교사들은 금식일에 와드 회원들을 방문하여 헌물을 수집했습니다. 집사들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약간 언짢았습니다.

감독단은 집사와 교사 들을 버스에 태우고

이곳 솔트레이크에 있는 복지 광장으로 가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궁핍한 아이들이 새로운 신발과 옷가지들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그들은 빈 양동이와 식료품으로 채워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건 값을 치르는 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남 여러분, 금식일에 여러분이 거둬들이는 돈으로 음식과 옷과 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론 신권 청남들은 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성임받은 모든 교사에게 가정 복음 교육 임무가 주어집니까? 선교사 준비를 위한 참으로 훌륭한 기회이지 않습니까? 절도있게 의무를 배울 수 있는 참으로 훌륭한 특권입니다. 청소년은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부름을 받을 때 자신에 대한 염려에서 자동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제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젊은이들은 성찬을 축복하고 가정 복음 교육 의무를 계속하며 신성한 침례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였을 때 제사들이 성찬을 집행

많은 사람들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태버네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기억이 납니다. 베어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제사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는데 마치 웅변 대회에서 겨루고 있는 듯이 또렷한 음성으로 성찬 축복문을 읽었습니다. 와드의 다른 회원들은, 특히 나이 드신 자매님들은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약간 자만에 빠져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와드의 다른 제사인 잭은 청각 장애자였기 때문에 그 음성이 자연스럽게 못했습니다. 우리 집사들은 잭이 상징물을 축복할 때면 때로는 킁킁대고 웃었습니다.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믿기질 않습니다. 곰처럼 큰 손을 가진 잭은 우리들 모두를 누구라도 때려눕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베어리와 듣기 거북한 목소리를 가진 잭이 함께 성찬 축복을 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자 두 제사는 빵을 떼어놓았습니다. 베어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자 우리는 모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들은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지 궁금해 눈을 떴습니다. 베어리가

성찬 축복문이 인쇄된 하얀 카드를 찾으며 허둥대던 모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어리는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얼굴을 붉히다가 나중에는 흥당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잭은 곰 같은 손을 뺀어 베어리를 부드럽게 자리에 앉히고는 혼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니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 당신의 몸을 기억하여..."(모로나이서 4:3) 그는 기도를 한 후 빵을 돌렸습니다. 잭은 또한 물도 축복한 후 물을 돌렸습니다. 그 날 우리 집사들이 비록 언어 장애를 갖고 있지만 성찬 축복문을 기억한 잭에게 갖게 된 존경심은 참으로 컸습니다. 베어리 역시 잭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우정의 결속이 맺어진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영향력은 감독단과 아론 신권 정원회 고문의 영향력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모는 흔히 성공과 실패를 가름지을 수 있는 현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

다. 최근에 실시한 조사에서 가정의 영향이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을 결정짓는 주된 요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8명의 제사 정원의 정원을 모두 채운 와드는 3개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와드는 각각 조셉 비 워스린, 알프레드 비 스미스와 알빈 알다이어에 의해 이끌어졌습니다. 예외없이 대다수 청소년들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비결은 젊은이들이 따를 만한 모범적인 사람들에게 아론 신권 고문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준 데 있습니다. 이상적인 모범은 어린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보고 "나도 저 분처럼 돼야지"라고 결심할 만한 선교 임지에서 막 돌아온 간증이 넘치는 귀환 선교사입니다.

수련 장로의 물웅덩이로 흘러 들어가는 아론 신권 소유자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청소년들이 선교 사업에 나가고 성전에서 결혼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영원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청남이 얼마 되지 않는 데 비해 합당한 청년이 너무도 많은 불균형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소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축복사인 남편과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른 신권을 소유한 청남의 발 밑에 굳건한 기초를 놓아 줍시다.

아른 신권을 받았지만 제때에 상로에 성임되지 않은 교회의 성인 개종자들을 간과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비활동의 정체된 물웅덩이에 머물러 있는 형제들과 합세하게 됩니다. 배수구가 없는 연못에 갇혔다고 느꼈던 훌륭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한 와드와 스테이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러한 구조 활동에서 비전을 가졌던 단위 조직에 대한 기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 활동은 일대일 방식으로 와드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감독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는 와드에서 아른 신권 회장인 동시에 관리 대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중대한 일에 도움이 될 만한 합당하고 잘 준비된 교사를 불러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분석하고 봉사하고 구원하는 일에 전진하도록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소집하십시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고리와 성약 18:10) 아버지가 빛을 보고 살아가는 방식을 개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 아내와 아이들이 갖게 될 기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사랑과 영감에 찬 가르침의 모범을 작고하신 제임스 콜리어의 생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유타 바운티폴 지역에서 수많은 형제들의 재활동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는 콜리어 형제로부터, 이제는 장로로 성임되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솔트레이크 성전에 와서 그들이 받고자 것처럼 진실되게 노력했던 영원한 성약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성취를 기리는 연회에서 짐이 자신이

가르치고 구조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랑과 그들이 짐에게 보이는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짐 콜리어는 불행하게도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을 떠나 이 마지막 기쁨의 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의사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짐은 연단에 서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삼석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콜리어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해의 왕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곳에서 사랑하는 친구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반갑게 맞을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짐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불과 얼마 후에 그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아른 신권을 소유한 청남들과 수련 장로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홀로 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그 자체보다 더 높은 절대자가 있다고 해서 결코 인간이 비하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자신보다 더 위대한 절대자에게 은혜와 고귀한 목적을 돌린다면, 인류를 위한 보다 숭고한 운명과 고귀한 속성을 마음속에 그리게 되며 생존의 투쟁에서 고무됩니다. 찾게 되리라고 믿고 기도하고 희망하는 가운데 구해야 합니다. 것처럼 진지하고 기도로 가득한 노력이 결코 아무런 보상 없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철학을 이루는 본질입니다."(대회 보고, 1937년 10월, 35쪽, 38쪽) 스티븐 엘 리차드 부대관장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왕과 나"에 나오는 대사 한 구절은 노력하는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삼 왕국의 왕이 죽어 가고 있는데, 영어 교사인 애나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나요?" 애나는 생각에 잠겨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은 결코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되려고 참으로 노력했다."(리차드 로저스와 오스카 해머스틴 이세, 왕과 나, 1951년)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도움, 성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9쪽)

이처럼 명확히 정의된 행복의 길을 걷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도움이 될 만한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교통 표지판에 나와 있습니다. "차선 멈추"

이 충고는 조가 발견하고 엄수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나 50마일 떨어진 병원까지 지체 불구자인 한 아이를 데려다 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일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한 여인이 차에서 아이를 안고 와서 운전석 옆에 앉히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조는 모든 일이 잘될 거라고 말하고는 신속하게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1마일 쯤 갔을 때, 아이는 수줍어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말에 조는 "난 아니란다. 꼬마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전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라 생각했어요. 전 엄마가 제 침대 가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가 병원에 가서 완치되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죠?"

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따금 한단다. 하지만 정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란다. 앞으로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생각이야."

형제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양들의 목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저는 감독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분이 만들어지고 기능하게 하신 전능자의 계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 드리는 것은 큰 영예이며 책임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신권에 성임된 수많은 성인 남자와 청남들로 구성된 이 신권 조직은 참으로 어머어마한 조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권을 가진 형제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그 모임 규모는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세계가 놀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와 같은 조직은 또 다시 없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중추입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감독, 지부장, 지방부장, 스테이크 부장,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그리고 모든 총관리 역원이 배출됩니다.

청남 여러분은 전세계에 그 영향력을 미

치고 있는 위대한 선교사 프로그램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진심 감추를 입고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장정이요, 소년들입니다.

이런 모임을 가질 때마다 저는 참석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 태버나클의 문들이 열리자마자 청남들과 그들의 아버지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새로운 건물에 1년 후면 완공되어, 원하는 분 모두를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송과 위성 중계로 이 모임의 실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형제 여러분도 우리와 모두 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미소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당신 아들에 대한 간증을 마음에 쌓고, 교회 회원들을 이끌어가고 가르치며, 의로운 가정의 머리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수많은 장정과 소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대단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노소가 함께 어우러진 거대한 남자들의 조직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정성과 한 목적과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일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각자가 신권에 성임됨으로써 갖게 되는 엄청난 무언가를 인식하십시오. 신권은 지상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신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늘의 은사입니다. 이 신권에는 교회의 제반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따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병자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하늘의 권세를 끌어내리는 권세와 권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권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신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신권의 권능은 현세에서 사용되며 죽음의 장막 너머까지 그 힘이 미칩니다.

우리가 가진 신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권을 지니기에 합당한 삶을 영위하기를 호소합니다.

이미 들어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악이 팽배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추악한 음란물과 외설스럽고 사악한 행동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권을 가진 사람의 표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고하면서 그 불결함에 물들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입니다.

부정직이 무성합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훌륭한 계획을 시행하려 할 때, 사업을 할 때, 훔쳐보고 편취하는 일들이 너무 횡행합니다. 도처에 유혹이 널려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것들에 굴복하고 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세상의 악을 이기십시오. 지나치게 얌전한 체해서는 안 됩니다. 독선적인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개인의 성실함, 선악에 대한 분별력, 정직함만을 갖고 행동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복음대로 생활합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사랑을 솔직하게 나타내 보이도록 합시다. 분노의 음성을 자제합시다. 절대적으로 서로에게 충실합시다.

그저 '의의 일 하세 보람있으리니'. (찬송가, 177장) 매일 아침마다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보호의 권세를 구하는 생활을 합시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와 부끄러움이나 당혹감이나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생활합시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성실히 살았어. 아무도,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속이지 않았어. 아이들의 어머니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왔지. 나는 저 아이들이 자랑스러워.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황혼의 어두움이 깃들 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벽찬 감사의 환희로 뛰노는 가슴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약속드립니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단상에서 교회의 감독에 관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그 주제를 다시 한번 간단히 다루고 싶습니다.

저는 감독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분이 만들어지고 기능하게 하신 전능자의 계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아실 테지만, 지난 가을에 중미 지역에 엄청난 태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옛세 동안 꼬박 태풍 미치가 그 지역, 특히 온두라스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모진 바람이 휘몰아치고 폭우가 잠시도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강이 범람하여 강둑을 따라 늘어서 있던 가옥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온두라스에서는 200개 이상의 다리가 떠내려가는 바람에 교통 수단이 파괴되었습니다. 고지대의 토양이 바다를 향해 쓸려 내려가면서 흙탕물이 범람했습니다. 가옥은 창문 위까지 물이 찼으며, 들과 도로 위에도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모든 걸 버려 둔 채 대피했습니다.

감독님 중에 한 분은 대형 트럭을 구해서 사람들을 모아 더 높은 고지대로 피신시켰습니다. 트럭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그는 보트 한 척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직접 시찰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간결하면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효과적인 조직이 운영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는 감독님이나



지방장님이 계십니다. 저는 전세계에서 물 밑듯이 쏟아져 들어온 모든 구호 노력에 대해 칭찬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가 운영한 훌륭한 방법에 대해 끝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감독님들은 스테이크 부장에게 호소했고, 그분은 지역 회장단에게, 지역 회장단은 솔트레이크의 본부에 호소했습니다.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엄청난 양의 기본적인 음식, 의약품, 옷 등이 창고에서 출하되어 여러 재해 지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 산페드로술라에 창고 하나를 빌렸습니다. 감독님들은 회원들을 조직하여 교대로 한 가족이 1주일 간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옷가지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들을 비닐 포대에 넣는 일을 진두 지휘했습니다. 모든 감독은 자기와드 회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독은 상호부조회 회장과 함께 회원들의 필요 사항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고용한 정체 모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친구였으며, 와드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필요 사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의복을 더 갖겠다고 싸우거나 욕심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정연했으며 체계적이고 친근했습니다. 사랑과 염려의 마음으로 충만했으며, 즉각적인 필요 사항들은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조용하고 훌륭하게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사방에 진흙이 덕지덕지 붙은 채로 추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삽과 외바퀴 손수레보다 더 소중한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감독님들의 지시 아래, 회원들은 각 가옥에서 진흙 청소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토요일에 집회소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들을 이끄는 자애로운 아버지인 감독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에 동동 떠났던 의자를 끌어내서 깨끗하게 씻었고, 벽과 바닥에 붙은 진흙 더미를 긁어냈습니다. 그 다음 자루 걸레가 등장했고, 또 그 다음에는 광택 걸레가 등장했습니다. 그 토요일 저녁 밤이 깊어지기 전에 그 건물은 안식일에 예배를 볼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교회의 감독님들께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와 존경과 찬사를 드립니다. 저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던 온두라스 라리마에서 그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 분들과 대화하고 악수하고 격려했습니다. 자신의 안락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지혜와 영감을 바쳐서 전세계의 와드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이 감독님들께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분들은 회원들의 사랑 말고는 아무런 보상이 받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전혀 쉬지도 못하고, 다른 때에도 별로 쉬지 못합니다. 그 분들은 회원들과 가장 가까운 분들이며, 회원들의 필요 사항과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직분이 요구하는 바는 디모데에게 이런 서한을 보낸 바울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디모데전서 3:2-3)

디모데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

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디도서 1:7, 9)

제가 어릴 때와 청소년 시절, 그리고 장로로 성임되어서 선교 사업을 나갈 때까지도 저의 감독님은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그 감독님은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 분은 25년 동안 봉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분을 알았고, 그 분은 우리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분을 오히려 “덩컨 감독님”이라고 불렀고, 그 분은 항상 친근하게 우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분을 매우 존경했는데, 거의 경외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을 친구처럼 생각했습니다. 와드에는 회원이 많았으며, 그 분은 훌륭하게 봉사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장례식에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분은 아마 제 부친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일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이후 저는 많은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감독님들은 헌신적이고 영감에 찬 지도자이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감독님들께 직접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상당 부

분은 스테이크 부장님이나 비슷한 부름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신뢰는 대단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무를 때 여러분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와드의 관리 대제사요, 회원들의 상담자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보호자와 조력자요, 슬픔에 차 있는 분들의 위로자요, 궁핍한 자들의 공급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와드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수준 높은 교육과 많은 필요한 직분을 채우는 데 있어서 수호자요, 보호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행동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하고, 어떤 비난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범은 회원들이 따라가는 방향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악을 물리쳐야 하고 기꺼이 의를 위해 당당히 서며, 진리를 수호하는데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확고함이 요구되지만, 친절과 사랑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와드의 가장이며 회원들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슬퍼하고 병들고 궁핍할 때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론 신권 회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하며, 보좌들과 함께 집사, 교사, 제사 정원회를 이끌면서 청남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에베소서 6:4)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편 된 자로서 부인의 사랑하는 동반자요, 보호자요, 공급자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된 자로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가르쳐야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자제력을 발휘하여 삶을 영위하는 동안 어떤 형태의 죄와 악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음란물을 피해야 하고 추악한 오락물이 방영될 때는 텔레비전을 꺼야 하며, 생각과 행동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감독직을 통해 혜택을



말씀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대관장단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고든 비 힝클러 대관장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엠 톰 페터



데이비드 비 헤이트



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머릴 에이저 왓슨



엠 러셀 펠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암 홀런드



머릴 비 아이어링

철심인 회장단



윌 마크 포터



조 제이 크리스텐슨



해럴드 지 힐렐



컬시 림기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머릴 케이 쟈슨



데이비드 이 스켈슨

철십인 제일 정원회



단털 아브라함



카메론스 애이저 아처



닐 앤더슨



벤 비 브룩스



머릴 제이 베이튼



윌리엄 엠 브래드포드



론 제이 브린크



아트 브라운



론 케이 카어



벤 아트 처칠드



게리 코클런



스텰슨 케이 콘디



진 쿡



퀸틴 쿡



로버트 제이 델라브로



론 비 더vos



한스 디디에이



로센 시 딘



론 제이 페티스펠톤



론 애이저 그라버그



브루스 시 하빈



아트 엠비 하우드



에드 바튼 하우드



제이 힌슨



제스 존스



엘 라이오넬 오킨넬



윌리엄 홀포카



오서버트 가부퍼



프리 엘프 코퍼드



존 엘 헤더슨



윌 에이 미어링



윌 메이얼더 비 모리슨



토마스 비 노먼



클레 엘 패티스



앤드류 퍼플러 페누슨



렉스 디 퍼퍼가



톰 퍼플러 퍼너크



할 비 퍼켓



세실 오 사우어본



단 에프 우오펀



폴 스티븐스 퍼퍼



단털 엠 그레이드 퍼퍼

철십인 제이 정원회



리처드 디 앤더슨



아트 에스 엠 브라운



이 래이 베이튼



아트 에스 엠 브라운



앨런 에이 쿡



폴 칼 크리스웰슨



리처드 이 쿡



클라우디아 앤 앨프스타



아트 디 에이너



류언트 비 제라드



로널드 디 챔버슨



앨런 엠 쿡



제이 켈트 콜리



대블류 존 레드



제임스 오 에이슨



리처드 제이 에이너즈



데이비 이 밀러



앨 엠 온슨



매릴 시 웬스



스티븐 비 오모슨



브루스 디 포터



애이저 브래디언 리차즈



린지 로빈슨



네트 비 루어시



테스 이 시먼즈



도널드 엘 스티켈러



데이비드 칼 스톤



애이저 브루스 스투커



제임스 엘 테일러



다리 토폴러



리처드 이 블러 일색



고든 티 에츠



스티븐 에이 러스토프



로버트 케이 배튼



웬스 비 워리안



리처드 에이치 퍼플



리처드 비 루스빈



레이 에이치 우드



로버트 에츠 우드



관리 감독



리처드 시 에델라 제 1호와



에이저 데이비드 배튼



관리 감독



제 2호와



제 2호와



동남쪽을 바라본 광장: 솔트레이크 성전. 중앙: 요셉 스미스 기념관의 일부, 왼쪽: 원쪽, 사람들과 대바늘, 오른쪽: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하지 않도록, 감독 직분을 이용해 회원들로부터 사업상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입니다. 이것은 무서울 정도로 커다란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경우, 여러분은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침례를 받기에 합당한지, 아론 신권에 성임되기에 합당한지,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또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생활할 곳이 없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백성들의 위안자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을 만큼 건강해야 합니다. 잘못을 범한 자에게도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힘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이해력과 분별력과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원들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며, 그로 인해 여러분의 직업을 희생하거나 가족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 내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해임될 것입니다. 그 날이 슬픔의 날이 될 것이며 회원들에 대한 추억이 평생 뇌리에 남을 것입니다. 그 기억들로 여러분의 생활이 성결케 되고, 평안과 휴식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빛을 발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다니시며 가르치실 때 예수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먼 지투성이의 길을 따라 여행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에 모인 군중들에게 설교하실 때나,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잠시 들렀을 때에도 그분은 비유로써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와 진실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볼 수 있는 은사의 축복을 받지 못한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느 대도시의 복잡한 인도의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밤낮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연필이 가

득 담긴 낡은 증철모를, 다른 한 손에는 양철 통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 대한 그의 단순한 호소는 간결하고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어조의 어떤 단호함이 엮보였습니다. 그의 목에 걸려 있는 작은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맹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연필을 사거나 그 양철통에 돈을 넣기 위해 발길을 멈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 때문에 너무 바빴습니다. 그 양철통이 가득 차거나, 아니면 반 정도도 찬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봄날, 그 맹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펜을 꺼내어 그 초라한 카드에 몇 자를 더 적어 넣었습니다. 이제 그 메시지는, "화창한 봄이지만 저는 맹인입니다."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곧 그 양철통은 넘칠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 그 바쁜 사람들은 찰스 엘 오도넬의 외침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화창한 봄날의 그 푸르른 하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동전들은 어느 정도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실제로 시력을 회복하기를 바랐던 희망에 비하면 초라한 대용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눈먼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지만 밝은 대낮에 어둠 속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맹인용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탁, 탁, 탁" 하는 익숙

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걸어 갈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충실한 안내견도 옆에 두지 않을 것이며, 또한 목에 "저는 맹인입니다."라는 카드를 걸고 다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은 눈먼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로 눈이 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 복수심, 증오심, 편견, 무지, 귀중한 기회를 소홀히 함으로써 눈이 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마태복음 13:15)

다음과 같이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의 빌립의 친구처럼 다음과 같이 외칠 것입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나의 길을 찾을 수] 있느냐"(사도행전 8:31)

오래 전 저는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

하던 중 스테이크 부장단의 한 보좌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치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건물 2층에 있는 스테이크 부장실에서 만난 것은 비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천둥이 치는 바람에 건물의 전기가 나가 버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앞 못 보는 그 형제님에게 팔을 뻗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 팔을 잡으십시오. 제가 아래층까지 내려가시는 것을 돕겠습니다."

저는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할 때 분명 입가에 미소를 지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닙니다. 문슨 형제님, 팔을 이리 주십시오. 제가 도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긴 제가 더 잘 알거든요."

폭풍이 잠잠해지고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비록 앞을 못 보지만 가득한 빛으로써 인도하시던 그 형제님을 따라 계단을 내려왔던 그날 밤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래 전 저 멀리 떨어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그는 태어날 때부

터 소경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사람이 소경이 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한 사람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요한복음 9:3-7)

이 기적과 관련하여 바리새인 사이에서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예수)이 죄인인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이니이다"(요한복음 9:24, 25)

우리에게는 베드로로 더 잘 알려진 어부



시몬을 모두가 선임 사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품고 믿음이 없으며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세 번이나 그를 부인했습니다. 밀치고 조롱하며 떠드는 사람들 속에서 굴욕적인 고통을 당하시던 주님은 침묵의 위엄을 보이시며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프레데릭 더블류 패러, 그리스도의 생애(1874년), 580쪽; 누가복음 22:61 참조) 한 연대학자가 그 변화를 묘사한 것처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위협하지 않음을 알았으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이 오는 것을 맞기 위해 어둠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이 상심한 회개자는 그 자신의 양심의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이전의 삶과 그의 이전의 부끄러움, 그의 이전의 나약함, 그의 이전의 이기심은 깊은 애통의 마음으로 죽음을 선고받았으며, 그로 인해 새롭고 더욱 고결한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패러, 그리스도의 생애, 581쪽)

사도 바울 역시 베드로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개심한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바울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역설했습니다.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22, 24) 어부 시몬은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은 개심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경과도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속주의 노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요한복음 11:43)

해롤드 비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지상에 거하는 모든 영혼은 그가 어디에서 살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그가 부자로 태어났든지 혹은 가난하게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는 첫번째 빛을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보편적인 예지의 빛으로 축복받습니다. 모로나이는 그 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그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

을 분별케 했은즉 내가 너희에게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리라 무엇이든 선한 것으로 인도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해롤드 비리,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어다(1974년), 115쪽; 모로나이서 7:16 참조)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구세주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가 솔트레이크시티의 윌터 스토버입니다. 독일이 고향인 윌터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뒤 미국으로 건너와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함에 따라 윌터는 그의 조국 독일로 돌아가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독일에 있는 교회를 인도하며, 그가 만나고 봉사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축복했습니다. 윌터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금으로 전쟁으로 인해 황폐하게 되었던 아름다운 도시 베를린에 두 개의 예배당을 건 축했습니다. 그는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 회원을 위해 드레스덴에서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런 다음 기차를 전세 내어 전국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함께 모여 성찬을 취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윌터 스토버의 장례식에서 그의 사위인 토마스 시 레덕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 했습니다. “저의 장인 어른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밤에 한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램프는 꺼져 있었다네.
나는 잠시 멈추어 나의 램프에서
불을 빌려 가도록 허락했다네.
얼마 후 큰 폭풍우가 일어,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다네.
바람이 그쳤을 때, 나의 램프는
꺼져 있었다네.

그 낯선 사람은 내게로 돌아왔다네.

그의 램프는 밝게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는 그 귀한 불꽃으로 나의 램프에
불을 붙여 주었다네. (작자 미상)

분명 이 시의 교훈은 단순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신성한 시현이 일어났던 그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1820년 어느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생후 처음으로 그러한 일을 계획했는데, 나의 생애를 통하여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때까지 소리를 내어 기도하려고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서 2:14)

보이지 않는 권세에 의해 큰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요셉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그 빛이 내 머리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16~17) 요셉은 귀를 기울였으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몬슨 형제님, 만일 구세주께서 형제님 앞에 나타나신다면, 형제님은 그분께 어떠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제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분께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태평양의 한 섬에서 어느 날 밤 작은 보트 한 척이 천연적으로 형성된 부두에 조용히 들어와 정박했습니다. 두 폴리네시아인 여자가 보트를 타고 온 멜리 멀리폴라를 마을로 가는 작은 오솔길로 인도했습니다. 두 여자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멀리 폴리는 밤하늘의 달과 별과 같은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던 운명의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 그도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어둠으로 변하더니 낮이 영원한 밤으로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의 회복에 대해 배웠습니다. 멀리 멀리 폴리는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와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사람이 이웃 섬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 긴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사람의 손으로 축복받기를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력을 잃은 그의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나와 그의 갈색 뺨을 적시더니 그의 옷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다 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선 제가 맹인인 줄 아시나이다. 당신

의 종들이 저를 축복했나니, 만일 당신의 뜻이거든 제 시력을 찾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지혜에 따라 제가 빛을 보게 되든지 아니면 평생을 모두 어둠 속에서 지내게 되든지 저는 지금 보고 있고 또한 제 인생에 빛을 준 당신의 복음의 진실함에 대해 영원히 감사드리겠나이다."

그는 일어서더니 축복을 준 우리에게 감사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와서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2)

오늘날은 성전 건축의 시기입니다. 이전의 그 어느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성전이 세워지고 헌납되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인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은 그와 같은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매우 중요한 의식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전은 그곳에 참석하고 성전의 완공을 위해 회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며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도 비출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죽은 자를 위한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 그들의 속박의 사슬은 끊어질 것이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밝은 빛이 그들을 비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 이곳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함에 대해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16년 10월, 6쪽)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분이 되[라]" (디모데전서 4:12)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22)

저는 저의 말씀을 미니 루이스 하스킨스의 다음과 같은 시를 인용하며 마칠까 합니다.

나는 세월의 문에서 있던 남자에게
말했다네.

"내게 빛을 주시오, 그래서 내가 미지의
세계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오."
그가 대답했네.

"어둠속으로 가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으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빛보다 훨씬 낫고 또한

알고 있는 길보다 훨씬 안전할 것이오."
그래서 난 주님의 손을 찾으며 기쁜

마음으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네.
그는 날 고요한 동녘에서 새벽이 밝아 오는
언덕으로 데려 갔다네. ("올해의 문", 제
임즈 돌턴 모리슨 저, 종교에 관한 명시
[1948년], 92쪽)

이 부활절 아침은 물론 언제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우리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분의 이름은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기를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그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감독과 그의 보좌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교회는 하나의 워드 이상으로 큰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제외하고 우리의 구속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 모두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신권 모임에서 핑클리 대관장님은 감독님들에게 존경과 권고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제 옥스 장로님이 설명해 주신 두 증인의 원리에 따라 저는 두 번째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에머리 화이트와 스테이크 고등 평의회에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에머리는 10년 간 시골 지역의 하퍼 워드 감독을 지냈습니다. 그의 아내 루실은 우리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루실의 말에 따르면 어느 봄날 아침 이웃 사람이 찾아와 에머리가 집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루실은 에머리는 밖에서 쟁기로 밭을 갈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은 크게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그날 새벽 밭을 지나가다 에머리가 키우는 말들이 반쯤 갈다 남은 밭고랑에 고삐를 쟁기 위로 축 늘

어뜨린 채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머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은 나중에 다시 밭을 지나가게 될 때 비로소 뭔가 심상찮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으며 말들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장을 올라 밭을 지나 말들에게로 갔습니다. 에머리는 여전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가 루실에게 상황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루실은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놀라지 마세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진 게 틀림없군요. 그래서 감독을 데리러 온 것이구요.”

몇 시간 동안 밭에서 있던 말들은 교회의 감독과 그 곁을 지키는 보좌들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누군가가 모든 감독과 그 보좌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면 그들의 말들은 다 갈지 않은 밭고랑에서 있게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밭을 여러 번 지나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독단의 일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과 그 아내와 가족들의 희생과 봉사가 생각납니다. 감독단은 가족의 도움 없이는 봉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저는 어느 일요일 새벽 그 밭에서 있었습니다. 에머리와 루실이 자녀를 키운 집과 그 뒤에 있는 산기슭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다른 유년대원들과 더불어 화이트 감독이 동반하는 가운데 그 집을 출발했습니다. 언덕으로 하이킹을 갔는데, 에머리가 우리에게 그 과정 하나하나를 가르

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디모데전서 3:2)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잘한다(apt)는 것은 “경향이 있다, 준비나 채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감독만큼 대단한 직분은 없습니다. 부모를 제외하면 감독에게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배우도록 하는 최선의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감독은 부모들에게 그들의 임무에 관해 가르칠 훌륭한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가르칠 시간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감독은 아픈 신권을 지닌 청소년들과 청년들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는 십일조와 헌물을 받아 영수하고 관리하며 보고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찾는 것과 같은 교회의 계속적인 일에 책임을 지며 그 밖의 여러 임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받은 왕국의 율법에 따라 올바른 자의 증언과 보좌관의 조언으로 백성을 심판”(교리와 성약 58:18) 해야 합니다. 감독은 그들이 의식을 받고 직분에서 봉사하기에 합당한가를 심판해야 합니다.

감독은 권고를 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개인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그의 권속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속죄와 부활과 회복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자발적인 봉사로 표현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독이나 그 보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아무런 급료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며 부름을 수행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듯 축복이라는 대가만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원을 하거나 열망을 한다고 해서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은 어디까지나 "예언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 의식을 전파하기 위해... 권능 있는 자의 안수에 의해" (신앙개조 제5조) 성임되고 성별됩니다.

한 형제가 신권의 직분인 감독에 성임된 다음 성별되어 한 와드를 관리하도록 열쇠를 받습니다. 그와 그의 두 보좌가 감독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한 번 성임된 이상 그는 남은 생애 동안 감독인 것입니다. 와드를 관리하는 직에서 해임되고 나면 그의 성임은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와드를 관리하도록 부름 받으면 이전에 성임 받은 것이 다시 발효됩니다. 그리고 해임되면 성임은 다시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감독으로 성임받는 것은 영감으로 인도받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감독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에 의해 분별할 힘이 있습니다.

계시는 모든 감독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중요한 신임장입니다. 감독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각계 각층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경험, 성격, 연령 등이 다양하나 영적으로 인도 받는 권리 면에서는 서로 다를 게 없습니다.

몇 해 전 제 친구 하나가 권위 있는 교수 밑에서 상담학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 큰 대학으로 떠났습니다. 담당 교수는 곧 이 품위 있고 지적인 말일성도 젊은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사 학위에 필요한 과정들을 잘 이수함으로써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말일성도 감독을 자신의 학위 논문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감독의 성임, 분별력 및 영적인 인도를 받을 감독의 권리에 대해 기술하기까지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사 학위 심사 위원회가 그러한 참조 문헌은 어느 학술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말일성도들이 감독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만일 이러한 영적인 요소를 학술 논문에 포함시키면 자신들이 난처해질 것이므로 이것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특히 계시에 관한 모든 참고 문헌을 빼면-학위 논문이 출판될 것이고 명성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학위 논문에는 그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영에 관한 기술은 담겨 있지 않지만, 대신 그의 세상적인 담당 교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감독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배운 것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성보다는 [감독이라는] 망토가 훨씬 더 위대하며, 신권은 곧 인도하는 권세라는 사실을 배웠네."

감독이 되도록 여러 계층에서 부름 받은 평범한 사람들이 과연 영감적인 권고와 수정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유감스럽게도 사람들 중에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감독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끝없이 권고와 위안을 필요로 하며 지속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독은 영감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는 지도자들로부터의 권고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단에서 받는 권고든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든 감독의 권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감독이 주는 부름 또한 거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험악하고 인생살이 역시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 생활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 알 스노우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온으로 집합할 때는

고통과 시련을 생각하지 말아라

시온에서는 위안과 기쁨만이

너를 기다리고 있네

모든 물질, 모든 조직이 하나의 용광로로

모든 나무와...그루터기를 태우도록

계획되었다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워스런 장로가 대회가 시작될 때 고든 비윙클리대관장을 단상으로 맞아하고 있다. 러셀 엠 넬슨 장로가 옆에서 서 있다.

불순물에서 걸러진 금은 정결하나니

시온으로 집합할 때는

성도에게 아무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복지만을 바라볼지니

그러면 늘 위안 받으리

충실한 자들은 험짓

할 일을 하고 있네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들을 모으려

밤낮으로 애쓰고 있네(“시온으로 집합할 때
생각하지 말아라”, 찬송가(1948년판), 21장,
1, 3절)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감독이 곁에
있긴 하지만, 그에게 불필요한 시간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감독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독단에게도 돈을 벌고 자기 가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관장단과 십이사도로 어떻
게 1천 만이 넘는 성도가 있는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 교회는 한 개의 와드보다 크지 않습
니다. 감독에게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는 특

별한 망토를 입고 있고 와드의 관리 대제사
로 지명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대제사들과
장로로 구성되는 회장단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충분한 보조 조직 지도자들과 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기꺼이
봉사할 때 감독과 마찬가지로 축복이라는 대
가를 받습니다.

교회가 1억의 회원을 가질 만큼 성장한다
하더라도(틀림없이 그렇게 되겠지만), 교회
는 여전히 하나의 와드보다 크지 않습니다.
성전을 제외하고 우리의 구축에 필요한 모
든 것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몇몇 와드는 스테이크라는 망토 하에 하
나로 모여 있고, 몇몇 지부는 지방부라는 망
토 하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스테이크
부장단과 평의회가 감독단을 훈련하며, 기타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
을 훈련시킵니다.

전세계에 있는 이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의 산물입니다. 기꺼운 봉사가
놓는 이러한 기적은 구속주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가 인식되었을 때 함께하는

계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
면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가족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와드나 지부에 함
께 모여 있습니다.

각 가족이 영원한 성약 안에 함께 결속되
어 있고 각 개인이 안전하고 행복한지 보살
피는 것은 감독의 임무입니다.

이 체제는 감독이 부모들의 훌륭한 의무
를 인식할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때로 감독을 “와드의 아버지”라고 지칭하
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와드의 어린이들
을 양육하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님을 명심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침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복지에 중요한 책임이 있
다.(교리와 성약 68:25~28 참조) 감독단과
그 밖의 와드 지도자들은 이 의무와 관련해
부모를 지지하지만 그들을 대신하지는 않는
다.”(교회 지침서, 제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1998년), 178쪽)

“교회의 정원회와 보조 조직과 프로그램
및 활동은 가족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것들
은 복음 중심적인 가족 활동에 상충하는 것
이 아니라 이를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 지침서, 제2권, 299쪽)

최근 대관장단은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 서신을 보냈습니다.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기초이며 다른 어떤 조직도 이를 대신하거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 수행에 나가는 기본 기능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필요 사항이나 활동이 꽤나 합당하고 적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부모와 가족만이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하게 지명된 임무를 대신하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관장단 서한, 1999년 2월 11일, 처치 뉴스에서 인용함, 1999년 2월 27일, 3쪽)

와드나 마찬가지로 가족은 크기나 형태가 다릅니다. 세월은 흐르고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자리 매김을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나서 부모가 되고 나중에는 조부모가 됩니다. 와드도 크게 자라면서 나뉩니다. 하나가 있던 곳에 이제는 다른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예질의 깊이나 사회 내의 악행의 정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계획은 변함없이 상존합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때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와드 이상의 크기로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승영을 위해 우리 각자를 준비시키는 활동과 연합과 의식과 성임을 제공합니다. 교회는 하늘에서 만들어진 모형을 따르니, 이는 어떤 인간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늘 평범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의 소떼를 그 고삐를 쟁기 위로 축 늘어뜨린 채 다 갈지 못한 밭고랑에 남겨 둘 것입니다. 여성들과 자녀들은 그들과 함께 봉사하고 계시의 책들에 담긴 진리를 갖고 있는 그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 모든 보화는 물문경에 담겨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이 계시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와드에서 보호받고 있으니, 우리는 가족과 더불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정: 복음 원리

말린 케이 젠슨 장로
철심인 정원회 회장단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데 우리 자신이 그분이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다만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와 같은 임무 지명을 받고 완전히 편안한 마음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저는 이 아름다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현명하신 제 부친은 한때 세계 교회 연단에 서신 분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 그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복음 원리가 무엇이며 힘써 그렇게 하고자 노력중인 복음 원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친의 이러한 견해는 오랫동안 제가 말씀 주제를 신중하게 택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께서 교회의 모든 신회원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세 가지 필요 사항은 친구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

데, 저는 친구로서의 제 행동이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정은 물문이즘의 기본 원리의 하나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99쪽)라고 가르쳤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이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정이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우정에 대한 깊은 동경, 즉 친밀하고 영원한 관계만이 줄 수 있는 만족과 안전을 염원하는 깊은 열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의 우정을 확대해 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봉사와 사랑의 행위 가운데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경전에서 우정의 원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면 우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지녀야 할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촌이 있다면 그것은 우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약간 바꾸어 말하면 "[우정은] 오래 참고 [우정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우정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우정은] 언제나까지든지 떨어지지" (고린도전서 13:4-8) 아닙니다.

인생에서 보람 있는 많은 것들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우정도 종종 가정에서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족 안에서 형제끼리, 그리고 부모에게서 우정을 느낀다면 그들은 가족 밖에서 받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 아내나 제게 있어 가장 만족스러운 인생의 업적은 저화이들이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기적적인 일은 바로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서로 상처를 내며 싸우고 으르다가도 금방 사이가 좋아져서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자녀들로부터 부모와 가장 친한 친구 사이라는 말을 듣는 것 이상으로 부모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정은 또한 구애와 결혼에 있어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우정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무르익었다가 마침내 결혼하게 되는 남녀 사이의 관계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우정 관계가 되는 게 보통입니다. 결혼 생활이 쉽게 파탄되는 오늘날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필멸의 축복과 시련을 경험하면서 조용히 서로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우정을 나누는 것 보다 더 고무적인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발행한 25년 간의 획기적인 결혼 연구 보고서에는, "지속적인 결혼 생활의 요체는 단순한 개념이지만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우정입니다." (존 가트맨, 캐런 에스 피터슨의 기사 "우정은 결혼을 성공으

로 이끌어 줌"에서 인용함, 유 에스 에이 투데이, 1999년 4월 1일, 1D쪽)이라고 써어 있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미주리 주에서의 재난과 별거 동안 아내 엠마에게 쓴 감동적인 편지에서 "사랑스런 엠마, 영원토록 내가 당신과 아이들의 참되고 충실한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오." (다니엘 에이치 러들로우 저, 물론이즘의 백과 사전, 5권[1992년], 3:1345)라는 말로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교회의 영감 받은 조직 또한 우정을 촉진 시킵니다. 가장 어린 아이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정과 사교가 꽃필 수 있는 많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접견, 모임, 공과반에서, 그리고 정원회, 평의회, 회장단 및 기타 여러 관련 집단에서 우리는 친구를 만들고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커틀랜드에서 예언자 학교에 참석하는 장로들의 정해진 인사법은 우리 각자에게 신조가 될 수 있는 우정의 영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이 성약에 따라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변치 않는 결의로써 그대를 동지로 받아들이나니...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

아 사랑의 사슬로 묶여 그대의 친구며 형제가 되느니라." (교리와 성약 88:133)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든 상호 관계는 진정한 우정의 감정을 동반할 때 더욱 즐겁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자신의 학생들의 친구가 되어 주지 않는 복음 교사는 오래도록 영향력을 미칠 효과적인 가르침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고등학교 연감에 써어진 한 줄의 글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사랑하는 세미나리 교사가 '저의 친구가 된 것을 고맙게 여긴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어떤 행정 능력을 가졌든지 간에 감독은 어린이들과 청소년 및 성인들이 자신들이 지닌 영적인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좀 심각한 범범을 고백하려고 감독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감독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복음 길에서 벗어난 자신의 탈선에 대해 감독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을 하다가 많은 설득을 받은 후에 겨우 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감독의 반응이 어땠느냐고 묻자, 그 청년은



감독이 함께 눈물을 흘렸고 주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 감독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서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우정을 쌓고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과 가족과 교회에 대한 강한 서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및 교회 밖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며 우정의 범위를 넓히는 일에 시간과 체력의 제약을 흔히 느낍니다. 최근에 저는 잠시 틈을 내어 집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직접 이러한 진퇴 양난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절친한 옛친구들은 가끔 예고 없이 들를 때만 저와 만나게 됩니다. 재회하여 추억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동안, 저는 어서 우정에 대한 말씀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이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조바심을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줄곧 부끄러움을 느껴 왔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불편한 것, 주는 것, 축복하는 것, 축복 받는 것들을 얼마나 달가워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지 않으면서 부모나 이웃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정은 이 정보화 시대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진리와 삶의 방식을 나누는 가장 훌륭한 기술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우정의 손길을 내밀기를 꺼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일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래 전에 제가 감독으로 봉사할 때입니다. 최근에 개종한 한 가족이 우리가 사는 유타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훌륭한 사람들은 미국 동부에 있을 때 교회에 들어와 따뜻한 우정을 나누며 그곳의 작은 지부에서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와드인 우리 와드로 온 뒤로는 다소 잊혀졌고, 그 가족 가운데 특히 아버지는 교회나 회원들에게 미미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저는 그 아버지가 신권회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

회소를 나와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집안으로 저를 들어오게 하고는 자신이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새 이웃과 잘 지내려고 무진 애를 썼다는 솔직한 얘기를 털어 놓았습니다. 그에 대한 관심이 어땠을지, 그리고 그에 대해 크게 호감을 보인 사람이 없었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한 뒤에 저는 의기 소침한 목소리로 단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대답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감독님.” (저는 여기서 약간 말을 바꾸겠습니다.) “감독님이 어떻게 하셔도 좋지만 제발 제게 친구를 지명해 주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 날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계획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사랑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귄 때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이지 “지명 받아서”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데 우리가 그분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다만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우정으로 아직 우리의 신앙이 뿌리치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개개인의 힘

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환대하되 곧 냉담해졌다는 비난은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활동적인 가족이 모두 활동이 저조한 가족이나 새로운 가족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우정을 보일 때 오는 좋은 결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친구가 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교육을 받았거나 천하거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친구가 될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구세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끝 나의 친구라”(요한복음 15:13~14) 그리스도의 우정을 축복으로 받아 왔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 주기를 간구합니다. 친구가 될 때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을 때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만난 친구들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 간증드리며 그들 모두에 대한 저의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우리가 스스로 우정을 내보일 때 하나님의 사업과 그분의 자녀들의 행복과 진보에 가장 의미 깊은 공헌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유일한 기회

셰리 엘 듀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그분은 우리 모두를 건져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속죄의 권세를 활성화시킬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겻 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에서 구세주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6)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저는 예언자 엘마가 간증한 대로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엘마서 38:9) 것을 간증합니다.

구세주의 속죄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포괄적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22)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나아오도록 주님이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녀 노소 곧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기혼자나 미혼자나, 포르투갈인이거나 중국인이거나 상관없이 그들을 위한 규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에 영적인 자격 요건과 보상은 만민에게 보편적인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문

제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함이라.” (니파이서서 26:33) 주님의 동기는 루시퍼의 것과는 확연한 대조를 보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를 실재 존재보다도 못한 존재로 느끼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결케 된 사람을 경멸하며, 우리의 시야를 흐리고, 우리들이 하늘 본향으로 되돌아가도록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게끔 미혹하는 일을 즐겨 합니다.

브리검 영 대학에 다니던 시절, 저는 집으로 향할 때 행로에 머무는 것에 대한 교훈을 약간 배웠습니다. 어느 성탄절 이브에 오빠와 함께 차를 몰고 캔자스에 있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가는 길에 큰 눈보라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꺼내 들고 눈보라를 피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는 미지의 세계로 향했습니다. 독창적인 우리의 방법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길은 낮설었고 눈보라도 여전했습니다. 늦은 밤에 눈이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인가가 드문 고속 도로 위를 영금영금 가다가 설상가상으로 낡은 포드는 거어이 멈춰 버렸습니다.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도 없었으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도 없었습니다.

결국 차를 얻어 타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도시로 갔습니다. 집과는 아직도 멀리 떨어진 콜로라도 주의 래스트 캔스에 고립되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밤중에 우리를 구하고자 달려오셨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에 우리는 모두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풀지도 못할 문제를 만들어 놓고서 그 때문에 움짱달싹할 수 없었던 래스트 캔스에서의 성탄절 이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제 아버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곤경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영원한 하늘 집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모두는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외로움과 비탄, 절망과 환멸, 순진한 실수와 뻔뻔스러운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조 말입니다.

어디서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은사로써 하나님께서는 더욱 복된 길을 예비하셨으니” (이더서 12:11) 구세주는 최후의 기회가 아닙니다. 그분은 유일한 기회입니다. 자신 상실을 극복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약점을 잠재우며 원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구원과 승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평과 행복을 얻으며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육으로 난 인간은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좁고 곧은 길에서 미혹해 즉시 희생물을 버리는 사탄에게 필연적으로 굴복하고 맙니다. 그러나 구세주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늘 본향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리하이 가족은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시험하고 성결케 하기 위해 마련된 힘겨운 광야 체험을 견뎌 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전 본향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은 리하이 가족이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여행에서 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니파이에게 주었던 주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너희의 길을 준비할 것임이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요, 너희가 도착하고 나서 나 주가 너희를 멸망에서 구하여 내었음을 알리라.” (니파이일서 17:13~14)

주님은 길이시며 이 필멸의 삶을 성공적

으로 뚫고 나가도록 하는 유일한 기회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속죄는, 우리 자신의 실수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지만 여전히 고통을 느껴야 하는 시련에 이르기까지, 인생에서의 모든 어려움에 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권세와 평안과 빛과 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놀린 자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14 참조) 곤핍한 자에게 힘을 주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며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사야 40:29; 야곱서 2:8; 이더서 12:27 참조) 우리의 고통과 병고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의 방법을 없애시고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반석 위에 삶을 짓는다면 악마가 우리를 이길 어떠한 힘도 갖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리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에 견줄 만한 필멸의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헌신이나 권세나 사랑에 있어서도 누구도 그분을 필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책임은 속죄의 권세에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여 걷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좌절과 실패를 부르며 현세와 영원을 위해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은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선물이 들어왔으나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교리와 성약 88:33) 오빠와 제가 움푹달랴할 수 없었을 때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리석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대변자이시며 "인간의 약점을 아시며 유혹에 빠진 자를 건져 낼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주" (교리와 성약 62:1)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 모두를 건져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속죄의 권세를 활성화시킬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신성한 의식에 참여하고 성약을 지키며, 금식과 기도와 경전과 성전을 통해 그분을 찾음으로써 속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 [1997년], 186쪽)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마음에 평안을 느끼며 양심에 꺼릴 것이 전혀 없는 축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자기 나라에서 우리 교회의 자매들이 행하는 봉사에 흥미를 느낀 동유럽의 두 기자들은 얼마 전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 만나자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조직은 설립 초창기부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찾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호부조회 모임 기록, 1842년 6월 9일) 기자들이 자기 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고 설명하며, 정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그러한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느냐고 물어 왔을 때, 상호부조회에서 우리는 복음 교리를 공부하는데 복음은 우리가 역경에 처해 있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자들 중에 한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구요?" 저는 그녀가 평안을 찾을 곳을 몰라 힘겨워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질문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불확실성이 만연하는 속에서 평안을, 냉소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오랜 습관을 떨쳐 버리고 변화하여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보이는 특성인 미덕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세상에서 고결함과 순결함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의 속죄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짐을 홀로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이 이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가족을 강화시키는 권세는 없습니다.



사랑과 봉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트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주관하신다면 결혼이 살아 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가족을 주관하시도록 한다면 가족이 살아날 것입니다.”(대회 보고, 1979년 10월, 93쪽) 우리가 구세주를 믿는 신앙을 갖고 그분의 은사를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우리 각자를 위해 그분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살아오면서 제 자신의 힘보다 훨씬 큰 힘과 지혜에 의지할 수 없었더라면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압력과 낙담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암몬의 말씀으로 제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라 누가 감히 주께 너무 영광드린다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배푸신 크신 권능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지나치게 칭송할 수 있다 하겠느냐? 보라…내가 느끼는 것 중 극히 작은 것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앨마서 26:16)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를 맞이하는 새벽녘에 루시퍼가 하늘 분향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여행을 위협하고, 우리를 구세주의 속죄 권세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위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언자들이 증거한 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새롭게 정진하도록 합시다.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명을 메고 그분의 속죄의 권세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분명히 일어나 세상을 흔듭시다.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니파이일서 17:40 참조) “나는 너희 앞에 앞서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분은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부부 선교사님들이…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은퇴하셔서 남은 세월을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재미있고 역동적인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훌륭한 날이고, 서는 현재를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며,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예전만큼 시력이 좋지 않지만, 저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물을 보는 시각이 점점 나아지고 시간이 가면서 더 큰 그림을 좀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저는 저쪽에 앉아 있는 헤이트 자매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빌어 줍니다. 올해로 우리 내외는 결혼 69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음은, 그 동안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와 저 자신과 헤이트 자매가 함께 해온 제 생활에 교회가 미친 영향에 대한 감사로 가득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른 아들 브루스와 로버트, 그리고 딸 카렌과 그 아이들의 가족에 대한 감사도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마음의 눈으로 이 곳 유타는 물론이고 캘리포니아, 텍사스, 노스 캐롤라이나, 보스턴 등지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을 증손자들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기 저 나이 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야. 좀 늙어 보이시네, 그렇지? 어쨌든 우리 할아버지서.” 그들 모두에게 저는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나이가 들어 제가 살아온 세상과 삶을 뒤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과 봉사야말로 큰 결실임을 깨닫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임무 수행차 비행기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는 다과나 음료를 들겠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저는 세븐업이나 레몬 주스를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튜어디스는 주스를 갖다 주다가 제 타이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편인데, 우리는 이것을 여러 해 전 스코틀랜드 선교부에서 사용했었습니다. 그 편에는 영국 왕가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장의 중심에 런던 성전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타이편에는 문장과 더불어 성전이 있다는 뜻입니다. 스튜어디스는 세븐업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 특이한 타이 편이네요. 그 위에 있는 게 무엇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성전입니다.”

그랬더니 젊은 아가씨가 반문했습니다. “성전이라고요? 무슨 성전을 말하시는 거죠?”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윽고 저는 아가씨가 약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녀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 말해 준 다음 관심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게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시면, 젊은이 몇 명을 택으로 보내 아가씨를 찾아 뵙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과 다른 성전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겁니다.”

스튜어디스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더니 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곧 다시 와 페니 헤리만이라는 이름과 로스엔젤레스 주소를 적은 작은 종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저는 선교부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들이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선교사들을 보내십시오. 선교부장님도 그들과 함께 가셔서 이 아가씨를 방문하시면 좋

겠습니다.” 저는 그 스튜어디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몇 명이 아가씨를 찾아 뵙게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만일 아가씨가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아가씨는 인생에서 다가올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좀 지난 어느 날 제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걸려 왔는데 아리따운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페니 헤리만인데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물론이죠.”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저와 제 약혼자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게 주선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물론 그래야죠.”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제가 그 아가씨를 그 동안 그녀가 만난 젊은이에게 인봉하면서, 아가씨의 어머니가 솔트레이크 템플 스퀘어 주위를 거닐면서 성전에서 자신의 딸에게 무슨 일이 행해지는

것인지 의아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봉사는 우리 생활 가운데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후에 구세주께서 나타내신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분이 베드로와 몇몇 어부들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신 사건입니다. 그날은 분명 아주 이른 아침이었고, 구세주는 그들에게 일이 잘되어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으며, 그분은 그물을 반대 방향으로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이어 요한이 아름답게 기록한 바대로 그들이 그물을 잡아당기자 그곳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구세주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요한의 설명에 의하면 거기에는 불도 있었으며 그들은 물고기와 벌집 혹은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세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한복음 21:15; 1~17절 참조) 그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여전히 그물 안에서 뛰어오르고 있는 고기들을 가리켰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가져다 돈을 받고 이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세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구세주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15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세주는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같은 것을 두 번 물으시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세주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16절)

계속해서 세 번째로 그분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내 양을 먹이라”(17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

고든 비힐클리 대관장



리는 오늘 부활과 죽음의 사슬을 끊으신 구세주에 관해 경축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토록 소중한 것을 구세주께 보여 드리기 위한 노력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과 봉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저는 애리조나 주 피닉스 지역의 한 스테이크 부장님에게서 흥미로운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번 그곳을 찾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노년의 모임을 추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피한객들"에게 말씀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은 겨울이면 미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피한객들"이 애리조나를 찾아와 몇 달을 그곳에서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은퇴한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갖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현재 이곳 여러 와드에 계십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피한객이라면 여러분은 애리조나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또 다른 곳 가서 시간을 보내는 등 원하는 것을 어느 만큼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는 지금, 전세계의 지부들과 스테이크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부부 선교사를 위한 선교 프로그램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켄 비슬리 형제가 몽고에서 정부를 도와 고등 교육 기구를 세워 사람들에게 교과 과정과 행정에 대해 가르쳐 교회를 위한 문을 열기 시작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리 콕스 부장님과 그 아내 조이스 콕스 자매님의 이야기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분들은 그 곳으로 가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고 콕스 형제님은 후일 선교부장이 되어 부부가 함께 훌륭한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인 존 베넷 형제님과 아내 캐롤린이 몽고를 찾았습니다. 처음 이 분들은 캐나다나 제도로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이 분들에게 와달라고 초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몽고로 가라는 부름장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저는 몽고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그들이 접촉한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그들이 베푼 봉사에 대한 글을 나중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지에서 귀환 후 형제 중 하나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을 출가시켜 피로연을 가졌는데, "그래도 우리는 전화로 그들과 연락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부부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1300명의 회원들과 9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저는 또한 유타 주 오클리 출신의 울스텐 홈 형제님과 그 아내 카렌 울스텐 홈 자매님이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활기에 찬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 호주의 퍼스로 보내졌습니다. 현재는 퍼스에서 북쪽으로 480킬로미터 떨어진 한 작은 지부에 계시면서 교회의 성장을 지켜보고, 또 그의 일부분이 되면서 자신들의 생활에 찾아 든 활력에 대해 기록하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은퇴를 하셔서 남은 세월을 무엇을 하고 보낼지 모르겠다면, 재미있고 역동적인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의 은퇴한 의사 딸매지 닐슨과 그 아내를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남미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선교 사업을 하면서 그곳 성도들의 의료 문제들을 도왔을 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의료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 후 한 동안 집에 머물며 태어난 손자들을 맞이하고 떠나 보내는 일을 하다가, 다시 하와이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형제님은 빙문자 센터 사무장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두 분이 이곳에서 선교 사업을 함께하면서 받으신 위대한 기회와 경험과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형제님을 만나 이렇게 말

했습니다. "이제 여생을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시죠?"

그러자 그분은 "글쎄요, 벌써 72세인 걸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72세이시라고요? 저는 거기다 20세가 더 많습니. 형제님, 저는 지난 20년 간 제게 무슨 일이 있었나를 생각합니다. 형제님이 세상에 나가셔서 여전히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참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이 사업의 진실됨에 관해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마음과 양심에 다가오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감지하며, 우리 모두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기를 기원하며 제 사랑과 이 사업의 참됨에 관한 저의 간증을 드리며,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요셉스미스 기념관 로비에 있는 애언자 요셉스미스의 동상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라는 단순한 말은 모든 문학 작품에서 가장 심오한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 말은 다시 살아나는 것에 관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많은 축복을 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축복받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나 환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봉사와 헌신, 충직함 모두가 제 신앙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복음은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아낌없이 허락합니다. 여러분은 이 넓은 세상 곳곳에서 아버지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은퇴한 어떤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은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적이 있으며, 지금은 부인과 함께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새로운 성전을 관리하는 부름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감정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분과 그의 부인은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떠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다른 부름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손자녀들을 보고 싶어할까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떠날 것이며 또 충실하게 봉사할 것입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어떤 안락함을 뒤로하고라도 어떤 부름에든 응하는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이 보여 주는 헌신과 충실함에 대해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함을 느끼는 모든 것 중에서도 이 부활절 아침에 저는 저의 주님, 저의 구주께서 주신 은사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로서 저희는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하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주지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욥은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기 14:14)라고 물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락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거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른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생애의 종말보다도 더욱 확실하고, 더욱 보편적이며, 더욱 마지막인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파리에 있는 나폴레옹의 묘소와 모스크바에 있는 레닌의 묘소, 그리고 그 밖에 지상에 살았던 위대한 많은 지도자들의 묘지에 가보았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그들은 군대를 지휘했으며, 전능한 권세로 통치했으며, 그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잘 꾸며진 여러 공동 묘지를 경건한 마음으로 걸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2차 세계 대전 때 자신의 생명을 바친 1만 7천 명의 미국인들이 안치되어 있고, 끔찍했던 태평양 전투에서 전사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한 다른 3만 5천 명을 추모하고 있는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군인 공동 묘지에 서서 조용히 생각에 잠혀 명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버마의 랑군 교외에 있는 영국인 공동 묘지를 경건하게 거닐며 영국 제도의 마을과 촌락, 그리고 대도시에서 그 곳으로 와서 자신들의 생명을 이 뜨겁고 먼 곳에서 바쳤던 수백 명의 젊은이들의 이름을 잘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장소에 있는 오래된 공동 묘지를 거닐며 한때는 생기 있고 행복했을 사람들의 삶과, 창조적이고 훌륭했을 사람들의 삶, 그들이 살았던 세상에 많은 것을 준 사람들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무덤이라는 망각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우리 이전에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남겨둔 채 고요한 죽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여행자도 돌아오지 못하는 미지의 나라를 향하여”(렘랴, 3막, 1장, 79~80행) 그들의 길을 떠났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분은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슬을 끊으신 것입니다. 그분 또한 죽어야 했으나 묻힌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고린도전서 15:20) 되셨으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부활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린도전서 15:55)라고 했습니다.

2주 전에 저는 예수께서 2천 년 전에 걸으셨던 그 위대한 고대 도시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서 옛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예수께서 미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이셨던 그분께서는 필멸의 생을 시작하기 위해 아버지의 해의 왕국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했으며 박사들이 와서 선물을 바쳤습니다.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누가복음 2:52)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열두 살 때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성전에서 학식 있는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마리아가 그분에게 책망하자, 그분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누가복음 2:49)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미래에 펼칠 성역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역은 요단강에서 그분의 사촌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물에서 일어서실 때 성신이 비둘기의 형태로 임하였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복음 3:17)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선언은 그분의 신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40일을 금식하셨고 그분이 부여받은 신성한 사명을 앗아 가려는 악마의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그 대적의 꾀에 그분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마태복음 4:7)고 대답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다시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팔레스타인의 먼지 가득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자신의 소유라고 할 만한 집도, 머리를 베고 누울 곳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평화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관용과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걸은까지도 가지게 하며”(마태복음 5:40) 그분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던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소경이 앞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앉은뱅이가 걷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셨으며, 그들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은 분명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몇은 그분을 따랐으나 대부분 미워하였습니다. 그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의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모반을 꾸몄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집에서 환전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파멸시키려고 계획하는 사람들과 결탁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사도행전 10:38) 행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분을 영원히 기억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그분을 이 지상에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과 유명한 말과 행동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하게 자리매김 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분은 온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전능하신 분의 아들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더 위대한 일들의 전주일 뿐이었습니다. 그 일들은 이상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배반당하여 체포되고 사형 선고로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커다란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위에 그는 산 채로 못박혔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분의 생명은 천천히 꺼져 갔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분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떠나자 땅이 요동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엄숙하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태복음 27:54)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시신에 옷을



입히고 그것을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제공한 새로운 무덤에 갖다 놓았습니다. 무덤의 입구에는 커다란 돌을 놓아 봉인하였으며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분의 친구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했으며 자신의 신성을 증거할 증인으로 불렀던 사도들도 울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울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삼일 만에 일어나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셔서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낙담과 절망과 비탄의 처참한 느낌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이 굴러 내려져 있고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묘지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으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 삼일에 다시 살아야 하리라"(누가복음 24:5~7)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으니라"라는 단순한 말은 모든 문학 작품에서 가장 심오한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 말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관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이제껏 지상에 태어난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이 직면하는 질문, 즉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에 관한 응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에서 실재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실재하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에게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던 것



크라이크 제션 형제가 대회 동안 태바네를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다.

입니다. 얼마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께서 고통받던 시간에 틀림없이 우셨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껴안았을 때의 재회의 기쁨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분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먹었습니다. 그분은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던 사도들을 만나 가르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주님은 도마에게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 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도 놀란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한복음 20:28) 그분은 한 번에 500명과 이야기 하셨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기록한 책의 진실성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을 거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이 사실임을 단언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며 그들의 온 생애 동안 이러한 사건들에 관해 간증했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명확하며, 그들의 간증은 확신에 찬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수백 만에 이르는 남성과 여성들이 그 같은 간증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성신의 권세로 그들에게 온 진리를 확신하며 살다가 죽었으며, 또한 그들은 진실로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타당성에 관해 이 만큼 광범위하게 검증을 거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동반자인 물몬경으로 이 책은 그분께

서 구대륙의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신대륙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회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한복음 10:16)라고 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이 서반구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의 그룹을 통하여 하강하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다시 들리며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니파이삼서 11:7)고 엄숙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땅에서 다시 그분의 이름과 신성을 증거할 십이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팔레스타인에서 하셨던 것처럼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축복하셨으며,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려 노력했기 때문에 그 땅에는 200년 동안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만일 이 모든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이 경륜의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확실하고도 분명하며 솔직한 간증이 있습니다. 소년이었던 그는 숲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며 빛과 이해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나타나 요셉의 위 공중에서 계셨는데 그분들의 찬란함과 영광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중 한 분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서 2: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셉이 그후 다른 때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의 충만함을 받았다.라..."

"또 이 어린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76:20, 22)

이 훌륭한 부활절 아침에 전능하신 이의 종으로서, 그분의 위대한 대업에 종사하는 예언자와 사도로서, 우리는 음성을 높여 불멸의 구세주에 대한 증거와 간증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고를 지고 슬픔을" (이사야 53:4) 당하셨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사야 53:4~5) 입었습니다.

영원한 불사 불멸의 생에서 그분은 바위 동굴 무덤에서 삼일 만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신성한 아들이심을 거듭 확인하셨습니다. 전능자께 감사 드립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아들께서 죽음의 속박을 끊으시고 모든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바울이 선언하였듯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 (고린도전서 15:22) 얻을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의 구속 회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무덤으로부터 일어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사 불멸뿐 아니라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저는 이 부활절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증거와 간증을 드립니다. 엄숙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미치는 권세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구원의 교리를 간결하게 가르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창 세 이전부터 빛과 어둠, 선과 악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전쟁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사상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비참하게 만들려는 파괴자의 세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주위를 맴도는 세력에 대하여 모든 선한 힘을 하나로 모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최선의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도 간구했습니다. 옛날에 한 지혜로운 예언자가 또 다른 세력에 대해 권고해

준 적이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경시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마는 잔인한 적들에 의해 파멸될 지경에 놓인 한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위험 앞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벽을 쌓거나 병기를 제조하거나 군대를 훈련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바랄 수 있었던 승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마는 우선 한 가지 일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당한 일을 하게 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 그때까지 그들이 겪은 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나 그 밖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침을 알았으니, 이로써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느니라." (엘마서 31:5)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예언자들이 가르친 교리입니다.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권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 영적인 것들, 즉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도 합니다. 구세



대회가 시작되기 전 로렌 시던 장로와 본 제이 패더스톤 장로의 모습

주는 그분께 선교사로 봉사해 주었으면 하는 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동안, 교리와 성약 18편을 통해 눈과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러한 권세의 근원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제 말씀을 들으면서 가족 가운데 선교 사업 준비를 망설이고 있는 젊은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말씀에 주님이 두 종을 가르치신 방법과 여러분이 아끼는 젊은이에게 그분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여, 나는 계명으로서 너와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이르노라. 보라, 나는 온 세상에 사는 만민에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라. 나의 사도 바울에게 이른 것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가 부름 받은 것과 똑같은 부르심으로 너희가 부름 받았음이니라.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18:9~10)

그분은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는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자신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언급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교리의 기초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주 너희 구속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러므로 만민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시려고 만민의 고통을 맛보셨고, 회개하면 만민을 자기에게 이끌어 오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니라.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1~13)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자신의 사명에 관한 교리를 알려 주시면서 그분은 이러한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교리와 성약 18:14)

끝으로 그분은 그들이 눈을 뜨고 장막 저편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묘사되어 있는 앞으로의 세계로 그들과 우리를 안내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누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가치가 있는 교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것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16)

이 몇 구절을 통해 주님은 그분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진리의 영에 의해 밝혀지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보도록 눈을 뜨게 하는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눈과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교리를 가르치는 자세와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성신이 그것의 참됨을 확인해 줄 때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작고 세미한 음성의 속삭임을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겸손함과 우리를 향한 구세주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돕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나, 아무튼 그들에게 믿으려는 소망을 갖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교리의 또 다른 권세로부터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길을 준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저 교리에 관한 말씀을 듣기만 해도 신앙의 씨앗이 마음에 심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작은 씨앗 하나가 영이 일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취하고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우리가 가르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여 영이 임하게 합니다.

성신의 권세가 필요한 이상, 우리는 참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성신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신의 확인은 개인적 생각이나 해석을 피함으로써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영향을 주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배운 교리를 목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롭거나 선정적인 것을 시도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부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중하게 참된 교리를 가르칠 때 비로소 성신은 우리의 동반자로 임합니다.

거짓 교리에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간결하게 가르치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안전은 바로 그 같은 간결함에서 생겨나며, 그로 인해 잃는 것은 거의 없

습니다. 구세주께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압니다. 그분의 명에 귀기울이십시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68:25)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구원의 교리를 간결하게 가르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에게는 최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시기는 아직 사탄의 유혹에 물들지 않은 때인 어린 시절,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하느라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지기 전의 시기가 가장 좋습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를 모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의 노력에 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리의 권세가 자녀의 생활에 심어지는 때 시간 동안,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메시지나 형상은 그 몇 백 배 시간에 해당하는 크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쳐서 교리를 가르칠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아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자녀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설교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시간도 별로 없고 기회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교리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자녀들이 자신에게 분명히 닥쳐올 신앙에 대한 공격을 막아 낼 수 있을까 자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말을 자녀들이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곧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월은 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교리를 가르치지만 그 중 일부는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슬픔만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관한 경전의 기록 속에는 희망이 있

습니다. 엘마 이세와 이노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위기의 순간에 부친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이들을 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룩한 교리도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자신이 교리를 가르칠 만큼 잘 아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교리를 가르쳐 보려 했다면, 왜 결실이 그다지 좋지 않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교육도 거의 못 받았고 새로운 개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한 자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분이 가르친 것의 결과가 아직 다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저는 공들인 교육의 결실을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메리 보멜리는 제 증조모이신데 한 번도 뵈는 적이 없습니다. 손녀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메리 할머니는 183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분이 스물 네 살이었을 때 선교사들이 스위스에 있는 그분의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베를 짜 옷을 만들어 팔아 작은 농장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

도의 회복된 복음에 관한 교리를 전해 들은 그분의 가족은 이것이 참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침례도 받았습니다. 메리 할머니의 형제들은 여비도 없는 상태에서 선교사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가족은 미국으로 가서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미국으로 갈 만큼 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베를 짜면 충분히 혼자 살며,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뒤에 남겠다고 자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베를린으로 가서 어느 부인 댁에 고용되어 그 가족의 옷을 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하인 방에서 지내면서 그 집에 베를을 놓으셨습니다.

당시 베를린에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복음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여주인과 그 친구들은 베를 주변에 모여 이 스위스 아가씨의 가르침을 들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일, 천사들의 방문, 물문경 등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엘마의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부활의 교리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베짜기와 더불어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어려서 죽는 어린





아이가 많았습니다. 베들 주위에 모였던 여성들도 자녀를 잃었는데, 그 중에는 자녀를 여럿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그 어린 자녀들은 해의 왕국의 상속자이며 그들은 자녀와 구세주 및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치자, 그 어머니들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우셨습니다. 그 흘러내린 눈물이 할머니가 짜신 옷을 적셨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자신이 가르친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일렀지만, 그들은 참지 못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쁨의 교리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이었습니. 그들은 할머니를 감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에 자신이 만나 볼 판사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있는지, 또한 그가 좋은 아버지이면서 훌륭한 남편인지도 물어 보았습니다. 경찰관은 웃으면서 담당 판사는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할머니는 연필과 종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판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의 세계와 이 판사가 최후 심판을 맞기에 앞서서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를 적으셨습니다. 그 분은 판사에게 회개할 것이 많으며 결국 그것이 그의 가족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역시 큰 슬픔을 갖게 될 것이라고 쓰셨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편지를 쓰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경관에게 편지를 갖다 주라고 부탁했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판사가 그 경관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쓰신 편지가 그 분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럼으로써 법을 어겼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관은 곧 할머니가 계신 감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든 혐의가 풀렸으니 할머니가 편지에 쓰신 조건에 따라 어디든 가고 싶은 데로 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교리에 대한 할머니의 가르침은 그 분을 감옥에 갇히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할머니께서 판사에게 회개의 교리를 전한 것이 그 분을 감옥 밖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테레사 스노우 힐, *헨리 아이어링과 메리 보멜리의 삶과 시대*(1997년) 참조)

메리 보멜리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것은 베들 주위에 모여들었던 여인들과 판사뿐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인 저의 아버지는 죽음에 임박해서 여러날 밤에 걸쳐 내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곧

있을 기쁜 재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이 그렇듯 확신을 갖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천국이라는 장소에서 환한 햇빛과 미소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은 제가 아버지에게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여쭙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부드러운 소리로 웃으시더니, "없단다. 할. 그때 그때 회개를 해왔거든."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메리 할머니가 그 여인들에게 가르친 천국에 관한 교리는 손자에게도 진실로 와 닿았습니다. 또한 판사에게 한 경고는 그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분의 말씀의 기록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집안의 후손들에게까지 참된 교리를 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분은 새로운 개종자일지라도 가르치기에 충분할 만큼 교리를 알며 그 분의 후손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그들은 선악간의 싸움 가운데 강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도 서로 교리를 가르칠 것이니, 이는 여러분이 그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교리에는 영적인 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것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교리는 기쁨과 평안을 가져 오면서 입을 열게 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베를린의 그 여인들과 같이 여러분의 후손도 복음을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와 우리 가족이 회복된 복음을 충만하게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대한 구세주의 사랑의 사명과 그분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독생자이며 우리 구세주 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식들에 순종함으로써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권의 열쇠는 회복되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그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영감에 찬 교회 복지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구세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삶을 회고하다 보면, 그분께 도움을 청한 여러 사람들 모습이 생깁니다. 저는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 견지 못하는 사람이나 무덤으로 운구되는 외아들의 시신을 따라가며 눈물로 뺨을 적시는 과부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굶주린 자의 초점 잃은 눈, 병자의 떨리는 손, 정죄 받은 사람의 애원하는 목소리, 버림 받은 자의 슬픈 눈도 그려집니다. 이들 모두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지위도 없는 한 외로운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한없는 동정심으로 이 모두를 바라보고 계심을 봅니다. 그분은 거룩한 손길로 낙담한 자에게 위로를, 병자에게 치유를, 죄인에

게 해방을 안겨 주십니다. 죽은 자가 말씀 한마디로 들것에서 일어나고, 과부인 어머니는 살아난 아들을 포옹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자비와 친절의 놀라운 행위를 구세주의 두드러진 특성이라 생각합니다. 그중 일부는 잘 알려져 있고 어떤 것들은 조용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억압받고, 삶에 지치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는 사랑과 동정의 화신이셨습니다. 진정 그분의 이름은 이러한 자비로운 행동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 성역을 베푸신 지도 2천 년이 지났지만, 그분의 사랑 어린 모범과 가르침은 하나의 백성이자, 하나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그 회원들은 영감에 찬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고통을 덜어 주고 자립심을 북돋는 가운데 그분의 모범을 닦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 복지의 영역

우리 교회 복지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교회 본부를 찾아와 수혜자는 의타심을 그리고 수여자는 괴로움을 갖지 않게 하는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돕고 있는지 직접 살펴봅니다. 어떤 나라 대통령께서는 복지 광장을 방문하신 뒤 그 날의 나머지 약속을 모두 취소해 버리셨습니

다. “다른 어떤 일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머물며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습니다.”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복지 프로그램은 증대해 가는 교회의 여러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만큼 발전했습니다. 현재 북미 내의 교회 농장 80개소에서는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80개의 통조림 공장이 생계에 필수적인 이 식량을 보존하고 포장합니다. 100개도 넘는 감독의 창고는 1만 명 이상의 감독님과 지부장님들이 1만 와드나 지부 내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도와드리는 임무를 수행할 때 이들을 돕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0개의 데저렛 인더스트리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실시합니다. 세계적으로 총 160곳의 직업 센터가 매년 7만 8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65개의 말일성도 사회 봉사 사무실에서는 자녀를 입양하는 부부를 돕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줍니다.

저는 이 현대의 복지 활동을 선도하도록 주께서 새우신 훌륭한 지도자들, 즉 허버 제이 그랜트, 제이 루벤 클라크, 해롤드 비리, 매리온 지 롬니, 헨리 디 모일, 그리고 교회 관리 감독으로 봉사하신 제 부친 조셉 엘 워슬린 같은 분들께서 지금의 복지 프로그램에 아주 만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말일성도들과 늘 함께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구원하여 이 곳에서 번성하고 행복하게 할 힘이 없는 종교는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해 다음 세상에서 승영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몰몬이즘에 대한 진리”, 아우트 웨스트 매거진, 1905년 9월호, 242쪽)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바쳐 병든 자를 돌보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남의 힘으로 사는 이들에게 자립하도록 가르칠 때, 우리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상 영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그러나 이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니, 보라,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부한 자는 낮아지게 하는 것이 것이 곧 나 주가 나의 성도를 부양하기로 한 방법이니라." (교리와 성약 104:15~16) 주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게 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높아지는 것은 일을 하여 일시적 도움을 받고, 올바른 원리를 배우며, 그들 스스로 가난에서 자립으로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자가 낮아지는 것은 자신을 낮춰 어려운 이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후하게 나누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자립하고 최선을 다해

자신을 부양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회원들과 그 가족이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족할 수 없을 때는, 교회가 도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감독은 "특별한 필요 사항이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편부모, 노인들, 장애인, 고아, 남편 잃고 혼자 된 분 등을" 돌볼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교회 지침서 제2권: 스테이크 부장단 및 감독단(1998년), 14쪽 참조)

저는 자신에게 있는 자원을 활용해 도움을 청한 사람을 도와준 어느 감독님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술과 마약 중독 때문에 일도 가정도 가족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년 간에 걸친 노숙자 생활은 그를 비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는 얼굴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감독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워드 복지 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 형제가 그의 망가진 앞니를 바꿔 줄 만한 치과 의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감독이 창고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면 건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에게는 날마다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술과 마약 중독을 이겨낼 힘을 찾게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여러 건의가 나오자 감독님은 관련된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합심해서 그를 도움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안 가 감독님은 상황이 나아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권 형제들이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인정이 많은 한 치과 의사는 망가진 치아를 바꿔 주었습니다. 감독의 창고의 식량 덕에 그는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어느 충실한 노부부는 특별 가정복을 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와 함께하면서 결심을 밀고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선한 형제님은 기존 원리에 따르면서, 워드 내의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의 삶은 차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포 자기와 비참했던 모습 대신 기쁨과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그는 힘들긴 했지만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활동 회원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이고 비참한 생활이 희망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교회와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

교회는 회원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다음 훈계를 따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만을 축복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전세계로 관심을 돌려 온 인류를 축복합니다." (교회 정서, 4:227) 예언자는 회원들에게 "그가 교회에 있든 혹은 다른 곳에 있든 아니면 교회가 아닌 그 어디에 있든, 주린 자는 먹이고, 벗

은 자는 입히며, 과부에게는 필요한 것을 주고, 고이는 눈물을 닦아 주며, 고통받는 자는 위로하라.”(타임즈 앤드 시즌스, 1842년 3월 15일, 732쪽)고 가르쳤습니다.

2만 7천 교회는 10년 넘게 2만 7천 톤의 의복과 1만 6천 톤의 식량, 그리고 3천 톤 상당의 의약품과 교육 용품 및 장비를 보내어 전세계 146개국에 있는 수백만의 하나님 자녀들의 고통을 덜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우리 교회 회원이십니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우시죠?”라는 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과 11월에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를 강타한 태풍 미치의 피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괴력을 지닌 미치는 집을 물에 잠기게 하고 산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사망자도 1만 명을 넘었고, 2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태풍은 가족을 파손하고 거리를 온통 진흙으로 덮어 시멘트처럼 굳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거의 매를 같이해 식량, 의복, 약품, 모포 같은 생필품을 보내 교회 회원들과 그 외 다른 종교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구호함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교회 회원들이 수백 명씩 와서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고 공급품들을 상자에 모으기도 했습니다. 각 상자에 든 물품으로 한 가족이 1 주일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대관장이자 본부 복지 위원회 회장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고통받고 있는 중미 지역 사람들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분은 이 엄청난 손실을 견뎌 낸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과 도움을 주라는 속삭임을 들으셨습니다. 예언자의 방문은 수천 명의 영을 고취시켜 주었고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교회에] 자원이 있는 한, “우리는 역경의 시기에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온두라스에서 행한 말씀, 1998년 11월 28일; “힝클리 대관장: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처치 뉴스, 1998년 11월 28일, 3, 6~7쪽)라고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그 분이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이심을 간증합니다. 저는 또한 온 마음을 다해 그 분을 지지합니다.

재난과 재앙의 시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 말고도 약 1천 3백 명의 회원이 여러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타 주 아이빈스에 사는 데이비드와 도비 글린스 부부는 현재 아프리카 가나에 살면서 고용 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즈니스와 사무 관리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크 커틀러 형제님은 캘리포니아 주 클레이튼 출신의 은퇴한 외과 의사입니다. 그분과 부인 보니는 베트남에서 봉사중입니다. 커틀러 형제님은 지역 내과 의사들을 위해 자문을 하고 강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커틀러 자매님은 병원 의료진에게 영어와 의료 기술을 가르치십니다.

복지와 회원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외에 가족과 각 개인 회원들은 자기 자신의 자립 수준도 검토해보곤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돈을 잘 관리하나?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가? 불필요한 빛은 지지 않

려 하는가? ‘충분한 식량과 의복,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소한 1년치 연료를 비축하라’(대관장단 서한, 1988년 6월 24일)는 십이사도들의 권고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가? 또한 일하라고 가르치는가? 자녀들이 신성한 십일조의 법을 이해하는가? 우리는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으며 적절한 일자리가 있는가?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하여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운가?”

만일 이 가운데 어느 질문에도 솔직하게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우리는 자립 계획을 개선시키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현대의 사악함 중의 하나로 탐욕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은 우리 생각을 쯤먹고 우리의 자원을 고갈시켜 불행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죄로 인해 갈수록 많은 교회 회원들이 불필요한 빛을 안고 있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그 가족에게 화평과 만족을 주는 것은 바로 수입의 범위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실망과

대회동안 태바대를 밟고니



낙담을 안겨 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빛과 채무를 지는 것입니다.”(복음 표준, 시 호머 더럼 편(1941년), 111쪽)

교회 복지 집행 위원회 회장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근면 절약과 자립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계속적인 지침 원리입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불합리한 빛은 지지 말아야 합니다. … ‘빛을 갖고 … 생활하라’(열왕기 하 4:7)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적절한 권고입니다.”(대회 보고, 1988년 10월, 57쪽; 엔사인, 1988년 11월호, 46쪽)

둘째,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하라고 명하셨으며(창세기 3:19 참조) 게임에 대해 경고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8:124 참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세상에는 게임을 부추기는 것이 많은데, 인터넷

이나 텔레비전, 또는 컴퓨터 게임상에 있는 무분별하고 비정상적인 오락물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셋째, 저는 여러분에게 헝클리 대관장님의 권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한 모든 교육을 받으십시오. … 정신 및 손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십시오. 교육은 기회를 낚는 열쇠입니다.”(고든 비 헝클리의 가르침(1997년), 172쪽) 그렇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재능과 기술 및 능력을 연마시켜서 꽃피우게 하는 촉매제입니다.

넷째, 구세주의 모범을 따라 고통을 덜어 주는 일을 하기로 한 분들은 자신이 내는 금식 헌금의 액수에 눈을 돌려 보십시오. 이 신성한 기금은 단 하나의 목적, 즉 병자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후한 금식 헌금을 냄으로써 드리는 자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며 주님 및 감독과 동역자가 되어 고통받는 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자립심을 심어 주게 됩니다. 만일 풍요로운 환경 속에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내는 헌금에 대해 평가해 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후하시듯 과연 우리도 그분께 후한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

만일 구세주께서 오늘날 이 현세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분은 가난하고 고통받으며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상태로 계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범을 따르는 것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다음 이유 중 하나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복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의 정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실행에 옮겨진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대회 보고, 1977년 10월, 123~124쪽; 엔사인, 1977년 11월, 77쪽)

복지 프로그램이 경제 대공황의 와중에 처음 그 여린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60년이 지난 후 이것이 꽃피고 열매 맺어 문자 그대로 어려움에 처한 수백만의 세계인들을 축복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송가인 “풍성한 주 은혜로”(찬송가, 138장)는 베푸는 것에 관한 영감 받은 교훈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보심으로 나 살기에 필요로 하는 형제를 물라보고 지나쳐 버리는 일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위로할 자 찾게 하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구세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교리와 성약 52:40) 기억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또한 자신의 훈계에 귀 기울여 “연약한 자를 복돋아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교리와 성약 81:5)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분 모범을 따르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귀향을 환영하노라

키스 비 맥멀린 감독
관리감독단 제2보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로 나아가 그분을 따르십시오. ... 여러분이 속한 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길이 여러분 앞에 하나하나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연차 대회가 끝나 가는 지금, 저의 생각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거나 길을 잃어버린 분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어떤 분이 '밖에서 어두운 그늘 아래 있다'면(고든 비 힝클리,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68쪽)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멸의 삶은 마치 귀가 여행과 같습니다. 갈 길은 멀고, 시간은 멈춘 듯 하고, 일상사는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친근한 광경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언덕이나 계곡을 자랑하는 시골 풍경일 수도 있고, 혹은 높이 솟은 고층 건물과 번잡한 대로 일수도 있고, 혹은 조용한 동네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광경이야 어떻든 그 친근함에 여행자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친 영혼에 활기를 띄며, 기대와 안도의 달콤한 느낌에 다시 몰입하게 됩니다.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집으로 되돌아 온 것입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수백 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매일 이러한 귀가 여행을 되풀이 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토록 흔한 일상사에서 필멸의 삶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필멸의 삶이라는 여행을 시시하게 여기거나 어디로 갈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무 길이나 택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육신의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과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과오를 범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이보다 더 엄중하고 영속적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성도의 빛, 1984년 7월호, 32쪽)

성공적인 여행자들은 다음의 네 가지, 곧 생명의 영원성, 죄의 본질, 회개의 아름다움, 속죄의 권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인생이란 그저 생물학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 오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분이 계신 하늘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분의 영적인 소산이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아브라함서 3:23-25; 욥기 38:4-7; 예레미야 1:5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됨에 따라, 출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영원한 여행의 필수 단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

했습니다.

"진실로 인생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위대하고도 훌륭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계획 아래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며, 만일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이 생애를 끝마칠 때 우리는 보다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신권 지도자 모임,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지역 대회, 1996년 2월 24일).

그런데, 이 필멸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디모데후서 3:1-5)

우리의 유약함과 약점으로 인해 모든 여행자들은 죄를 짊어지고 여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과 반대 세력, 그리고 자유의지가 서로 뒤엎혀 작용한 결과입니다.(엘마서 42:17-24; 12:31-34; 니코이서 2:11, 15-16, 25-27 참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야고보서 4:17)

게다가,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조심스레 살핀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행을 하며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구세주께서도 유혹을 겪으셨는데, 그분이 성역을 시작할 무렵에 겪으셨던 유혹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유혹의 전형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며 세상의 보물을 위하여 그분의 영혼을 팔라"는(마태복음 4:2



대회에 참석하려고 태바내를 입구에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10 참조) 유혹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의 형태를 분류해 보면, 여러분과 저를 더럽히는 유혹의 대부분이 예수가 겪으셨던 세가지 유혹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 식욕의 유혹, 2)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교만과 유행, 그리고 허영에의 굴복 또는 3) 세상의 부에 대한... 바램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권력에 대한) 만족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11년 10월, 59쪽).

우리는 유혹에 시달릴 때 양심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민감한 양심은 영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나 죄책감은 유혹과 불완전함, 또는 죄에 대한 영의 반응입니다. 양심은 모든 여행자의 동반자입니다. (모로나이사서 7:16~19 참조). “모든 사람이 죄를 범” (로마서 3:23)하였고 “주는 털끝 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기(교리와 성약 1:31) 때문에, 양심으로 말미암아 여행이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고상한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는 그것이 우리를 회개와 양심의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모사이아

서 4:1~3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될 커다란 위협에 대해 알고 계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모든 자녀를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분의 소망을 굳건히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에게 실수를 올바르게 고칠 시간, 곧 우리의 죄를 이겨낼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준비할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며 “그리하여 이 현세의 생활은 시험의 생활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엘마서 12:24)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귀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를 마련할 것이다.” (니파이일서 10:4; 13:40; 모세서 1:6; 니파이서 25:23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고자 절정의 시대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걷는 크고 작은 모든 길을 걸으셨고,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 (엘마서 7:11~12; 이더서 12:27; 교성 20:22; 62:1) 아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고민이나 걱정, 고난은 없습니다. 비록 그분은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를 도울 방법을 아시고자 우리의 모든 비탄을 몸소 아셨습니다.(이사야 53:3~6 참조)

그리스도는 필멸과 불사 불멸 사이를 가르는 심연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무덤이 더 이상 그 포로를 붙들어 둘 수 없습니다. 자비를 통해 공의가 만족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하고 영원한, 놀라운 속죄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엘마서 34:8~10, 14~16 참조).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엘마서 13:27; 34:33~35 참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에게로 나아가, 그분을 따르십시오.(니파이서 27:13~16; 모로나이사서 10:32~33 참조).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오늘 그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하기를 멈추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로 대체하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와 이 여행을 끝낼 수 있는 힘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장애를 하나씩 극복해 나간다면, 여러분 앞에 나아갈 길이 조금씩 펼쳐져, 마침내 여러분이 속한 곳으로 다시 돌아온 지친 여행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토마스 형제(가명)는 자신 나아가야 할 길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일요일에 볼 수 없었던 회원들이 참석하도록 준비한 특별 노변의 모임에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35세였고 약 20년 동안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 토마스 형제의 부친이 그에게 노변의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토마스 형제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형제의 부친이 쓴 편지를 인용하겠습니다.

“노변의 모임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토마스] 전화를 해서 모임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과 다른 40명의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제가가 컸던 기대는 말로써 이루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느낌과 영이 있었고, 그것이 [토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토마스로 하여금 여러분이 말씀한 물론경의 구절을 다시 읽어 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귀가 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책 전체를 다 읽게 되었고 제 아들은 십일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전혀 다른 빛 안에서 그 자신의 삶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약물과 카페인 복용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물론경뿐만 아니라 교리와 성약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그는 성찬식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문자 그대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그에게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농담도 했습니다.

“그가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위해...감독과 접견했을 때 커다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20여 년 동안 그를 위하여 드려 왔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개인 서한, 1997년 8월 1일)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부모님의 말씀, 곧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

가 있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누가복음 15:24)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상기시켜 줍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해의 왕국과 같은 세상에서 여기로 올 때 순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며,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이해하며 행할 수 있다면, 모든 영혼이 준비를 갖추어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면, 예전에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았음을 알게 될 것이며, 궁전과 산책로와 정원 등 구석구석이 예전부터 낯익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며, 또 그들이 아버지를 포옹하고 아버지가 그들을 안으며 ‘내 아들딸아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는 ‘아버지, 아버지, 제가 다시 여기에 왔나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을 알 것입니다. (설교집, 4:268)

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세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어두운 그늘에서 나오십시오! 복음의 빛 속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오십시오. 회개의 달콤한 열매, 양심의 평안, 그리고 성신의 위로를 누리십시오. 이 여행을 통해 여러분이 속해야 할 곳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을 떠올리면서 다음의 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 높은 영광 보좌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다시 당신과 함께 하여
당신의 얼굴을 뵈고 싶습니다.

그때에 당신을 찬양하고
나의 사랑하는 구세주 앞에 절하며
그분의 위대한 속죄에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많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리라.

감사의 마음으로 부푼 가슴으로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며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당신의 인사를 들으리라
“내 아들딸이여 귀향을 환영하노라!”
(엘리자 알스노우, “오 높은 영광 보좌”, 찬
송가, 139장, 각색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안전합니다

크리 엘 코포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몸을 움츠리지만 남의 훌륭한 이름이나 명성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며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모임이 시작되기 얼마 전에 제 손자 몇이 호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오늘 아침 말린 젠슨 장로가 하신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았습니다. 한 녀석이 물기를 “두렵죠, 할아버지?”라고 물기에 저는 짐짓 거짓말로 “별로 두렵진 않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녀석이 “할아버지, 염려 마세요. 영망이 되신다 하더라도 우린 할아버지를 여전히 사랑할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뒤 이어 한 녀석이 “그렇지만, 할아버지, 부끄러운 일일 거예요.”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 제 마음에 엄습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영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1858년 6월 26일, 그 당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비군이 예정대로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진군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진압군들이, 어떤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그 도시민들이 “버려 두고” 서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은신하고 있는 도시를 통과해 지금 이 건물이 서 있는 곳에서 몇 미터 되지 않는 거리를 비교적 조용하게 진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의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군대는 계속해서 솔트레이크시티 남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약 200여 명 남짓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산되는 세다 계곡의 작은 농장 마을 페어필드로 진군했습니다.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는 바로 제 증조부이신 존 카슨이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수천 명의 병사가 3천여 대의 마차와 황소 1만 마리와 노새 1만 2천 마리를 몰고 마을로 쳐들어왔다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구전되어 오는 우리의 가족 역사와 낭만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부정확한 역사적인 일들로부터, 우리는 카슨 감독이 자신이 관리하던 사람들의 복리에 대해 몹시 염려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당시 군대 주둔에 따른 온갖 어려움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페어필드에 찾아 들었습니다.

카슨 감독은 최선을 다해 회원들을 보호하고자 때때로 자신의 호텔에 와서 식사를 하던 주둔군 사령관과 만나 상호 존중에 기초를 둔 선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두 지도자는 상황을 함께 검토한 뒤 합의에 따라 땅에 선을 그었습니다. 어떠한 군인도 상관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회원도 카슨 감독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고는 주둔지 안으로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땅에 그어진 선은 이러한 무언의 명령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을 건너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땅에 그어진 선은 특별한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참지 못하는 급한 성미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면, 땅에 그어진 선이라 불리는 유서 깊은 해결책이 사용되었습니다. 싸움의 주인공들은 그 선의 양면에 서서 가장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후회하게 될걸.” 물론 다소 거친 말로 했지만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땅에 그은 선의 큰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루시퍼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자애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유적으로 땅에 그으신 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오늘 날 땅에 그어진 수십 개의 선을 갖고 생활하고 있겠지만 저는 그중 하나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선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각자의 이름을 안전하게 지킵시다.”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던 초기에 저는 매리온 디 행스 장로와 함께 하는 특권을 누리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분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허락을 받고 그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오스카 커크햄은 교회의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며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소년단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봉사했으며 어디에 가든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때로 모임 중에 그는 “개인적인 특권”을 얻어 일어나서 승인을 받은 다음 어떤 사람에 관해 훌륭한

한 무엇인가를 말하곤 했습니다. 그분의 생이 끝날 무렵에 "좋은 말을 하십시오"라는 주제로 브리감 영 대학에서 간결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신 날 아침에 행스 장로는 커크햄 가족의 집으로 초대되었습니다. 행스 장로는 그 곳에서 커크햄 장로가 꾸준히 메모해 왔던 작고 값싼 노트를 건네 받았습니다. 마지막 두 메모에는 다음 글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 가정에서 안전합니다." (매리온 디 행스, 오스카 커크햄 저, 좋은 말을 하십시오(1958년), 4쪽 참조)

우리 모두가 이 조언을 따른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참으로 안전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선을 넘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아십니까? 타인에게는 비난을 퍼부을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는 핑계 거리를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자비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을"이라는 태도에 너무 많이 젖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과 명성을 다루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을 다루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몸을 움츠리지만 남의 훌륭한 이름이나 명성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 조금이나마 걸어 보기 전에는 그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옛 속담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충고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사람에게도 훌륭한 점이 아주 많다

우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도 나쁜 점은 너무도 많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헤이즐 펠리만 편 집, 미국의 애송시(1936년), 615쪽)

이 원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우리 시대



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시편에는 이와 같은 주님의 급박한 경고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웃을 그속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시편 101:5)

절정의 시대에 주님의 종이었던 야고보는 이 영원한 진리를 반복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11~12)

이 말일에 주님은 예언자 브리감 영을 통해 주신 계시에서 그분이 오랫동안 가르쳐 오신 그 계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서로 험담하기를 그치라." (교리와 성약 136:23)

이 간결한 계명은 불순종에 따른 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다음에 주어졌다는 사실이 제게는 의미 심장하게만 느껴집니다. "나의 모든 계명을 힘써 지켜 심판이 너희에

게 임하지 않게 하며 너희 신앙을 잃지 않게 하며 너희 원수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교리와 성약 136:42)

그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등뒤에서 동료의 훌륭한 이름과 명성을 떨어뜨리고자 하면서 어떻게 그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2)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어떤 작은 시도도 오히려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세주의 다음과 같은 격정적인 말씀을 가슴에 더욱 강하게 와 닿게 할 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

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태복음 12:34, 36~37)

이 연차 대회 말씀을 듣고 있을 초등협회 어린이에게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께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들어준다면 길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작은 사슴인 밤비와 숲속의 친구들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기억한다면 밤비의 훌륭한 친구인 섬퍼라는 토끼도 기억할 거예요. 섬퍼는 여러분 토래이지요. 섬퍼는 근사한 토끼이지만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죠.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계속하는 것이었죠. 어느 날 밤비가 걷기를 배우다 넘어졌어요. 섬퍼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체대로 걷지도 못하잖아?” 하고 말해 버렸어요. 섬퍼의 어머니는 몹시 속상해 물으셨어요. “아빠가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시던?” 섬퍼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마지못해 이야기했어요. “좋은 말을 하지 않을 바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 교훈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아주 훌륭한 충고예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가족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발을 구르며 큰소리로 “좋은 말을 하지 않을 바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기를 바라요.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다 이해할 거예요. 자. 엄마와 아빠 여러분, 이제 이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보다 쉬울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를 축복하셔서 정해진 선을 결코 넘지 않으며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안전하다는 말에 적합하게 생활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특별한 부활절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며, 구원이 그분의 속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며,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영의 권세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다리와 영원한 유품

데니스 비노인슈언더 장로
철십인 정원회

족보, 집안 내력, 사진, 가풍 등은...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며 다른 어떤 유품도 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세대 간을 하나로 묶어 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유품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가족이나 가구, 책, 도자기 또는 그 밖의 귀중품 등을 수집하여 자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렇듯 아름다운 유품들은 지금은 돌아가신 사랑하시는 분들을 생각나게 하고 태어날 사랑스런 후손들에게로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가족과 미래의 가족 사이를 잇는 다리를 놓아 줍니다.

각 가족에는 이와 다른 더욱 귀중한 유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품에는 족보, 집안 내력, 사진, 가풍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유품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며 다른 어떠한 유품도 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세대 간을 하나로 묶어 줍니다. 저는 가족 역사와 다리 그리고 영원한 기념품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족 역사

는 가족의 세대 간에 다리를 놓고, 교회에서의 활동에 다리를 놓으며 성전으로 가는 다리를 놓습니다.

첫째, 가족 역사는 우리 가족의 세대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세대간의 다리는 우연히 놓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모든 회원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이러한 다리를 놓는 영원한 건축가가 되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저는 89세이신 저의 부친과 4세 반이 된 우리의 맏손자, 애월린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즐겼습니다. 그 순간은 제게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쓰라린 순간이었습니다. 애월린은 저의 부친에 대한 한 순간의 즐거운 기억을 간직하겠지만, 그가 태어나기 전 돌아가신 제 모친에 대해서는 아무 기억도 없을 것입니다. 제 자녀들 중 조부모에 대한 추억을 가진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손들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분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제 자신만이 양편에서 잇는 세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개인적인 친분을 쌓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사랑과 존경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가족 역사를 보존하는 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제 손자들은 그것을 전혀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가족의 영원한 유품을 모으고 나누는 일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저럭 모면하거나 전

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기록해 두지 않는다면 제가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생은 한두 세대도 지나지 않아 대부분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족의 역사에서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구전되어 오는 조상에 대한 기억과 자서전과 가족의 전통은 우리의 생활에 방향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관을 심어 줍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러시아 정교회 수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의 가족에 관해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될 계보의 가치를 가족의 전통으로 세워 그것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게 되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가족의 전통과 내력에 대한 지식은 세대를 하나로 묶어 줍니다."라며 그는 말을 이어 갔습니다. "자신이 정직한 조상에게서 나왔음을 알게 된다면, 정직을 당연하고 명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가문의 모든 구성원을 깎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개인 일지, 1975년 8월 14일)

여러분이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라면, 살면서 겪은 사건을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전할 격려의 말을 적어 두어 다리를 놓도록 하십시오. 1892년에 유타 주 스프링빌 코롭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서 상호부조회 100주년 기념일인 1942년 3월 17일에 개봉될 타임 캡슐에 그것을 봉인해 넣었습니다. 머라이어 캐터린 보이어는 맨 먼저 교회에 입교한 사람까지 소급해서 가족의 계보를 간단히 기록한 후에 두 자녀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부모와 조부모는 조용한 무덤 속에 잠들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 사랑으로 온갖 수고를 다한 손길도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던 애정 어린 나의 눈도 우리가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너



회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이들아...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기를 바란다...인간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양심의 지시에 따르며, 악을 행하라는 갖가지 유혹에 대항할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너희가 세상에 있으므로 세상이 더욱 살기 좋게 되었노라.' 라는 말을 듣도록 하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라. 너희의 인생의 길을 꽃으로 수놓고 항상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거라. 너희가 결코 역경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너희들의 어머니는 기도한다. 우리 가족의 사건을 동봉한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우리가 만날 때까지 잘 있거라." (머라이어 캐터린 보이어, 두 자녀 이레나 비 멘덴헐과 리차드로 벨 멘덴헐 이세에게 쓴 편지) 이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표현들이 한 충실한 가문의

여섯 세대를 하나의 다리로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가족 역사 탐구와 그에 따른 성전 사업은 큰 권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일을 통해 곧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린다는 경전의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말라기 4:5~6 참조) 우드로우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오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려는 일이 다 헛될 뿐입니다." (미국 의 거둬냄(1986년), 12쪽에서 인용됨) 가족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가족은 오늘의 상태를 알지 못하며, 해야 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려는 일



이 다 헛될 뿐입니다.”

둘째로, 가족 역사는 교회에서의 활동에 다리를 놓습니다. 가족 역사 사업은 개종자를 결속시키고 교회의 모든 회원들을 강화시켜 줍니다. 가족 역사 탐구와 성전에 제출할 명단을 준비하는 것은 새로운 회원이 교회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데 가장 귀중한 것이 됩니다. 복음의 구원 의식에 가족 구성원이 포함될 때 신앙과 확신이 더욱 커집니다. 최근의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서 저는 얼마 전에 침례 받은 존과 칼렌 데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족 명단을 준비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성전에 갈 계획을 세웠노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혹시 개종자가 지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의 새로운 회원은 선교사, 친구들, 이웃,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로부터 빠른 시일 안에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에 대한 소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 경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역사와 그에 수반되는 복음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부

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저는 1940년 8월호 *임프르브먼트 이라*에 나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가 있기 1년 전에 십이사도 평의회 의 존 에이 윗소 박사는, 각 선교부에서 복음의 어떤 면에 대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개종자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선교부장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스턴 스테이크 선교부의 프랭크 이반스 선교부장은 이 주제를 살펴보고 제보와 그에 수반되는 복음 의식 및 믿음이 자신의 선교부에서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0년 8월호, 495쪽)

최근 교회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성전에 제출할 가족의 명단을 찾아내어 작성하는 일에 일찍 참여하여 가능한 한 그들을 위한 대리 침례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회원의 지속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새로운 회원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돕고 교회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족 역사와 가족 역사 센터를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권 지도자, 선교사들과 가족 역사 센터 책임자가 모두 이들 센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셋째로, 가족 역사는 성전으로 가는 다리를 놓습니다.

가족 역사 사업은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가족 역사는 말은 성전이라는 말과 연계시키지 않고서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 역사 탐구는 성전 의식을 위한 명단의 주요 출처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 의식은 가족 역사 탐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광범위하게 가족 역사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성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대회 보고, 1998년 4월, 115~116쪽; *엔사인*, 1998년 5월호, 88쪽)

가족 역사 탐구는 세대 간에 정서적인 다리를 놓아 줍니다. 성전 의식은 신권의 다리

를 놓습니다. 성전 의식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자리잡은 결속을 신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외로움과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가난” (처치 뉴스, 1998년 6월 20일, 2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과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과 같은 가난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이생을 지나서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이 약속하는 것은 사랑과 신권 의식에서 비롯되는 영원한 결속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은 다리를 놓아 주는 영원한 가족 유품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가족내의 세대간의 다리,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는 다리, 그리고 성전으로 가는 다리를 놓아 줍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들에게서 받은 위대한 유품과 그러한 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 주어야 하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계명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어떠한 명성이나 정치적 술수로 그것을 감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제 자매님 여러분, 이곳은 이들 동안 영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의 말씀도 이러한 언차 대화의 가르침과 영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저는 성전에서 합당한 젊은 한 쌍이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고 인봉 받는 의식을 집행하는 특권을 갖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그럴 때 받는 느낌은, 그 날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온 어머니들의 눈물이 가득고인 눈에 나타나 있는 지상의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아름답고 흡족하게 어우러진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눈시울에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결혼식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잊어버리고 뭔가 특별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빛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

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한 덕성스런 신부와 신랑의 눈길입니다. 거기에 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게 생활해 온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하고도 부정할 수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젊은 남녀들이 사악한 메시지와 부도덕한 행위로 가득한 세상이 안겨주는 압박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무시피는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과 영혼을 상대로 사악한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 피해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세상의 표준은 바람에 휩쓸려 날리는 사막의 모래알처럼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도덕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소망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계명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점을 오인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인 공정성 아래 교묘하게 은폐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혼 전의 순결과 결혼 후의 정절을 믿고 있습니다. 그 표준은 절대적인 진리의 표준입니다. 그것은 대중의 여론이나 어떠한 상황, 또는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어떠한 복음의

표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의 표준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겨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부모와 지도자와 교사들이 도와주는 일입니다. 부모와 청소년은 교활하고 사악한 악마에 대항하여 함께 굳게 서야 합니다. 악마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우리는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일에 헌신하고 결심을 굳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불멸의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신앙을 강화하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게 되어 성전에 들어가기에 전적으로 합당하게 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 지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즉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은 우리가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적으로 옳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강력한 중재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3)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이 생에서의 의미와 다음 생에서의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분은 실재하시며, 우리는 사실상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그분이 현재 그리고 영원히 갖고 계신 모든 것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지식을 확실히 할 때 비로소 가족들은 악마의 것들을 버리고 더욱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1:8 참조)

우리의 선조 개척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마음속 깊이 심어야 합니다. 1846년 9월 나부가 함락되었을 때와 성도들의 비참한 캠프에서의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상기해보십시오. 전령이 윈터 퀴터스에 당도하자, 브리감 영 대관장은 즉시 형제들을 한자리



복음의 표준에 따라 살고 진리의 편에서 회복을 증거하는 것이 항상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늘 편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능력의 범위를 넘는 교회의 부름에 응하는 것도 언제나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성약을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뜻깊은 방법으로 봉사하는 기회는 편한 때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편안한 생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힘은 우리가 성약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초기 성도들의 생활을 살펴볼 때, 성약이 그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힘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범과 간증은 그들 자녀에게 대대로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 무엇이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은지 부모님이 직접적이면 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외설 사진이나 이야기 등을 피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은 외설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악마의 도구이며, 누구든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키고, 마비시키고, 파멸시키는 힘이 있음을 부모에게서 듣고 배워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거나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연히 들은 야한 농담은 결코 입밖에 내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에게 감각을 자극하는 음악은 듣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성과 순결에 관한 복음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이에 대한 지식을 가정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은 규칙을 알고 영적으로 강화되어 그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완전하지만 때로는 힘든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용서받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추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가족에게 이러한 가치관과 다른 교

에 불러모았습니다. 그는 사태를 설명하고,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뒤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나부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그들에게 상기시킨 후, 다음과 같은 훌륭한 권고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지금은 일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의 불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타오르게 합시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지 역사, 1846년 9월 17일) 며칠도 안 되어 윈터 쿼터에서의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시시피 강가의 초라한 캠프에 있는

성도들을 구조하기 위해 수많은 포장 마차들이 동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초기 성도들이 견뎌 낸 고통과 희생에 대해 들으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그러한 힘을 준 걸까?” 영 대관장의 강한 말솥에 그 대답의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초기의 말일성도들은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고 그러한 성약은 그들의 가슴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타올랐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성약에 따라 살기보다는 편의에 따라 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회의 교리를 가르칠 책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즉 또래 친구나 학교, 교회의 지도자와 교사, 심지어 대중 매체가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매일 배우며 개인적인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경험과 인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날로 사악해져 가는 세상에서 계명을 지키려는 용기를 강화시키기 위해 마음속 깊이 좀더 신앙을 키우고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도록 깊이 개심하여 성약의 불길이 우리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간직함으로써 우리는 참되고 합당하게 되는데 필요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둘째는 의사 소통입니다. 마음을 열어 놓은 솔직한 의사 소통보다 가족간의 관계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복음의 원리와 표준을 가르치려는 부모들에게 더욱 더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들과 상담을 하며 "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그들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는" 능력은 성공적인 관계를 쌓는 기반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 듣거나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사 소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부모님께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또한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의 권고와 영의 속삭임에 귀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 관계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특별한 순간을 살펴보고 잘 포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월요일 밤마다 가정의 밤을 갖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의사 소통을 위한 절호의 기회는 정규적인 가족 기도회와 가족 경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경전은 가족의 가치관과 목표를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에 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강하게 되고 자립심을 확고히 갖도록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텔레비전 시청을 얼마나 해야 하며 영화와 비디오, 비디오 게임, 인터넷이나 야외 활동을 하는 시간을 얼마나 잡아야 하는



지를 함께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개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릇된 선택을 할 때 개입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서 자유의지라는 귀중한 은사를 빼앗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여 행하며 어떤 신조를 갖든 그것은 늘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이 길을 잘못 따라갈 경우의 그 행위와 결과를 분명히 이해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부당하게 검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화와 잡지, 텔레비전, 비디오, 인터넷, 기타 대중 매체는 손님처럼 대하여 그러한 것들이 가족을 즐겁게 할 때에만 맞아들여야 합니다. 가정이 평화와 의로움의 안식처가 되게 하십시오. 약한 세력이 여러분 자신의 특별한 영적인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하거나 다른 사

람을 대할 때 친절하고 사려 깊고 관대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복음의 표준 위에 세워진 가족의 목표는 훨씬 쉽게 훌륭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돕는 일을 할 때 교회의 감독과 교사와 다른 교사들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할 때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중 어느 누구라도 인생에서 도덕적인 갈림길에서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사랑과 친절로 개입함으로써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즉 부모와 지도자와 교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넷째는 모범입니다. 지친 선원이 나침반과 항해도도 없이 바다를 향해 나가기가 힘이 들듯,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훌륭한 모범의 인도하는 빛을 받지 못한 채 인생의 바다를 헤쳐 나가리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원리대로 행하지 않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 것을 청소년들이 보

게 된다면, 그들은 부적절한 것들을 멀리 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지도자로서 우리가 의로운 힘과 용기와 희생, 이기심 없는 봉사와 자제력의 강력한, 모범을 개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의 쇄막대를 굳게 잡고 끈고 좁은 길로 들어서는 데 도움이 되는 특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른 것을 알려 주고 의사 소통하고 개입하여 모범을 보이는 일에 힘쓰면, 결코 복음의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온전한 자녀들과 함께하는 온전한 가족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행하게도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리와 표준을 알고 가르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가족은 중대한 실수로 인한 고통을 훨씬 덜 받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사 소통과 충실한 모범을 보이는 습관이 오랫동안 몸에 배어 정착되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고 필요한 변화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가 한결 쉬워져 모든 가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배나민 왕이 권고한 다음의 중요한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너희에게 죄가 될 일을 모두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죄를 범하는 종류와 길이 여럿인지라 이제 내가 일일이 이를 열거할 수 없도다.

"그러나 이만큼을 전할 수 있나니, 너희가 너희 생각과 언동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생애를 마칠 때까지 우리 주의 강림에 관하여 들은 바를 굳게 믿지 아니할진대 기필코 너희가 멸망하리도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기억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모사 이야기서 4:29~30)

형제 자매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어 성약의 불길이 우리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성스러운 성약을 새롭게 하여 이처럼 활기 있고 위대한 시대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행하며, 가족을 강화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축복에 감사함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우리의 축복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 어디에서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의를 펼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영감과 권세가 말씀하고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이 대회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에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노래해 준 합창단 덕분에 우리는 고양되고 교화되었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들은 성신의 권세로써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주목할 만하고 특별한 세기가 서서히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상 부끄러운 세기였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 어느 세기보다 전쟁도 많았고 비인간적 행위도 많았으며, 갈등과 혼란도 많았던

최악의 세기였습니다. 가장 많은 피를 흘리게 한 세기였습니다. 진리의 적대자인 사탄이 수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파멸과 비극과 고통이라는 사악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예가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투는 자녀들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좀더 넓은 견지에서 본다면 최악의 세기였습니다. 지구의 긴 역사를 볼 때 이 세기와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25년이나 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기적입니다. 과학의 열매가 도처에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 많은 이해와 지식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많은 다양성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배울수록 우리의 이해심은 커집니다. 이 시대는 계몽의 시대였습니다. 현대 의학, 여행, 통신의 기적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놓치지 않고 활용해야 할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은사는 너무나 훌륭한 권능과 축복들을 동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입니다. 진실로 지금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로서, 우리에게 다시는 지상에서 거두어지지 않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다음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9)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잘하겠다는 결심을 마음에 품고 돌아갑시다. 우리는 모두 더 친절해지고 더 관대해지며 서로를 더 배려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더 인내하고 따뜻해질 수 있으며, 존경심을 보이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만하거나 독선적일 수 없습니다. 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존경은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커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곳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많은 식량과 의복이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에서 고통받고 있는 코소보 사람들을 위해 수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수행했으며, 다른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같은 자녀들인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있는 한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갑시다. 남편과 아내 모두 서로에게 절대적인 헌신의 정신을 키워 나갑시다. 서로를 당연하다는 태도로 대하지 말고 항상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영을 키워 나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서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화내지 않도록 합시다.

부모 여러분,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빛과 진리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 붓되 지나쳐 망치지 마십시오. 그들과 간증을 나누십시오. 함께 경전을 읽으십시오. 자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한 것보다 더 큰 책임과 축복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



하십시오. 주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가족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정직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여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의로운 일을 합시다.

우리의 축복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다음 우뚝 서서 두 어깨를 활짝 펴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 어디에서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의 의를 펼칩시다.

대회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 곳에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가운데 나무 성전을 재건축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니

다. 교회의 한 회원과 그분의 가족이 상당히 큰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성전이 건축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계사들은 이미 일을 착수했습니다. 이 신축 건물은 미시시피 강둑에 최초로 그러한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을 기리는 건물로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드렸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위대하고 훌륭한 말의 사업에 대한 저의 간증과 축복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너희의 빛이 되며

새론 지 라슨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여러분의 시선을... 목표물에서 떼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끈고 좁은 길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알 수도 미처 모를 수도 있지만, 8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면서 시내에 가지도 못하고 빛을 내거나 심지어 불조차 피우지 못하는 야영 생활을 하며 여행을 계속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리하이 가족은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광야를 여행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 진영에는 불명의 소리가 잦았고 자원자는 그리 많지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그 긴긴 여행길에 여러분 또래의 청녀들도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불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의 빛

이 되며,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진대 너희의 길을 준비할 것임이라...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이가 나인 줄 알리라"(니파이일서 17:13)

여러분은 모두 가기를 소망하는 약속의 땅을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젊은이들에게 도전의 장이 되는 광야에서 자신만의 빛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빛에는 사랑, 곧 주님의 모든 자녀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온갖 어려움과 시험에 용감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연고로 여러분의 가슴과 마음과 영을 밝혀 주는 빛을 보내 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이 진리이며 진리는 빛이요,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84:45 참조)

선이는 한국 출신의 교환 학생입니다. 선이는 낯선 이국에서 낯선 언어를 사용하며 새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은 힘들었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 활동에 같이 갈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죠.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과 위안과 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매일 아침 물문경을 읽고 학교에 가기 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

교 생활이 훨씬 수월해졌고 놀랄 만큼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청녀 사무실 보관 서한)

그 기도가 빛을 밝힌 것을 여러분도 아실테지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빛 안에서 끈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만했을 때 저는 끈고 좁은 길의 중요성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캐나다 로키 산맥 기슭의 조그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농부인 아버지에게서 저는 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름이면 아버지를 도와 트랙터를 몰고 건초를 베어 굶어모으고, 건초더미를 나르고, 밭을 갈았습니다. 제가 처음 밭을 갈고 경작하는 법을 배우던 때가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일직선이 되도록 밭고랑을 갈아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고랑이 비뚤비뚤해지면 갈지 않은 부분이 생겨나 그 자리에 잡초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밭 저편에 있는 울타리 막대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목표물 삼는다면 똑바로 갈게 될 것이다. 울퉁불퉁하다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거라. 시선을 트랙터 선단으로 돌리는 바로 그 순간에 구덩이나 흠더미에 걸려 진로에서 벗어나고 비뚤어지는 거란다." 그렇게 주의를 주신 후에 제게 일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처음 몇 차례 밭을 가는 동안에는 밭 저편의 울타리 막대를 기억했지만 이내 무료해져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노래와 찬송가를 모두 부르고 심지어 즉흥으로 지은 자작곡까지 목청껏 불렀습니다. 그렇게 흥겹게 기분을 내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버지가 밭을 지나 저를 향해 걸어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트랙터를 멈추자 부친은 "일직선이 되도록 밭을 갈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거니?"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고랑을 좀 봐라. 처음 몇 고랑은 똑바로 되었는데, 네가 고랑을 갈면서 주의를 기울

이지 않은 것이 분명하구나. 네가 목표물로 삼은 건너편의 울타리 막대를 보지 않은 것이 틀림없어. 매번 돌 때마다 조금씩 비뚤어져서 밭에 빈터가 크게 생겼잖니.” 아버지는 트랙터에 올라타시고는 여러 번 왕복하여 고투를 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트랙터에서 내리시며 제게 다시 해보라고 하시며, “새론,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압력이 우리를 압도하는 듯하고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위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유혹을 받을 때에는 트랙터 앞쪽 끝 너머로, 이 순간이 아닌 그 너머를 바라보며 주의를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덩이와 울퉁불퉁한 지형, 이를테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듯이 보이는 친구들의 피임은 우리를 탈선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밭 건너편의 목표물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에 머물게 하는 빛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길을 잃고 유혹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똑바른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암흑 속에서 나와 빛, 즉 주님의 빛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빛을 갖는 것, 다시 말해 영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젊은 친구가 오늘날 시중에 나오는 일부 저속한 폭력 영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게 설명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면 순진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지 알기 위해 세상이 제시하는 것에 자신을 노출시킨 후 혼자서 결정하도록 내버려지는 것이 좋겠니, 아니면 주님의 인도를 받아 빛과 진리와 선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아 암흑이 들어설 여지가 없도록 선택하는 게 좋겠니?” 여러분, 빛과 암흑은 동시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은 청녀 햇불로 상징됩니다. 불꽃 가운데 여러분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 햇불은 진리와 의로움의 편에 서려는 여러분의 소망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청녀 햇불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빛

이며, 여러분이 행복한 때나 어둠의 안개를 지날 때에도 길을 보여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라고 느끼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보좌 한 사람에게 대한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 알고자 했던 월계반 회장 에밀리는 이 빛에 대한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어떤 아이에 대하여 기도 드렸는데 아주 강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환히 열려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애가 저의 보좌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청녀 사무실에 보관된 서한) 기도란 하나님의 권세와 연결시

켜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세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능력을 확대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야렛의 동생은 이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지시대로 배 여덟 척을 만들었으나 배 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우리도 역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그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쉽게 그 배 안을 빛으로 밝혀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야렛의 동생의 마음을 빛, 곧 영의 빛으로 밝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침례의 영적인 힘

캐롤 비 토마스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야렛의 동생이 주님께서 그에게 손 전등을 주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깨닫고 열여섯 개의 돌을 깎아 내어 주님께서 그 돌들을 만져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를 간구하기까지 그가 한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야렛의 동생이 김선이나 에밀리가 했던 일들, 즉 금식하고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 보고 경전을 읽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자 힘껏 노력함으로써 그를 인도해 줄 빛인 영을 갖고자 했던 일들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야렛의 동생은 자기가 할 줄 아는 모든 것을 다해 보는 한편, 열심히 일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 특히 주님을 믿는 신앙까지 다 동원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님께 다시 나아갔으니, 이만하면 충분히 노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여섯 개의 돌을 만지시니 빛이 났습니다. 응답은 항상 있는 법입니다.

수많은 청녀들이 이 빛을 따르고 있으며,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그들의 빛으로 삼는 사람들의 간중에 귀 기울여 봅시다. [주: 몇몇 청녀가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간증을 나눔]

주님을 여러분의 빛으로 삼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예비하시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어둡다 해도 주님께서 밝게 비출 수 없는 삶은 없습니다." (샘 칼든과 스티븐 케이 존스, "주님께 나아오라", 뉴 이라, 1995년 4월호) 여러분이 반드시 리하이나 야렛의 동생과 같은 예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의에 목말라 하고 의에 주린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발 건너편의 목표물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의 곧고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빛과 영을 증거합니다.

주는 나의 빛 모든 것 되시네
주 계시는 곳엔 어둠이 없겠네
주는 나의 구주 내 임금이 되시니 (찬송가, 48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침례의 영적인 힘을 단정함의 원리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옷 입을 방식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은 무한한 축복입니다. 얼마 전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녀들이 자신의 침례 성약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과연 나는 내가 맺은 침례 성약의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저녁 우리도 진실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침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구세주께서는 침례를 거듭남에 비유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두 순간, 이 지상에서의 실질적인 두 생일, 즉 태어난 날과 침례 받은 날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여러분을 품에 고이 안으시고 장차 커서 무엇이 될까 꿈꾸었다는 것만을 상상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두 번째 탄생일인 침례 받은 날을 기억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필리핀의 꿀벌반 소녀인 란 팅의 침례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깨끗하고 순결한 느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마치 진주 샘에서 흐르는 듯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기쁨의 눈물이었겠죠! 어머니는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란 팅아 오늘 너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 안심이 되는구나. 난 주님이 네 인생 향로에 함께하시리라 믿는단다.'" (본부 청녀 사무실 보관 서한)

침례는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이 의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씻어 내며 성신의 은사를 통해 구세주와 동반하도록 해줍니다. 주님은 인생의 길에서 우리 개개인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확신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1)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며 그분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2)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3) 침례는 우리가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관문입니다. 4) 개인을 성결케 하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해도



태버나클에서 노래를 부르는 청년들과 지도자들

좋을 것입니다. (성서 사전, 619쪽 참조)

앞의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밤에는 네 번째의 거룩하게 되는 것에 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성신을 받았으므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헤일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침례 받을 때 세상에서 떼어져 나와 왕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부 청년 임원회 비망록, 1997년 12월 5일) 여러분은 암흑에서 들리워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님도 침례 받은 당시를 회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그는 오직 이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아! 이제 무임승차는 끝났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침례 후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생활에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축복 받습니다.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의 아들에 대한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젊은 왕자는 왕을 폐위 시킨 악당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는 인생의 온갖 추하고 사악한 것들을 겪게 되었지만 어떤 압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납치자들은 이를 이상히 여기고 어떻게 그토록 큰 도덕적 용기를 보일 수 있는지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강요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전 왕이 되려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본 제이 페더스톤 감독, "왕의 아들", 뉴이라 1975년 11월, 35쪽 참조) 여러분은 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침례를 받으므로 여러분이 자신을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되는 가운데 왕과 왕후가 되는 축복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왕과 왕후가 되는 상속권을 요구할 정도로 더욱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며, 내가 행하는 바를 너희가 본 대로 너희도 행하라." (니파이서서 31:12)

그리스도의 빛을 따르고 있는 청년들의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의 한 월계반 청년은 이렇게 썼습니다. "10월, 우리 고등학교의 연례 무도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열다섯 살이었는데 한 남자 아이가 무도회에 가자고 했어요. 저는 승낙하고 그 무도회에 가서 그 남자 아이를 만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저희 부모님은 모르실 테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모르시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알고 계시며, 정말로 아주 중요한 분들은 그분들이시니까요. 저는 무도회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친구들을 제 집에 초대했지요. 정말 행복했고 자유로웠으며 삶의 충만함을 느꼈어요." (본부 청년 사무실 보관 서한)

레베카리는 꿀벌반 청년은 다음과 같은 일지를 소개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우리 반에 욕설을 너무 많이 하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마음 쓰지 않도록 해주실 것과 그 욕설이 제 마음에 남지 않게 해달라는 작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기



도한다면 조그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본부 청녀 사무실 보관 서한)

또 다른 청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제게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엔 영이 주는 평화가 가득했기에 친구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외롭거나 주변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늘 곁에 계셨답니다.”(본부 청녀 사무실 소유 편지)

유타의 한 장미반 청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해에 제 몇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영을 잃어버렸는데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감독님께 갔어요. 그렇게 겁에 질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방에 함께하시며 저의 떨리는 손을 잡아 주셨어요. 저는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죠. 그 길은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한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저는 양쪽에 다 있어 보았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빛의 편이에요.”(본부 청녀 사무실 보관 서한)

구세주의 빛을 따르려는 여러분의 소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자신의 영적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거나 간증하거나 의를 위해 일어설 때, 여러분은 생활 속의 사악한 영향력을 이기게 됩니다.

학교 교정을 걸다가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난 다르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지만, 구세주를 아는 지식과 그분에게 하는 헌신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며,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바로 장점이자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 하나는 단정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침례의 영적인 힘을 단정함의 원리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되길 희망합니다. 일리노이 주, 시카고의 마시 매튜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1998년은 많은 청녀 공과와 말씀과 조인을 실생활에 적용한 결과를 볼 수 있었던 한 해였어요. 저는 평범한 물몬 소녀입니다. 제 삶을 이렇게 충실하고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았답니다. 저는 항상 제 간증과 표준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목표를 세웁니다.

최근에 우리는 단정함의 중요성에 관한 상호 항상 활동을 가졌어요. 예전에 공과를 들을 때에는 제 자신이 단정하게 옷을 입는 편이라 생각했었지만, 여전히 바꿀 점도 있었어요. 제 반바지와 치마 길이었죠. 저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약점이었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짧은 반바지며 아슬아슬하게 올라간 반바지와 미니 스커트를 입었기 때문에 저도 제 용돈으로 그것들을 샀어요. 그러다가 단정함에 관한 공과를 듣게 되었던 거죠. 저는 당장 옷장으로 가서 단정치 못한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다시는 이 옷들로 유희 받지 않겠다는 생

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한 뒤, 부모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속으로는 부모님이 제 복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입으라고 말씀하실 것을 맘속으로 바랐나 봐요.

그날 밤늦게 아빠는 제게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며 교회에 갈 때 입을,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을 두어 벌 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 단계는 제가 가진 모든 옷을 살펴보고 버리는 거였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치마랑 반바지를 버리기가 무척 힘들었지만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는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은 제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할 거예요.

지금처럼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저는 성전과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도 좋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끼며... 제가 입는 옷으로 그분을 대표하고 있어요. 제 주위의 남자애들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저를 더욱 존중해 주었어요. 남자가 제게 다가올 때 제가 입은 옷 때문이 아니라 나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마시는 이런 말로 편지를 끝맺었습니다.

“저는 모든 청녀가 이와 같이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대표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 쏟아질 거예요.”(본부 청녀 사무실 보관 편지)

마시의 훌륭한 모범은 청녀 주제의 전형적인 모범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 주제는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법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즉 “모든 복장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례의 영적인 힘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그 힘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침례 성약을 명심하여 지키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성찬을 취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함으로써 그 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 사랑과 간증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빛을 따르십시오.

마기렛 디네이돌드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회장

주님은 우리에게 냉혹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따뜻한 그분의 빛 속으로 오라고 권유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서 "아이구 아파라" 하고 소리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오늘 저녁 이 건물이 정전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큰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어두움은 신체적, 영적인 건강에 위협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있다는 것,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이해를 밝혀 주며, 확신과 완전한 신뢰로 따를 수 있는 빛이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한 이야기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당시 우리는 신혼 부부였는데,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려고 집을 향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차로 42시간 걸리는 곳이지만, 집에 돌아가 가족과 재회할 생각에 들떠 그런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운전했는데, 밤이 깊어지면서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세찬 눈보라는 앞을 가렸

고, 고속 도로 위에는 눈이 더욱 쌓여만 갔습니다. 철쭉 같은 어두운 밤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었고, 깊이 쌓인 눈 때문에 도로 위의 차선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실로 두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갑자기 우리 앞쪽에 천천히 앞서 가던 큰 트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겨우 트럭의 미등밖에 볼 수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희망이 솟아났어요. 운전하던 남편은 그 트럭의 불빛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트럭이 깊이 쌓인 눈을 헤치고 나간 자취를 따라갔습니다. 그 트럭이 앞길을 이끌어 준 덕분에 다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트럭의 운전 기사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트럭의 운전석은 높기 때문에 그는 우리보다 앞을 잘 볼 수 있었고, 만일을 대비해 통신 장비도 갖추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죠.

연신 기도를 드리며 핸들을 꼭 움켜잡은 채 그 불빛을 쫓아 눈보라 속을 헤쳐 나갔습니다. 지나가며 도로 양편에 많은 차들이 멈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트럭이 속도를 줄이며 고속 도로를 벗어나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는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바로 그곳에 안전한 장소이자 피난처가 있는 것을 보고 큰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곧장 길을 인도해 준 그 트럭 기사에게 뛰어가 길을 이끌어 줘서 매우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향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지만, 성탄절을 보내고자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보내고자 그곳에 가려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를 원

합니다. 그분은 그 곳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인도하는 빛을 보내셨는데 바로 완전한 모범이신 구세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밤 중에도, 폭풍우 속에서도, 교차로에서도, 대낮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빛으로 밝혀 주십니다. 그분은 언제라도 하는 집으로 가는 귀로를 보여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빛이 되며,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의 길을 준비할 것임이라. 너희를 인도하는 이가 나인 줄 알리라." (니파이일서 17:13)

한 청녀가 자신이 가던 길에 대해 편지로 적어 보냈습니다. "전 친구들과 함께 비디오를 보고 있었어요. 그 비디오는 제가 봐서는 안 될 그런 것이었죠. 저는 떠나야 한다는 영의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영의 음성을 듣고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을 아주 강하게 느꼈죠. 제가 한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부 청녀 사무실 보관 편지) 이 청녀는 안전을 위해 빛을 따랐던 것입니다.

1833년의 너무도 무섭던 어느 날 이와 똑같은 빛이 두 10대 자매가 가는 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성난 폭도들이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의 조용한 거리를 급습했을 당시, 열 다섯 살 난 메리 엘리자베스 블린스와 열세 살 난 여동생인 캐롤라인이 그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폭도들이 가재 도구를 부수고 불태우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도 중의 일부는 인쇄기가 있는 윌리엄 펠프스 형제 집을 침입했습니다. 그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들을 인쇄하던 중이었습니다. 폭도들은 인쇄기를 부수고는 거리로 내던졌습니다. 그들은 제본되지 않은 그 귀중한 인쇄물들을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가 불에 태우려고 마당에 수북히 쌓아 놓았습니다.

메리 엘리자베스와 동생 캐롤라인은 울타리 뒤에 숨어 폭도들이 파괴를 일삼는 것을 두려움에 떨면서 지켜보았습니다. 메리는 성난 폭도들이 위험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설명 그렇다 하더라도 제본되지



어셈블리 홀 바깥에 피어 있는 4월의 꽃들

않은 그 귀중한 인쇄물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10대였던 이 두 자매는 거리로 달려나가 경전 인쇄물을 두 팔 가득히 안고 돌아왔습니다. 폭도 중 몇 명이 이것을 보고 멈추라고 소리치며 용감한 두 자매를 뒤쫓았습니다. 소녀들은 넓은 옥수수밭으로 뛰어들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땅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땅바닥에다 계시의 책 낱장들을 놓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폭도들은 키 큰 옥수수 줄기를 거침없이 헤치며 가까이 다가왔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파괴를 자행하려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빛은 그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바로 그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은 그 자매들의 경우처럼 여러분을 안전히 지켜 줍니다.

제인 앨그우드 베일리는 새로운 종교의 빛을 포기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제인은 와이오밍의 평원에서 추위와 굶주림과 병마에도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인은 다른 여인들과 손을 꼭 붙잡고 얼어붙은 개울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강을 건넜을 때는 풍뎉어붙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었지만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여행 중에 열여덟 살 난 그녀의 아들 랭그리가 병들자 쇠약한 그를 손수레에

태우고 남은 여행길을 밀고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랭그리는 수레 속의 얼어붙은 삼베 요에서 일어나 일행의 앞쪽으로 가서는 자신이 너무 큰 짐을 지우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죽겠다는 생각으로 산속 아래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찾고는 꾸짖었습니다. "수레에 올라타, 엄마가 도와줄 거야. 너도 포기하지 않을 거지!" 이윽고 그 가족은 마틴 윌리 손수레 부대의 생존자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을 때도 랭그리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열여덟 살인데 몸무게는 겨우 28킬로그램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열여덟 살 소년은 바로 제 창조주입니다. 저는 창조주께서 젊은 시절을 잘 건뎌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족의 빛이었으며, 죽음의 문턱에 선 아들을 잘 보살펴 주신 고귀하고 용기 있는 그 어머니의 강인함과 끈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은 심한 눈보라 속에서 손수레를 밀며 평원을 지나거나 폭도들로부터 경전을 구해 내어 달아날 필요는 없을 테지만, 여러분에게 선의 표준과 타협하도록 부추기는 친구나 유행이나 초대를 피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곧 상호부조회 자매가 될 것이며 미래의 세대들에게 힘과 간증을 전해

줄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일들을 준비하는 여러분은 "포기하겠어요. 교회의 표준이 너무 높아요. 개인의 순결의 표준에 따라 엄격하게 생활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약한 사람이에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냉혹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따뜻한 그분의 빛속으로 오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고결함과 강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를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2)

주님의 빛은 젊은 셸리 앤 스코필드가 자신에게 닥친 무서운 시련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신앙과 사랑으로 이겨내도록 도왔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에 다니던 어느 날 셸리가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뭔가 심각한 병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셸리는 말했습니다. "천 겁에 질렸어요. 폐에 이상이 있었는데 의사는 암인 것 같으며 화학요법과 방사요법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셸리는 치료받느라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자 나의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하며 여러 가지 성취 목표를 세우고 그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선행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축복, 이를테면 자신에게 신권 축복을 해주신 아버지와 훌륭한 가족과 좋은 친구들과 유능한 의사 선생님을 주신 축복에 대해 늘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제가 이 시련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간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라고 셸리는 말했습니다.

셸리는 청년 친구들과 대한 생각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도 바로 청년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때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약속한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하

나님 아버지께 보여 드리세요. 저도 노력중
이예요. 전 지금 복음에 대해 이제껏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께서 저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
다. 제가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 때 그분도
같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분은 우
리가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느낄 때 무릎을
꿇고 도움을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기꺼이 돕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
무나 사랑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평생토록
모든 난관을 통해 배우고 그분과 함께하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을 얻
고 옳은 것에 참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신앙을 지녔던 셸리 스코필드는
1998년 11월 3일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청년 여러분, 우리 모
두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셸리나 다른 사람
들이 겪은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지는 않
겠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생애를 통해
나아가는 이 여행에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빛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
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마음을

쏟을 때 여러분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 잠깐 멈추고 마
음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영이 속삭
이는 바를 이해하고자 구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
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경전은 우리
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경전의 말
씀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 줄 것입니다. 경전은 다른 어떠한 방법
으로도 얻을 수 없는 빛과 영을 우리의 삶에
가져옵니다.

셋째, 간절한 마음으로 훌륭한 대업에 힘
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
게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와 세미나리에
활동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재능과 기술을 발
전시키십시오. 좋은 모범을 보이십시오. 어
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
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빛은 여러분의 삶
을 더욱 밝게 하며 여러분의 얼굴에 밝게 나
타날 것입니다.

거룩한 솔트레이크 성전을 내다보고 있는
본부 청년 사무실 창문을 통해 사진을 찍으
러 나오는 신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결
혼을 한 이 사랑스런 신부들은 모두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빛나며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그들의 삶에 미치는 구세주의 영
향력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잘 준비하여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
을 받기에 합당한 청년에게는 매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눈보라치는 겨울 밤에 트럭
의 불빛을 따라갔던 것처럼 셸리나 베리 엘
리자베스와 제인도 주님의 빛을 따랐으며 여
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용기와 힘과 신앙이 필요할 때가 올 때 다음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빛 늘 함께하시니

왜 두려워하리 낮과 밤에도 나를 인도하시네
(찬송가, 48장)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돕기 위해
곁에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의 삶과 가
르침의 모범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지침입니
다. 우리는 그분이 구세주라는 확신을 가지
고 완전히 믿음으로써 그분을 따를 수 있습
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며, 여러분도 사랑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해의 왕국으로의 여행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강인함과 하나님의 영감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교훈의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앞에 서서 이곳 태버나클에 모인 사람들 이외에도 위성 중계를 통하여 이 모임의 진행 상황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수 천이나 된다는 생각을 할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고귀한 기회가 제게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바입니다.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의 한 고전주의 시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젊음이란 얼마나 아름다우나! 얼마나 찬란히 빛나는 것인가.

환상과 열망과 꿈과 함께!

온갖 시적이 담긴 책, 끝없는 이야기,

아가씨마다 주인공이라네, 사나이마다 친구라네!

(“Morituri Salutamus”, 롱펠로우의 시

작 전집, [1922년], 311쪽)

소중한 청녀 여러분, 그리고 청녀들의 어머니, 교사, 지도자 여러분, 저는 이 생을 지나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신 해의 왕국으로 가는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해 줄 몇 가지 생각과 제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행동 목표를 세심하게 선택했습니다.

1. 위를 바라보라.
2. 안을 들여다 보라.
3. 밖으로 손을 내밀라.
4. 힘써 앞으로 정진하라.

첫째, 위를 바라보라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을 양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경전은 크고 분명한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엘마서 37:47) 너무 사소하여 그분의 관심을 끌지 못하거나, 너무 커서 그분이 신앙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분명한 기도는 영적인 권세를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기를 바라시는 지 깨달을 때 목적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린도전서 3:16)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할 때, 진지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한다

면 그분이 명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곧 그분들의 기쁨이며, 여러분의 슬픔이 곧 그분들의 슬픔입니다. 그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인도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낙담한 부모님들이 “지긋지긋한 10대”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멋진 10대”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코 미소와 행복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강인함과 하나님의 영감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교훈의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리셀 엠 넬슨 장로님의 양해를 구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덕분에 슬픔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넬슨 장로님 내외분은 아홉 딸에 이어 사내아이를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고 우애가 깊은 가족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느 날 밤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주위로 모여 앉았고, 아버지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고, 또 선교 부장으로 부름받는 경우에는 임지로 자녀들을 데려가야 한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꺼내고 나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엄마와 내가 그런 부름을 받는다면 너희들도 기꺼이 엄마, 아빠와 함께 가겠니?”

아버지는 자녀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딸 하나가 말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응원단장이니까 아버지에게 그런 부름이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큰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대학에 다니잖아요.”

10대 자녀들의 대답은 계속 되었고, 이윽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꼬마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만일 아빠가 부름을 받는다면, 전 따라 갈 거예요.”

실제로 모든 아이들이 기꺼이 따라갔을 테지만, 간단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

밀리의 대답은 듣는 이로 하여금 눈물짓게 하였습니다.

시간이 쏠살같이 흘러,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시기에 무서운 암이 에밀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에밀리는 용감하게 병마와 싸우다 하늘 집으로 부름을 받아 떠났습니다.

넬슨 장로님께서 장례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찍이 그보다 더 훌륭하고 감미로운 메시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족의 영원한 본질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이 생을 졸업하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의 순간입니까!

대가족이 관을 뒤따라 갈 때, 넬슨 장로는 에밀리의 어린 두 자녀를 팔에 안고 따라갔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서 배운 진리와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을 동경하도록 영감 받았습시다.

둘째, *안을 들여다 보라.*

각자 이러한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과연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거룩한 경전과 부모님의 인도, 초등학교, 청년회, 주일학교, 성찬식, 세미나리 등에서 끊임없이 받는 가르침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자기 자신이 되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을 크게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십시오. 자신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적어 보십시오. 목표를 높이 세우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인생의 진로가 눈앞에 훤히 펼쳐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여러 분기점과 전환점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뚜렷한 목표 없이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주저하며 자신이 갈망하는 여행의 목적지에 다다르기를 희망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을 갖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 유명한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통해 루이스 캐롤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의 숲 속에 난 길을 따라가다가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머뭇거리던 앨리스는 근처 나무 위에 앉자기 나타난 고양이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하고 되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하고 앨리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든 상관없잖아, 그렇잖니?" 하고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1929년)에서 인용함, 76쪽)

우리는 가고자 하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고 말겠다는 결심은 물론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게로 오라·내게 배우라"(마태복음 11:28~29)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와서 나를 좇으라"(누가복음 18:22)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그분의 온화한 초대를 긍정적으

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모두는 밖으로 팔을 내밀라는 우리들의 다음 목적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디모데전서 4:12) 되라는 지혜로운 권고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젊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밖으로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는 무한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여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게 침례의 축복을 주기 위해 대리의식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특권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성전으로 걸어가면서 이른 아침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하여 대리 침례를 받고 나온 한 무리의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아직도 젖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한 소녀가 성전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느낌을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행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병자나 연로하신 분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요양 시설은 집과 다들 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젊은 시설을 그리워합니다. 그분들은 가족들의 방문과 가정의 안락함을 그리워합니다.

한 요양 시설에서 가진 교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휠체어에 의지한 참석자들이 성찬을 취한 후에 여러분 나이 또래의 한 청년이 바이올린 독주를 했습니다. 연로하신 자매님들은 매우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름다워", "훌륭해", "아주 잘해" 하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 같은 소란도 바이올린 연주자를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훌륭하게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그 청년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연주한 적이 없었어요. 무엇인가가 제가 가진



능력 이상의 솜씨를 발휘하도록 이끌어 준 것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오는 영감을 느꼈어요.”

저는 그 청녀에게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모사이사서 2:17)이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청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집어넣고는 땀을 따라 흐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밖으로 손을 내밀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힘껏 앞으로 정진하라.’**입니다. 영의 속삭임이나 성장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진실로 태만은 시간의 도적입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겪게 되는 일상적인 난관을 맞서십시오.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라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매일을 애쓰시는 아버지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로부터 “아버지를 사랑해요”라는 소중한 말을 들을 때 매우 감격해 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한 교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올림푸스 중학교에서 자석에 대해 공부한 후에 “M자로 시작하는 낱말로 이렇게 물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이죠?”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3분의 1이 넘는 학생이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진보를 방해하는 일시적인 시험이나 장애에 맞서 행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받을 자격이 주어진 축복은 축복사의 축복입니다. 감독님과 부모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야 할 자격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인생의 가능성이라는 책에서 밝혀진 부분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안전한 항구의 평온함으로 인도하여 주는 언덕 위의 등대와 같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도록 부름 받고 성임된 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청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합니다”를 부모님과 교사, 지도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망하는 때와 우울한 날들과 개인적인 좌절의 순간들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을 딛고 일어나 다시 해의 영광을 향해 위로,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 주는 인생의 고속 도로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탁월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결코 평범함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제이미 팔머라는 당시 나이로 열두 살된 귀여운 청녀가 부모님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제이미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온갖 치료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회복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시간은 참으로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꿈과 희망과

계획을 보류할 수밖에 없어 풀이 죽어 있는 딸아이를 함께 축복할 것을 제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울었습니다. 제이미에게 신권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제이미와 그 가족과 연락해 왔습니다. 세월은 빨리 흘렀습니다. 제이미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축복해 주는 협회의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봉사를 해왔습니다. 제이미는 아리따운 아가씨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건강합니다. 그녀는 연단자의 불을 통과했고 그녀의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려웠던 시기에 도움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과 특히 오늘 이 순간에도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이미는 인생의 전환점을 암 치료를 하던 초기에 맞게 되었습니다. 제이미와 와드의 청소년들은 팀파노고스 동굴로 하이킹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곳으로 하이킹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 길이 가파르고, 동굴까지 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제이미는 친구들에게 “난 너희들과 하이킹을 못할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제이미는 “난 걸을 수가 없거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이미, 네가 걸을 수 없다면 우리는 널 업고 갈 거야.” 그들은 그렇게 산으로 올라갔다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청녀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안을 들여다 보고, 밖으로 손을 내밀고, 힘껏 앞으로 정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큰 보상과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시대의 예언자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께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 씀드렸습니다. 아멘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제169차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고든 비 킱클리 대관장: (신권)은 지상에서 행사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분이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신권에는 교회의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권세와 권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병든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늘의 권세를 끌어내리는 권세와 권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빛을 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우리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분의 이름은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순종은 결정을 내릴 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만일 우리가 계명을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한다면, 유혹이 우리가 가는 길에 오는 경우에 취해야 할 길을 다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린도후서 13:1; 교리와 성약 6:28; 신명기 19:15 참조)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의식들인



침례식과 결혼식, 기타 성전 의식들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교리와 성약 127:6; 128:3 참조)

엘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부모님께 무례하지 마십시오. 또한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의 권고와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구세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는"(교리와 성약 52:40)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또한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는"(교리와 성약 81:5)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예언자들이 가르친 교리입니다.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권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 영적인 것들, 즉 육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합니다.

크리 엘 코포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여러분은 이제부터 가족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발을 구르며 큰소리로 "좋은 말을 하지 않을 바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이해할 것입니다.

스티븐 에이 웨스트 장로, 칠십인 정원회: (지상에 계시는 동안) 구세주는... 어느 곳에서는 사랑의 손길을, 또 다른 곳에서는 친절 한 말씀을, (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굶주린 이에게 양식을 주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권고와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겁에 질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무시된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아이들에게 존중과 애정을, 짐을 진 사람들에게 자애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작은 일을 통하여 크신 사업을 이루심을 알 수 있느니라."(니파이일서 16:29) "그러므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마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

로버트 제이 웨튼 장로, 칠십인 정원회: 구세주는 자신이 사랑을 더욱 조건 없이, 더욱 순수하게, 더욱 온전하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세리 엘 듀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역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합니까?...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의 속죄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짐을 홀로 져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캐롤 비 토마스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저는 어린 소녀였을 때 성전에 대한 기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충실히 참석하셨고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성전이 참으로 훌륭한 곳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성전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이 배어 있는 것을 보고 성전복의 신성한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양을 찾고 먹이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침례 받은 모든 사람들이 격려 받고 주님의 이 복음에 대해 따뜻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 이 시간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 대해, 또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여러 다른 일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힘과 재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명 받은 모든 일을 헌신적으로, 또 기꺼이 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주께서 사랑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훌륭하고도 막중한 책임입니다. 힝클리 대관장이 무언가 새롭고 멋진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번만은 예외입니다. 전세계에서의 선교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십이사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청중의 수적인 면에서 본다면, 선교 사업을 위해 모인 것은 아마 이번이 가장 대규모일 것입니다. 태버네클이 꽉 찼습니다. 본 모임의 실황은 전세계에서 봉사하고 있는 5만 9천여 명의 복음 선교사들이 대부분 시청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선교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책임을 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 직원들이 우리와 함께 모임을 갖고 있거나, 실황 방송을 시청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드리건대, 오늘 말씀이 다소 길 것입니다. 저는 노인입니다. 얼마나 더 오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할 기운이 있을 때 말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 다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차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사이에 찬송가를 한곡 부르게 될 것입니다. 모두 합해서, 4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개종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큰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대형 유니타이드 센터에 약 2만 여명의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은 시카고 불스 팀이 농구를 하는 곳입니다. 새로운 교

회 회원인 랜디 키오스트리 형제가 내내 우리를 차태워 주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우리를 태워서 호텔과 그 유니타이드 센터로 데려다 주었으며, 나중에는 다시 공항으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시카고 시내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차로 다니는 동안, 그는 내내 선교 사업에 관해 이야기했고,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조직이라고 극찬했으며, 복음과 구원의 계획이야말로 그가 생애에서 맛본 가장 위대한 것이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랜디는 낸시와 데이트를 하면서 교회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낸시와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첫 데이트 때 말했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으며, 그는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술이 신앙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흡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신앙이 그들의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첫 데이트를 한 지 정확하게 만 1년만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문을 극복하는 데 거의 8년이 걸렸습니다.

한 쌍의 선교사들이 번갈아서 그를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그는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는 작년 3월에 침례 받았습니

다. 그는 구모라 언덕을 방문하고, 나무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전 열일곱 군대를 방문했는데,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모든 성전에 갔습니다. 그는 이제 내부에도 들어가 볼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의 그 첫 번째 방문은 4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는 엔다우먼트를 받은 뒤, 바로 다음날 사랑하는 낸시와 함께 인봉 의식을 받게 됩니다.

침례 받은 후, 랜디는 즉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론 신권에 성임되었습니다. 회원이 된 지 약 9개월 후에는 멜기세덱 신권의 장로직에 성임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는 주체 못할 정도로 복음을 사랑합니다. 복음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멈출 줄 모릅니다. 매일 밤낮으로, 그는 무릎을 꿇고 그의 삶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랜디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번째는 교회 회원이 보이는 모범의 엄청난 힘에 관해서입니다. 바로 데이트 첫날 어떤 술도 마시지 않는다고 했던 낸시의 확고하지만 차분한 태도로서, 그의 주의를 사로잡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여러 해 동안 그를 가르쳤지만, 그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마음을 문을 열고, 구원의 계획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은 바로 낸시였습니다.

제가 배운 두 번째 것은 약간의 관심만 있어도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로 들어오는 데 거의 8년이 걸렸습니다. 이해의 문이 열렸지만, 것처럼 용단을 내리는 데는 늘 두려움이 가로막았습니다. 선조들의 전통을 제쳐두고, 새롭고도 이상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 발을 들여놓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는 침례 받은 후 즉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감독님은 그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부름을 처리할 만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감독님은 그 의문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를 열성적인 새로운 개종자로 보았기에, 성장의 바탕이 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감독님은 교회에 그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첫 친구는 그의 아내 낸시였으며,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고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도 인내심을 갖고 들어줄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을 헤쳐 나가는 길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어 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모두 알고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는 꾸준히 배우고 있으며, 그렇게 배우나가는 중에 열정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게 된 것에 흥분했습니다. 그는 보다 큰 성전 축복을 너무나 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 회원이 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의 간증은 강하고 확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는 100퍼센트 개종자이며, 그의



회원들이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할 때 선교 사업이 성공한다. 이때 새로운 개종자들이 나올 수 있다.

열의는 쉽게 전파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옴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선교 사업은 네 단계의 과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1. 구도자를 찾음
2. 구도자를 가르침
3. 합당한 개종자를 침례 줌
4. 새로운 회원을 우정 증진하고 강화시킴.

작년 한해 동안 교회 전체적으로 약 30만 명의 개종자 침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대규모입니다. 이것은 회원 수 2천 5백명의 스테이크 120개와 맞먹는 것입니다. 한 해에 새로운 스테이크가 120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이 교회 회원인 우리들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한다면 이 수를 두 배로 늘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해도 결코 그것이 비현실적인 말은 아닙니다. 관심있는 구도자를 먼저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업을 그저 사람 찾아다니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사업에 친숙한 사람들은 누구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회원들을 통하는 것입니다. 구도자를 소개하는 회원이 있는 한, 즉각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회원은 이 사업이 참되다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구도자 친구의 행복을 열망합니다. 그는 그 친구가 복음을 배우는 데서 발전을 보이게 되면 매우 좋아합니다.

복음 선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가르칠 수는 있지만, 회원은 이 선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정을 제공함으로써 그 가르침을 지원해 줍니다. 그는 이 사업의 거룩함에 대해 진지한 간증을 전합니다. 그는 근처에 선교사들이 없을 때 질문에 대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크고도 종종 힘들 수 있는 변화를 겪고 있는 개종자의 친구가 됩니다.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 말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윌리엄 플리 박사는 텍사스 주 코퍼스크 리스티에서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어느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는 기름을 넣을 때마다 그 주유소 사장에게 교회 책자를 한 권씩 선물했습니다. 소책자를 준 때도 있었고, 교회 잡지나

처치 뉴스를 준 때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책자를 읽는 동안 영의 권세에 의해 개심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그는 그 스테이크에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과정은 결코 선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회원들이 새로운 구도자들을 소개해 주는 원천이 될 때 선교사들은 가장 확실한 성공을 거둡니다.

교회의 모든 감독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회원들에게 "와드를 기르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라는 표어를 주십시오. 문법이 맞지는 않지만, 그 정신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원들의 가슴에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회원들이 노력하게 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합시다. 옛날에 엘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합시다.

"오 주여, 저희가 [다른 이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보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은 고귀하며, 그 대부분이 저희의 형제들이오니,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저희 형제들을 다시 당신께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엘마서 31:34~35)

선교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그 일을 간단히, 훌륭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회원들의 구도자 소개가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회원을 찾아 다니거나 관련된 방법을 사용하여 스스로 구도자를 찾아야 합니다.

언젠가 어느 사랑하는 친구의 장례식에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는 선교부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임지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전임자는 매우 훌륭하고,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으며, 탁월한 지도자요 매우 유

능한 선교부장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선교부장은 그 선교부를 맡아서 처음으로 순회하면서 선교사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선교 사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선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 추수하십시오."

그러한 영과 넓은 사랑을 통해, 선교부 전체에 완전히 새로운 태도가 퍼져 나갔습니다. 회원들이 선교사들을 지원했습니다. 1년 이내에 개종자의 수가 배로 늘었습니다.

이제 모로나이의 다음 말씀을 선교사와 개종자들에게 드립니다. "합당하지 않게 침례받지 말라. 합당치 않게 그리스도의 성찬을 취하지 않도록 하라. 오직 범사를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며 끝까지 견디면 결코 쫓겨 나지 아니 하리라." (물몬서 9:29)

교회에 들어올 때의 합당성에 관해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침례를 받기에 합당한 후보

자가 되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한 신앙입니다. 기도의 효력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의식과 원리에 대한 신앙을 배워야 하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 복음과 그에 따른 모든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신앙, 그가 주님의 도구로서 조직한 교회에 대한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 있는 종으로서의 신권에 대한 신앙, 현대에 받은 계시에 대한 신앙, 말일성도에게 요구되는 봉사에 대한 신앙, 십일조의 원리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율법에 언급되어 있는, 다른 모든 세상적, 영적 요건들에 대한 신앙,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침례", 임프르브먼트 이라, 1911년 1월, 267~268쪽)

회원으로서의 책임을 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이 혼자서 선교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혼자서 해야 한다면, 매일 집집마다 문을 두드릴 것이며, 추수는 미약할 것입니다. 아니면 회원인 우리

복음 선교사들이 실제로 가르치지만 회원들이 주님의 사업의 신성에 대해 진실한 간증을 함으로써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가 구도자를 찾고 가르치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먼저 스테이크 부장과 평의회에게 있습니다. 각 스테이크에는 선교부장을 둔 스테이크 선교부가 있습니다. 구도자를 찾고 격려하는 일을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책임이며, 스테이크 부장의 전반적인 지시를 받아서 수행합니다. 찾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 모든 교회 회원이 포함됩니다.

교회의 모든 스테이크에서 복음 메시지를 들을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인식도를 키워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공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호전적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우리 자신의 선한 생활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생활은 향상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이기 때 문입니다.

각 스테이크 부장님과 지방부장님께서서는 여러분의 스테이크 내의 구도자들을 찾고 우정 증진해야 할 전체적인 책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각 감독님과 지부장님께서도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 내에서 똑같은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이에 대한 거룩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감에 찬 지도력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이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능력과 의지에 대해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누구나 더욱 큰 열의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성찬식에서 간헐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신권회와 상호부조회에서 이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 청년들이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초등협회 어린이 들조차도 도울 방법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초등협회에 초대받은 자녀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세 손녀에게는 어린 비회원 친구가 있습니다. 손녀 아이는 그 친구를 교회에 데려 갑니다. 하루는 그 친

구의 어머니가 악의 없이 “너는 물론들처럼 기도하는구나.” 하시더라고요.

와드 및 스테이크 평의회는 와드 회원들이 찾는 구도자 및 최근에 교회에 들어온 모든 개종자의 현황을 토론 의제에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교사들이 바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해 할 것입니다. 높은 성과를 보일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 사람씩 짝지어 나의 영의 권능으로 나아가 내 이름으로 나의 복음을 전파 하며 나팔소리 같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천사처럼 나의 말을 선포하라.

“너희는 나아가 물로 침례를 베풀며 이르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라” (교리와 성약 42:6~7)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왕국의 이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일에 변함없이 꾸준히 충실한 자는 마음에 피곤을 느끼지 않겠고... 몸이나 사지나 관절도 피로하지 아니할 것이며, 머리털 한 오라기라도 아무도 몰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굶주리거나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교리와 성약 84:80)

이렇게 계속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 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 (교리와 성약 84:88)

선교사들이 회원들에게 구도자 소개를 부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구도자 소개를 부탁하는 선교사들이 구도자 소개도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많은 지역에서 회원 구도자 소개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987년에 구도자의 42퍼센트가 회원 구도자 소개에서 나왔으나, 1997년에는 그 수가 20퍼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하향 추세는 반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중요한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중요한 사업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맞출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그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교리와 성약 18:15~16)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결국 앞서 말했듯이 가장 중요하고 큰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05쪽)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은 각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것임을 성도들이 명심하게 하십시오. 이 말일의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성령의 동역자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십시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67쪽)

교회의 모든 대관장님들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위대하며, 가르칠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우리의 책임은 엄청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모든 복음 선교사와 스테이크 선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감독과 모든 감독 보좌와 모든 와드 평의회 회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스테이크 부장과 평의회, 특히 회원 선교사 협의의 평의회가 가장 큰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맞아야 합니다. 기회는 매우 풍부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가 노력할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새로운 회원들을 강화시킴

새로운 개종자를 침례 주고 나면, 우리에게 그와 우정을 증진하고 이 사업이 참되다는 그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어야 할 과제

가 남습니다. 그가 앞문으로 들어와 뒷문으로 나가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개종자들은 저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묵시적인 약속을 맺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위험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개종자를 따뜻하고 강하게 맞아주는 손들이 없는 한, 사랑과 관심의 손길이 없는 한, 그는 자신이 내딛은 발걸음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를 맞아주고 이끌어 주는 친근한 손길과 환대를 주는 마음들이 없는 한, 그는 길 밖으로 떨어지고 말 수도 있습니다.

선교 사업의 열매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한, 그 일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불가분의 것입니다. 이 개종자들은 고귀합니다. 모든 개종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입니다. 모든 개종자는 위대하고도 중대한 책임 대상입니다. 우리의 일부가 된 그들을 보살피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구세주의 말씀처럼, 침례 받은 사람이 교회에 남아 있지 않다면, 온 세상을 침례 준들 선교사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마가복음 8:36 참조)

저는 언젠가 매우 재미있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1년 전에 교회에 가입한 한 자매님이 보내 오신 것으로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1년은 제 생애에서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또 가장 보람있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회원으로서 매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가입했을 때 와드의 지도자들이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감독님은 새로운 회원인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거부당하고 있다고 느낀 그녀는 자신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준 선교부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회원들은 새로운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방법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

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신다면, 어떤 것이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외로운 일일 수도, 정말 낙담스러운 일일 수도,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세상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자매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도자인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그 자체의 전통과 문화와 언어를 가진 세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로 여행하는 데 인도해 줄만한 사람이나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여행이 흥분되고, 우리의 실수 자체도 즐겁지만, 나중에는 실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실망과 분노의 단계에서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에 왔던 세상,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세상, 우리의 역할을 알았던 세상, 우리가 기여했던 세상,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새로운 개종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자신에게 늘 고개를 돌려주고 자신의 곁에서 함께 생활해 주고, 자신의 질문에 대해 답해 주고, 자신의 문제를 이해해 주는 친구입니다.

2. 부름입니다. 활동은 이 교회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성장케 하는 과정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은 제 팔의 근육과 같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그 근육은 더 강해집니다. 기계에 맡겨둔다면, 더욱 연약해집니다. 모든 개종자는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독님은 개종자가 부름을 받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감수하신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새로운 개종자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는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두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을 통해 오는 성장입니다.

이처럼 책임을 부여 받는 절차의 일환으로, 개종자가 성인 남자인 경우에는 아론 신권에 성임되는 것이 적절하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너무 많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로 정원회의 우정을

참례는 새로운 개종자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행사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사랑과 우정을 필요로 한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전세계에 걸쳐 있는 거대한 신권 조직의 일원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신앙과 고결함을 갖춘 사람이 될 것입니다.

3. 모든 개종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가 신권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청년, 주일학교, 또는 초동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종자에게 성찬식에 참석하여 성찬을 취하고 침례 때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만, 제가 속한 워드에서 한 부부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감독 직분을 비롯해 교회에서 많은 부름을 받아 봉사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최근 부름은 어느 미혼모와 그녀의 자녀들과 우정 증진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교회 부름 중 가장 즐거운 부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의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근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당황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부적절한 말을 하는 등의 실수를 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제 부부는 그 가족을 교회에 데려와 곁에 앉아서 그들을 당황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 그대로 방패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 부부는 자택에서 그 자매의 가족과 함께 매주 하루 저녁씩 같이 시간을 보내며, 복음에 관해 더 가르쳐 주고, 많은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린 가족을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인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상 다른 도시로 이사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그 자매님과 연락합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교회에 뿌리를 튼튼히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그녀와 함께 봉사하게 되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 보살핀다면, 잃어버리는 수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개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여섯 공과만 들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

든 자격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가치관과 기회에 대한 감각에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습니 다. 그들은 교회 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캐나다를 방문했는데, 여러 도시 중에서도 특히 레지나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스카치완 주 사스카툰 스테이크의 디 로렌스 페너 스테이크 부장님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며 유능한 회사 중역입니다. 그분은 20세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로서는 장족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는 교회 회원들을 통해 선교사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즉시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와 대화했고, 가르쳐 주었으며, 침례 주었습니다. 지역의 교회 역원들처럼 그들도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신권 성임을 받았으며, 해야 할 일을 부여 받았습니다. 1년 후, 그는 선교사로 부름 받고 일본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는 그 경험으로 더 강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의 곁에서 도움을 주고 격려를 해주었던 많은 사람들 덕분에, 그는 현재 이 위대한 시온의 스테이크의 관리 대제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 개종해 들어와 끝까지 남아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장기간 우정 증진을 계속함

자,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개종자들을 교회에 묶어주는 책임의 일부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계속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끔 편지를 써서 격려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경전에 여러분이 침례 준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집주소를 함께 기록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체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 여러분이 보낸 편지를 읽고 그들은 재확신과 위안과 다시 불붙는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귀환한 뒤에도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들이 신뢰

하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가끔 편지를 써서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시키십시오.

선교사들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침례 주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떠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룬 일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수도 있고, 특별한 구도자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 활동 회원으로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모든 고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모든 과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침례 받기에 합당한 구도자는 구원 받기에도 합당한 개종자입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브루스 포터 장로님은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약 25년 전 독일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 저는 전임 선교사들이 몇몇 가족과 개인을 침례 주는데 경이적인 성공을 거둔 직후에 새로운 지역 지도자로서 워퍼탈 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침례는 그 지부의 인원 증가에 큰 기여를 했는데, 회원수가 거의 100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이 새로운 회원들이 평생 활동적인 회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들을 참여시키고 그들과 우정을 증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회원을 위한 모든 공과뿐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공과까지 추가로 가르쳤으며, 그들을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1년 과정 기초 복음반에 등록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부름을 받고 회원들의 사교와 우정 증진을 통해 지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부 지도자들과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장래에도 활동 회원으로 남는 데 도움이 되는 끈을 자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서로 만나고 다른 구도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돕도록 주선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그들이 침례 받은 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그들의 간증이 강해지고, 그들이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5년이 지난 현재, 그 가족과 개인의 거의 모두가 아직도 활동적이며 충실한 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 중 상당수가



개종자들에게 인사하는 따스하고 강한 손들이 없다면, 사랑과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우정 어린 손들이 없다면 그들은 옆으로 떨어져 나간다.

선교 사업을 했고,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활동적인 2세대, 3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활동 회원이 된 한 부부에게는 계속 활동 회원으로 남아서 성전 결혼을 한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지만, 당시의 경험에 비춰볼 때 선교사들이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회원들과 노력하면서 보낸 시간은 결국 풍성한 보상을 가져오게 됩니다.”(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에게 온 개인 편지)

평의회의 중요성

앞의 이야기는 행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큰 간증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회원들의 우정 증진을 돕기 위해 전도를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노력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계시고 워드 평의회가 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님과 스테이크 평의회가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것으로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스테이크에서의 선교사들이 안고 있는 현안을 살피고 교회에 들어온 모든 새로운 회원들을 끊임없이 살피고 점검하는 회원 선교사 협의 평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교부장님께서 이 모임에 자주 참석하실 것입니다.

이 평의회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회원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또 다른 여섯 공과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워드 평의회를 갖는 감독 여러분, 그 모임에서 개종자의 현황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엄격한 규칙에 얽매어 있지 않습니다. 무한한 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이 문제를 다룰 때 주님으로부터 영감과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들에게 감독님이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심뜩한 느낌이 듭니다. 처음 보면, 그들은 매우 매력적인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대하면, 복음이 그들을 세련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복장과 언행과 태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위대하며, 과정은 참으로 거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침례 받은 모든 사람들이 격려 받고 주님의 이 복음에 대해 따뜻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바로 우리들, 즉 스테이크 부장단, 고등 평의회, 감독단, 주일학교 회장단, 초등협회 회장단, 청년 회장단, 청년 회장단, 상호부조회 회장단, 신권 정원회 회장단의 책임입니다.

이 사업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관해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워드와 스테이크, 지방부와 지부에 속해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열의뿐 아니라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자 하는 커다란 소망을 가진 거대한 군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밭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교리와 성약 4:4) 주님은 거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교회가 조직되기 전부터 선교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거처온 수많은 고난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사업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 온 세상의 자녀들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영광스러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책임감과 새로운 의무감 앞에 분연히 일어서겠다고 마음 깊이 굳게 결심합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신성한 사업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요 왕국입니다. 거룩한 숲에서의 시현은 요셉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가장 거룩한 행사가 사실임을 더욱 증거해 줄 것입니다. 최근 이 새 성전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눈을 맞으며 서 있는데 거룩한 숲에서 일어났던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진실한 이해력이 가슴깊이 밀려들어왔습니다. 물론경은 참됩니다. 이 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분의 신권은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신권의 열쇠는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 행사됩니다. 저의 간증은 바로 여러분의 간증이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간증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 간증과 저의 축복과 사랑을 전해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복음 주제: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우정 증진, 선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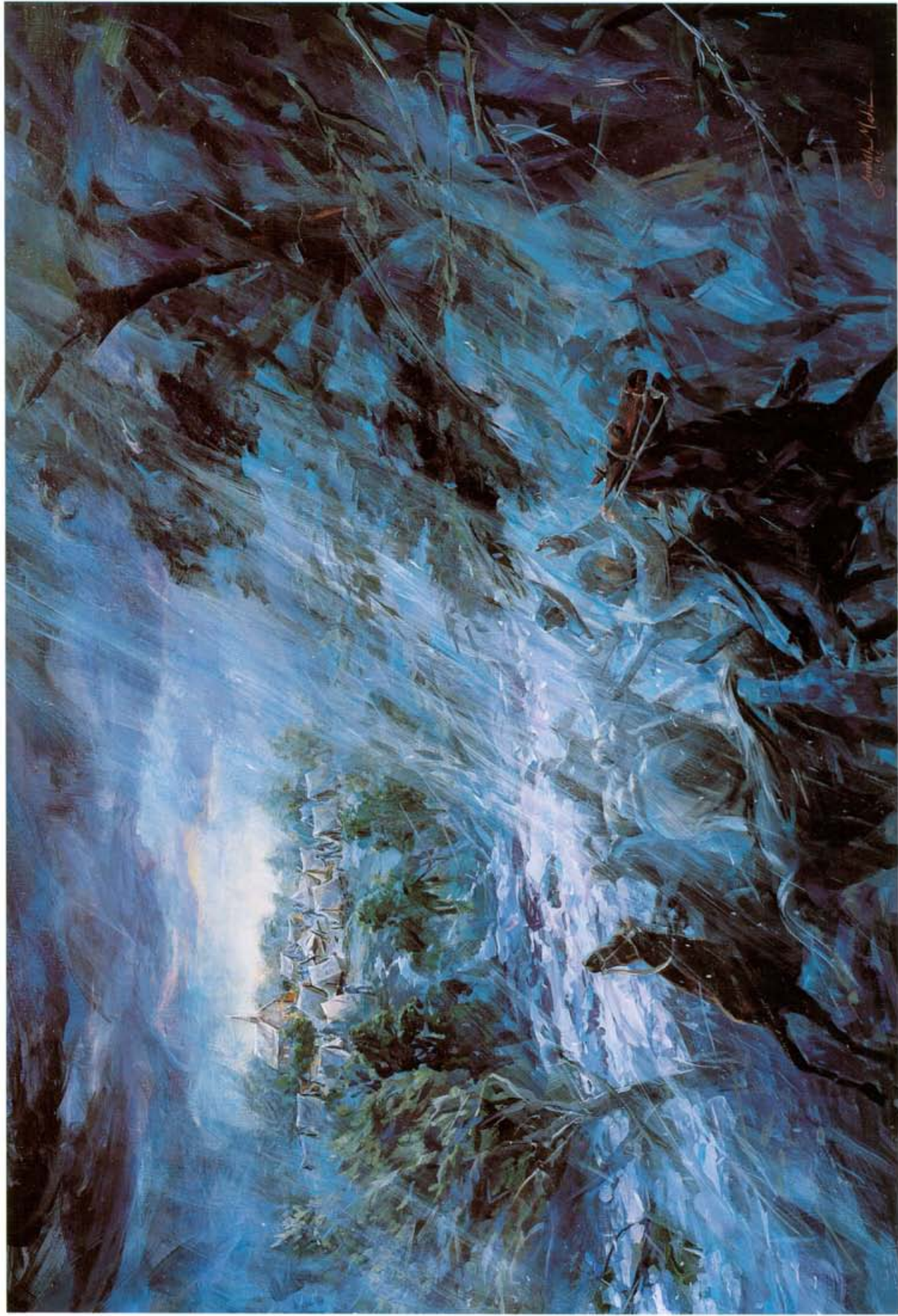


그림: 주디트 메어, 시온 진영

1834년 6월 중순, 미주리 주의 클레이 군에 있는 피싱 강 인근에서 폭도들은 갑자기 불어 닥친 폭풍으로 인해 흩어졌다. 그 전에 폭도들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먼자 요셉 스미스는 시온 진영의 안전을 위해 기도 드리고 주님의 보호가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졌다. 폭풍이 너무나 심하게 불어 시온 진영의 대원들은 천막을 내버려두고 근처에 있는 침례교 집회소(매장)로 대피했다.



18 67년에 템플 스퀘어의 태버네클이 처음 개관되었다.
그후 132년 동안 이 태버네클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쳐 왔으며 말일성도들에게 때에
알맞은 권고를 해왔다. 앞 표지: 구세주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누가복음 15:6)라고
말씀하셨다.